

| 국어 2-1 |

정답과 해설

천재 노미숙 교과서

1 국어	02
2 서술형 모아보기	34
3 시험 대비 문제집	45
4 실전 모의고사	58

01 문학을 펼치면

01 시의 목소리

● 바로바로 개념 체크 p.008

1 화자 2 ① 3 ⑤

- 1 시에서 말하는 이를 화자라고 한다. 시인은 화자를 내세워 자신의 생각이나 정서를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 2 시에서 말하는 이인 화자는 시 속에 직접 드러나기도 하고 드러나지 않기도 한다.
- 3 시인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화자를 내세운다. 이때 화자는 시인과 반드시 동일하지 않으므로, 화자의 경험을 시인의 실제 경험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 소단원 체크 p.009

1 ① 2 ② 3 ③ 4 수고로운 현실

- 1 이 시에서는 수고로운 현실을 의미하는 ‘바다’와 휴식처이자 가정을 의미하는 ‘항구’가 대조를 이루고 있다.
- 2 화자는 현관에 놓인 부모님의 구두를 보면서 일을 마치고 돌아온 부모님의 수고와 고단함을 떠올리고 있다.
- 3 이 시에서 화자는 현관에 놓인 부모님의 구두를 바라보면서, 일을 마치고 돌아온 부모님의 수고와 고단함을 떠올리며 애뜻함과 감사함을 느끼고 있다.
- 4 이 시에서 ‘바다’는 소금 냄새가 확 풍기고, 암초가 존재하는 곳으로 고된 현실을 의미한다.

소단원 핵심 정리 p.010

구두, 아빠, 아이, 항구

학습 점검하기 1 ① 효과적 ② 분위기 ③ 특성 2 동물

학습 활동 엮보기 p.011~013

학습활동 이해 1 현관, 구두, 수고, 상처 2 애정, 성숙, 부모님

학습활동 적용 3 비린내, 긍정적, 자기중심적

● 학습활동 응용 문제 p.011~013

1 ④ 2 ② 3 ② 4 ⑤ 5 ③ 6 ⑤ 7 감사함(애뜻함) 8 ② 9 ⑤ 10 ② 11 단호 12 ③

- 1 화자인 ‘나’는 저녁 무렵 현관에 놓인 부모님의 구두를 만져 보고 바라보면서 부모님의 고단한 삶을 떠올리고 있다.
- 2 화자는 현관에 놓인 부모님의 구두를 보며 항구에 닿을 내린 배를 떠올렸다. 이때 바다는 부모님의 수고로운 삶이 이어지는 문 바깥의 세상이고, 항구는 부모님의 구두가 놓인 집 현관이다.
- 3 ‘암초 자국들’은 배가 험난한 바다를 향해하며 겪는 어려움을 나타내는 것으로, 부모님이 각자의 자리에서 삶을 살아가며 겪었던 수많은 어려움과 시련, 수고 등을 의미한다.
- 4 화자는 현관에 놓인 부모님의 구두를 보면서 부모님이 바깥에서 일하며 겪은 고단함을 떠올리며 애뜻함을 느낀다. 따라서 이 시의 주제는 ‘부모님의 수고와 고단함을 애뜻하게 여기는 마음’이다.
- 5 ‘배 바닥에 굽힌 암초 자국들’은 부모님 신발의 닳은 흔적으로, 부모님이 밖에서 겪은 수고와 고단함을 의미한다. 화자는 그 구두 자국을 바라보며 부모님이 겪은 어려움과 수고를 떠올린다.
- 6 이 시에서 화자가 외적으로 성숙했는지는 알 수 없다. 화자가 부모님 구두의 닳은 흔적에 주목하는 모습을 볼 때 화자는 내적으로 성숙하고 철이 들었음을 파악할 수 있다.
- 7 이 시에서 화자는 현관에 놓인 부모님의 구두를 바라보며 일을 마치고 돌아온 부모님의 수고와 고단함을 떠올리고 감사의 마음과 애뜻함을 느끼고 있다.
- 8 이 시는 상상력이 풍부한 아이의 시선을 통해 동화 같은 분위기를 느끼게 한다.
- 9 이 시의 화자는 ‘우리’로, 사람들이 비린내가 난다고 말하는 ‘물고기’이다.
- 10 이 시의 4연에서 화자는 본인들의 향기가 다양하다고 하였다.
- 11 이 시의 화자는 물고기로 ‘~지 마세요’라는 표현을 거듭 사용한다. 이러한 반복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단호한 어조로 드러내고 있다.
- 12 이 시는 물고기에게서 비린내가 난다는 인식을 물고기의 입장에서 다시 생각해 보게 하여 자기중심적 사고와 언어를 바탕으로 다른 대상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드러낸다.

소단원 종합 문제 p.014~015

- 01 ⑤ 02 ③ 03 ③ 04 ⑤ 05 2연에서 ‘아빠 구두’, ‘엄마 구두’를 배로 비유한 것으로 보아 화자는 아이임을 알 수 있다. 이 시는 상상력이 풍부한 아이를 화자로 설정하여 동화 같은 분위기를 느끼게 한다. 06 ③ 07 ② 08 ④ 09 ③ 10 [A]에서 화자는 자신들을 향한 편견에 대한 거부감을 단호한 어조로 표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어조는 독자가 화자의 생각을 분명하게 알 수 있게 한다.

01 이 시에서 과거 회상을 통해 현재와 있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Clinic **오답 강의**

- ① 부모님의 구두를 '배'로 비유하고 있다.
- ② '바다'와 '항구'라는 공간을 대조하고 있다.
- ③ 시각적 심상(푸른 파도, 암초 자국들)과 후각적 심상(소금 냄새, 밥 냄새)을 활용하고 있다.
- ④ 말하는 이가 '나'로 나타나 있다.

02 3연에서 '푸른 파도가 밀려오고', '갈매기 날고'라는 시각적 심상과 '소금 냄새'라는 후각적 심상을 활용해서 화자가 상상한 현관 밖의 세상을 표현하고 있다.

03 이 시의 화자는 '아빠 구두는 고래잡이 통통배', '엄마 구두는 새우잡이 뽕죽배'와 같이 일상적인 사물을 바다의 배에 비유하고, 집 안에서 '푸른 파도'와 '갈매기', '소금 냄새'를 느끼는 등 아이의 시선에서 순수하고 풍부한 상상력을 발휘하고 있다.

04 이 시에서 '암초 자국들'은 부모님 구두에 닳은 흔적으로 부모님이 밖에서 겪은 '수고, 고생, 어려운 일'을 의미한다.

Clinic **오답 강의**

㉠은 '수고로운 현실', ㉡은 '아빠와 엄마의 구두', ㉢은 '수고, 고생, 어려운 일', ㉣은 '우리 집 현관, 휴식처, 가정'을 의미한다.

05 이 시에서 화자는 '나'로 나타나 있으며, '아빠, 엄마'라는 호칭과 부모님의 '구두'를 '배'로 표현한 것을 통해 화자가 상상력이 풍부한 아이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화자의 특성은 시에서 동화 같은 분위기를 느끼게 한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2연에 나타난 표현을 근거로 화자의 특성이 '아이'임을 밝힘.	2점	4점
'동화 같은 분위기' 등 화자의 특성에 따른 시의 분위기를 씀.	2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06 이 시의 화자인 물고기는 '우리들한테 / 비린내 난다고 하지 마세요', '코 막지 마세요' 등 사람처럼 말하며 자신들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으므로 의인법이 사용되었다.

07 물고기들은 자신들의 '향이 다양하다'고 말할 뿐, 냄새가 전혀 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냄새를 무조건 '비린내'라고 단정 짓는 사람들의 평가를 거부하고 있다.

08 이 시의 화자인 물고기들은 '우리들한테 / 비린내 난다고 하지 마세요', '코 막지 마세요', '언어폭력이에요'와 같이 인간에게 직접적으로 자신들의 요구 사항과 감정을 전달하고 있다.

09 이 시는 대상의 다양한 특성을 함부로 단정하는 태도를 비판하고, 대상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며 받아들여야 함을 말하고 있다.

10 화자는 자신들을 향한 편견에 대한 거부감을 '이건, 정말 / 언어폭력이에요'와 같이 단호하고 비판적인 어조로 드러내면서 독자에게 더 큰 울림과 공감을 유도하고 자신들의 주장을 강조하였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A]에 담긴 화자의 정서와 어조를 밝힘.	2점	4점
독자에게 미치는 효과를 씀.	2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3단계로 끝내는 서술형 실전 문제 p.016~017

1 화자, 아이, 바다, 항구 2 이 시의 화자는 '나'로, 부모님이 귀가한 저녁 무렵에 현관에서 부모님의 구두를 만져 보고 바라보고 있다. 3 ㉠에서 '암초 자국들'은 부모님 신발의 닳은 흔적을 빗대어 표현한 것으로, 이는 부모님의 수고와 집 밖에서 겪은 어려움, 시련 등을 의미한다. 부모님의 닳은 신발을 보고 있다는 부분에서 화자는 아이이며, 부모님의 수고를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성숙함을 알 수 있다. 이 시는 부모님의 수고를 아이의 목소리로 담담하게 전달하여 부모님의 수고에 감사하는 마음이 더 감동적으로 느껴지게 한다. 4 화자를 '어머니'로 바꾸어 5~6연을 써 보면 다음과 같다. "나는 밥 냄새 솔솔 익어 가는 항구에 앉아 / 오늘도 고단했던 내 배를 가만히 만져 본다 // 배 바닥에 굵던 암초 자국들 / 가족을 위해 묵묵히 견뎌 낸 시간들" 이와 같이 화자를 '어머니'로 바꾸면 시의 분위기는 동화 같은 분위기에서 현실적인 분위기로 달라진다. 또한 어머니의 헌신과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라는 주제가 강조된다.

2 이 시의 화자는 5연에 '나'로 제시되어 있으며, 1연, 5연, 6연에 화자가 저녁 무렵 집 현관에서 부모님의 구두를 만져 보고 바라보고 있음이 드러나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작품에 드러난 화자를 씀.	1점	4점
화자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씀.	각 1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3 이 시에서 '암초 자국들'은 부모님 신발의 닳은 흔적으로 부모님이 밖에서 수고롭게 일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화자는 그것을 오래 바라보면서 부모님의 수고와 희생을 깊이 느끼는 성숙함을 드러낸다. 아이인 화자가 부모님의 삶을 애뜻하게 바라보고 부모님에게 애정과 감사함을 느끼고 있어 시의 분위기를 더욱 감동적으로 느끼게 한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암초 자국들'의 의미를 씀.	2점	6점
화자의 특성과 그에 따른 효과를 씀.	각 2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4 순수하고 상상력이 풍부한 아이에서 성인인 어머니로 화자가 바뀌면 시의 분위기는 동화적이고 따뜻한 분위기에서 삶의 무게가 느껴지는 진지하고 현실적인 분위기로 전환될 수 있다. 주제 역시 어머니가 직접 체험하는 가족에 대한 헌신과 책임으로 달라질 수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어머니 시점으로 5~6연을 자연스럽게 재구성함.	4점	10점
화자를 '어머니'로 바꾸었을 때 느껴지는 시적 분위기를 씀.	3점	
화자를 '어머니'로 바꾸었을 때 강조되는 주제를 적절히 설명함.	3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서술형 문제 풀기 노하우

- ① 조건에 맞게 시 구절 다시 쓰기 ▶ 제시된 5~6연을 화자를 ‘어머니’로 바꾸어 자연스럽게 다시 써 보기
- ② 화자의 변화가 시의 분위기에 미치는 영향 파악하기 ▶ 화자의 정서와 어조 등을 통해 시의 분위기가 형성되는 점을 고려하여 다시 쓴 시의 분위기를 정리하기
- ③ 화자의 변화가 시의 주제에 미치는 영향 정리하기 ▶ 시를 다시 쓰면서 나타내고자 한 바, 강조하고자 한 바가 무엇인지 고려하여 다시 쓴 시의 주제를 정리하기

한 걸음 더

p.018

확인 문제 1 ① 2 ⑤ 3 ③

- 1 화자는 임과 헤어져 만나기 어려운 상황으로 자신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산버들’을 골라 꺾어 임에게 보내고자 한다.
- 2 화자는 ‘산버들’을 임에게 보내며 임이 자신을 잊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 3 화자는 멀리 떨어져 있는 임에게 임을 사랑하는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산버들’을 가리어 꺾어 보내므로 ㉠ ‘산버들’은 화자의 사랑을 전하는 매개체이다.

어휘력 키우기

p.019

1 ① 화자 ② 전달 ③ 효과 2 ① ○ ② × ③ ○ ④ × | 여행 일정표: 선착장 → 전망대 → 등대 → 선착장

확인 문제 1 (1) 효과 (2) 전달 (3) 화자 2 ③

- 2 ‘물썸’의 뜻은 ‘코를 푹 찌르도록 매우 심한 냄새가 풍기는 모양’이다. ‘냄새나 가는 연기 따위가 가볍게 풍기거나 피어오르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은 ‘술술’이다.

02 이야기 속 시선

바로바로 개념 체크

p.020

1 서술자 2 ⑤ 3 ⑤

- 1 소설에서 독자에게 이야기를 전달하는 이를 ‘서술자’라고 한다.
- 2 서술자가 모든 등장인물의 행동과 말뿐만 아니라 내면 심리까지 전달하는 것은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에 해당한다.
- 3 1인칭 주인공 시점은 주인공인 ‘나’의 심리를 전달할 수 있지만 다른 등장인물의 내면 심리를 전달할 수는 없다.

소단원 체크

p.021~037

- 1 ② 2 ⑤ 3 노래 하나를 골라서 반 아이들에게 소개하기 4 ⑤
 5 ⑤ 6 ③ 7 살얼음판, 소리 없는 전쟁 8 ② 9 ⑤ 10 ①
 11 ② 12 ① 13 ④ 14 ⑤ 15 ② 16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르기 위해 17 ④ 18 ⑤ 19 오프사이드 20 ⑤ 21 ①
 22 ③ 23 ④ 24 ③ 25 ③ 26 ④ 27 ② 28 ⑤ 29 ⑤
 30 ④ 31 ⑤ 32 ⑤ 33 ④ 34 ⑤ 35 ③ 36 저승사자
 37 ⑤ 38 ③ 39 ⑤ 40 ② 41 ④ 42 ④ 43 ② 44 ⑤
 45 ② 46 ③ 47 ② 48 응원봉 49 ③ 50 ④ 51 ④ 52 ⑤
 53 ① 54 ③ 55 ① 56 패스트푸드점 57 ③ 58 ⑤

- 1 이 글은 이야기 속에 ‘나’가 있으며 주인공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전달하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이다.
- 2 ㉠으로 보아 송미단은 시끄럽지는 않지만 주관이 뚜렷하고 야무진 성격으로 추측할 수 있다.
- 3 음악 선생님의 말을 정리한 ‘나’의 속마음을 통해서 음악 수행 평가는 노래 하나를 골라서 반 친구들에게 소개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 4 (나)에서 윤현재와 송미단은 수행 평가 과제의 주제를 두고 견해 차이를 보이며 갈등하고 있다.
- 5 송미단은 “자신이 감동받았던 경험을 녹여 내야 하지 않겠니?”라며 개인적인 감동과 경험을 중시하는 반면 윤현재는 “뭔가 주제가 있어야지.”라며 특정한 범위의 주제를 먼저 정하기를 바라는 등 수행 평가 주제를 선정하는 방식에서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 6 “재는 맨날 모른대.”라는 말을 통해 ‘나’는 음악 수행 평가 주제를 정하는 일 외에 평소에도 무기력하고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 왔음을 짐작할 수 있다.
- 7 송미단과 윤현재의 의견 대립으로 조별 활동의 긴장된 분위기가 ‘살얼음판’과 ‘소리 없는 전쟁’이라는 비유적 표현으로 드러난다. ‘살얼음판’은 언제 깨질지 모르는 살얼음처럼 불안하고 아슬아슬한 상황을 나타내고, ‘소리 없는 전쟁’은 겉으로는 침묵이지만 그 속에서 치열한 갈등이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
- 8 (라)의 내용으로 볼 때 반 친구들이 송미단을 이상하게 여기는 주된 이유는 송미단이 이미 죽은 인물인 ‘바준’에 대해 마치 살아 있는 사람처럼 이야기하는 태도 때문이다.
- 9 ‘나’는 윤현재와 송미단의 갈등에 대해 무관심한 태도를 보일 뿐, 직접 개입하고 싶어 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 10 윤현재와 앞에 앉은 아이는 송미단에 대한 혐담을 하며 긴장감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 11 ㉠의 원인은 ‘일단 곡 선정에서부터 윤현재와 송미단의 의견이 엇갈렸다.’라는 부분을 통해 알 수 있다.

- 12 윤현재가 “송미단! 바준 이야기 그만해. 너 지금까지 추천한 곡 모두 바준 노래인 거 알고 있어?”라고 말하는 부분에서 송미단이 바준의 노래만을 추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13 서술자인 ‘나’는 송미단의 심리를 ‘송미단이 눈을 깜빡거리며 윤현재를 바라보았다.’와 같은 행동을 관찰한 후에 ‘화난 건가? 가만히 있는 걸 봐선 그렇게 보이지는 않았다. 그런데 그 애가 입을 꼭 다물고 있는 모습에 생똥맞은 생각이 들었다. 혹시라도 울면 어떡하지?’와 같이 추측하여 서술하고 있다.
- 14 ‘나’는 ‘멀찌감치 서서 바라만 본다. 아니 그쪽을 보지 않으려 애쓰며 걷는다.’라고 표현하며, 축구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있지만 애써 외면하려는 태도를 보인다.
- 15 ‘익숙한 통증이 오른쪽 무릎에 찾아온다.’라는 구절을 통해 ‘나’가 부상으로 축구를 그만두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 16 (차)에서 윤현재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르느라 학교에 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17 ㉔는 윤현재가 없는 상황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으므로 송미단이 줄곧 주장했던 바준의 노래로 과제를 진행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 18 송미단은 ‘나’의 의사를 묻지 않고 이어폰을 꼴거나, 코앞까지 다가오는 등 다소 거침없는 행동을 보인다. 하지만 이것이 ‘나’를 괴롭히거나 무시하려는 의도보다는, 다소 서투르지만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을 공유하려는 친근함의 솔직한 표현으로 볼 수 있다.
- 19 송미단이 ‘나’의 코앞까지 다가온 것에 대한 ‘나’의 심리적 당혹감을 축구 용어인 ‘오프사이드’를 사용하여 비유적으로 표현하였다.
- 20 송미단은 “네가 하나도 모르니까 다른 거 하지는 이야기를 안 하잖아. 그러니까 잘됐다고.”라고 말한다. 이는 ‘나’가 음악에 대해 모르기 때문에 자신이 수행 평가 주제로 바준의 노래를 선택하는 것에 아무런 반대 의견을 내지 않을 것이라는 점 때문에 기뻐한 것이다.
- 21 ㉔에서 ‘시간이 많았다’고 한 이유는 ‘나’가 부상으로 축구를 그만두었기 때문이다. 더는 축구 연습에 시간을 쓰지 않게 되어 ‘나’에게 시간이 많아진 것이다.
- 22 “외로울 때 있잖아. 그때 음악을 들으면 텅 비었던 마음이 멧진 소리로 가득 차.”와 같은 송미단의 말로 볼 때 음악은 송미단에게 정서적인 지지대이자 위안이 됨을 보여 준다.
- 23 송미단은 ‘나’에게 “음악에 기대고 있잖아.”라고 말하지만, 음악에 관심이 없는 ‘나’는 ‘에이, 뭘 소리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라고 반응한다. 이를 통해 ‘나’가 송미단의 말을 이해하거나 공감하지 못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 24 부상 때문에 축구를 그만두면서 상실감을 느껴 본 ‘나’는 좋아하던 가수를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잃은 송미단에게 동질감을 느낀다.
- 25 ‘나’는 6개월은 반드시 쉬어야 한다는 의사의 말을 들은 뒤 축구를 그만두게 되었으므로 ㉔은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 26 ‘모든 계획은 물거품으로 돌아갔고’라는 표현은 더 이상 축구 선수라는 꿈을 이룰 수 없게 된 좌절감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 27 (터)에서 ‘나’는 축구 명문 고등학교에 진학하려는 희망찬 계획이 있었으나, 부상 후에는 더 이상 축구를 할 수 없는 현실에 부딪히며 깊은 좌절감을 느끼게 된다.
- 28 ‘나’는 트로피나 유니폼 같은 물품은 모두 치웠지만, 초등학교 때 처음 산 축구공만은 버리지 못한다. 겉으로는 축구공을 장난감이라며 가볍게 말하지만, 그 안에는 첫 시작의 기억과 축구에 대한 미련이 담겨 있어 쉽게 버리지 못한 것이다.
- 29 ‘나’는 축구공을 장난감이라고 표현하며 대수롭지 않은 물건처럼 말한다. 이는 축구를 그만둔 상실감을 숨기고 그에 따른 아픔을 모른 척하려는 태도로 이해할 수 있다.
- 30 ‘텅 빈 벽’이나 ‘앞으로 저 벽을 채우는 일은 없겠지? 아마도 영원히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는 다시는 축구를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좌절감, 피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한 체념을 보여 준다.
- 31 ‘나’는 겉으로는 불평하지만, 송미단의 표정을 떠올리며 결국 마음이 흔들려 일요일에도 과제를 하러 나가게 된다. 이는 송미단의 영향으로 생긴 내적 동요를 보여 준다.
- 32 (버)에서 송미단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 준 ‘나’에게 고마움을 표현한다.
- 33 ‘꼭 하고 싶은데 들어 줄 사람이 없는 이야기’는 ‘나’의 입장에서 부상으로 좋아하던 축구를 그만두고 느끼는 아픔과 상실감을 의미한다.
- 34 ‘나’는 여전히 다소 망설이지만, 송미단이 의견을 묻자 관찮은 것 같다고 대답하며 참여하는 모습을 보인다.
- 35 아이들 대부분이 슬픈 표정을 지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는 묘사로 보아 아이들이 송미단의 발표에 공감하지 못했음을 암시한다.
- 36 ‘나’는 송미단의 발표를 듣는 윤현재의 얼굴이 ‘저승사자’ 같았다고 비유하였다.
- 37 윤현재는 “너희 어쩔 그렇게 내 의견은 강그리 무시하고 숙제를 했냐?”라고 말하며 자신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해 직접적으로 불만을 표출했다.

- 38 '심장이 꽤 저렸'이라는 표현에서 '나'가 송미단의 아픔을 깊이 헤아리며 공감했기 때문에, 함께 가슴 아픔을 느낀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 39 '나'는 처음에 송미단과 윤현재의 갈등을 지켜보는 입장이었으나, 송미단이 눈물을 흘리자 그 아픔에 공감하여 참지 못하고 뜻밖의 말로 윤현재에게 맞섰다.
- 40 '나'는 운동장 풍경이 꽤 낯익다고 생각하지만 선수와 관중이 없이 운동장에 혼자 있는 상황을 낯설게 느낀다.
- 41 ㉠은 '나'가 그동안 회피해 오던 자신의 상처를 마주하고 성장하도록 깨달음을 줄 수 있는 내용이다. '나'가 음악을 통해 축구에 대한 미련을 잊은 것은 아니다.
- 42 '허탈했지만 한편으로 다행이었다, 꿈이라서.'라는 문장을 통해 '나'는 아무도 없는 운동장에 혼자 서 있는 상황이 꿈이라는 사실에 '안도감'을 느끼면서도, 다시 축구를 하던 순간이 꿈이었다는 사실에 '허탈함'을 느낀다.
- 43 ㉡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찾고자 하는 것은 외면해 온 축구에 대한 자신의 진정한 감정과 속마음을 마주하려는 의지로 볼 수 있다.
- 44 '나만의 착각일지 모르겠지만 윤현재와의 일이 있는 이후로 나를 바라보는 송미단의 눈빛이 어딘가 달라졌다.'라는 문장을 통해 송미단의 태도 변화가 '윤현재'와 관련된 사건 이후에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 45 <별의 포옹>은 '나'와 송미단이 음악 수행 평가를 할 때 발표곡으로 선정한 바준의 곡으로 '나'는 수행 평가 활동 이전에 알지 못했던 노래이다.
- 46 이전에는 바준 노래 위주로 재생 목록을 채웠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특별히 네가 좋아할 만한 노래로 선곡했어.'라며 다른 가수 노래를 더 많이 넣었다는 점에서, 송미단이 '나'의 취향을 존중하고 '나'에게 맞춰 주려는 배려심 있는 모습으로 성장했음을 알 수 있다.
- 47 송미단과 '나'는 음악 수행 평가를 준비하며 교류한다. 그 과정에서 '나'는 무기력한 모습에서 차츰 벗어나고, 송미단은 자기 취향을 고집하지 않고 상대를 배려하는 쪽으로 변하며 함께 성장해 나간다.
- 48 송미단이 '나'에게 보낸 '응원 봉'은 단순히 가수 바준을 응원하는 팬덤의 도구를 넘어, 송미단이 '나'에게 보내는 진심 어린 지지와 연대를 의미한다.
- 49 ㉢을 '나'는 '불쌍한 녀석'이라고 묘사하며, 이어서 수술 후 아픔, 감독님, 축구부 친구들에게서 들었던(그리고 몸짓에서 느꼈던) '불쌍한 녀석'이라는 말을 떠올린다. 이러한 맥락으로 볼 때 '그 녀석'은 무릎 부상으로 축구를 그만두면서 좌절하고 상처받은 '나'를 의미한다.

- 50 ㉣에서 '나'는 자신의 내면 깊이 자리한 상처와 좌절감을 스스로 마주하고 이를 극복하려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이야기를 해 봐.'는 그 감정을 외부로 드러내고 해소하려는 시도이다.
- 51 '야, 밖으로 나와. 그리고 네 이야기를 해 봐.'라고 속삭이며 내면의 문제를 극복하려는 마음을 통해, '나'가 과거의 공간을 찾아 자신의 상처와 마주하고 해답을 얻고자 함을 추론할 수 있다.
- 52 '나'는 현재 무릎 부상으로 축구를 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축구를 하는 아이들을 보며 과거의 자신과 대비되는 현실을 자각하고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다.
- 53 '나'가 초등학교 운동장을 찾아가는 것은 자신의 아픈 과거를 회피하지 않고 마주하려는 노력과 성장의 의지를 보여 주는 것이다.
- 54 '나'는 처음에는 송미단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점차 공감하게 되고, 마지막에는 먼저 말을 건네는 등 태도의 변화를 보인다.
- 55 '나'는 과거 축구를 그만두며 받은 상처를 마주하고 성찰하며, 송미단에게 축구 이야기를 해 주기로 결심하는 등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 '나'가 과거를 잊고 오직 미래만 바라본다는 진술은 글의 내용과 다르므로 적절하지 않다.
- 56 과거의 무기력한 모습과 달리, '나'는 송미단에게 아이스크림을 먹자고 먼저 제안하며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겠다 마음먹으면서 패스트푸드점으로 향한다.
- 57 송미단이 자신이 좋아하는 바준에 대해 이야기한 것처럼 '나'도 자신이 좋아하는 축구에 대한 이야기를 송미단에게 하고자 함을 추론할 수 있다.
- 58 (모)에서 '나'가 송미단에게 축구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이라고 나왔을 뿐, 송미단이 '나'가 축구를 그만둔 이유를 알고 있는지는 이 글에서 알 수 없다.

핵심

포인트

p.021~037

- | | |
|------------|---------|
| 01 1인칭 주인공 | 02 무관심 |
| 03 감동 | 04 음악 |
| 05 부상 | 06 동질감 |
| 07 변호 | 08 내적 |
| 09 친구 | 10 초등학교 |
| 11 아이스크림 | |

교과서 날개 문제

p.021~037

1 "목소리가 동전이 든 저금통을 흔드는 것처럼 시끄러운 아이"라는 표현으로 볼 때 윤현재는 자기주장이 강한 성격일 것이다. "윤현재에 비하면 조용한 편이었지만 뽀족한 코와 아무진 입매가 만만치 않은 분위기를 풍겼다."라는 표현으로 보아 송미단은 시끄럽지는 않지만 주관이 뚜렷하고 야무진 성격일 것이다. 2 송미단이 자신이 좋아하는 가수가 죽는 데도 살아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기 때문이다. 3 축구에 대한 미련을 버리려고 일부러 축구부와 거리를 두기 위해 하는 행동일 것이다.

4 '나'에게는 음악과 관련한 배경지식이나 수행 평가 주제에 관한 의견이 없어서 송미단이 원하는 대로 발표를 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5 '나'가 등교 시간에 축구부 아이들이 훈련하는 모습을 보지 않으려 애쓰는 모습과 무릎에 통증을 느끼는 모습, 예전에는 축구 연습 때문에 수행 평가 준비에 참여하기 어려웠지만 이제는 달라졌다고 말하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나'가 부상 때문에 축구를 그만두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6 '나'가 다른 아이들과는 달리 송미단이 좋아하는 가수와 그 가수의 음악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 주었기 때문이다. 7 송미단에게 화를 내는 윤현재와 송미단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에 당황하고 속상했을 것이다. 8 무기력하고 주변에 무관심하던 예전과 달리 윤현재에 맞서서 송미단을 변호한다. 9 수행 평가 결과 때문에 윤현재와 대립할 때 자신의 편이 되어 준 '나'에게 고마움과 호감을 느끼게 됐기 때문이다. 10 '나'는 초등학교 아이들이 축구 경기를 하는 모습을 보며 축구를 그만둔 자신의 처지에 슬픔을 느끼면서도 언젠가 무릎 부상이 낫기를 소망하고 있다. 11 '나'는 자신이 좋아하는 축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할 것이다.

소단원 **핵심 정리**

p.038

1인칭 주인공, 축구, 속마음, 응원

학습 점검하기 1 ①○②×③×④○ 2 등장인물

학습

활동 **옛보기**

p.039~042

학습활동 **이해** 1 송미단, 소극적, 성장 2 공감

학습활동 **응용 문제**

p.039~043

1 ① 2 ① 3 ③ 4 ⑤ 5 ⑤ 6 축구공 7 ④ 8 ① 9 ⑤
10 속(안), 밖 11 ④ 12 ② 13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 14 ②
15 ⑤ 16 ②

- 1 '나'는 심한 부상을 입어 축구를 할 수 없게 된다. 그 후 무기력하게 학교생활을 하던 중에 윤현재, 송미단과 같은 조가 되어 음악 수행 평가 과제를 하게 된다.
- 2 윤현재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르느라 갑자기 결석을 했고, 이 때문에 송미단이 주도하여 음악 수행 평가 발표를 준비하게 된다.
- 3 '나'는 송미단에게 그동안 하지 못했던 자신의 축구 이야기를 하려고 아이스크림을 먹으러 가자고 말한다.
- 4 '나'는 주변에서 질문을 하면 '몰라'라고만 답하던 무기력하고 소극적인 태도에서 송미단에게 먼저 말을 걸고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적극적인 태도로 변화하였다.
- 5 '나'는 송미단이 만들어 준 음악 재생 목록에 담긴 <별의 포옹>이라는 노래의 가사를 통해 자신을 되돌아보고, 축구를 그만둔 뒤 '나'가 느낀 좌절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이는 '나'의 태도가 능동적으로 바뀌는 여러 계기 중 하나이다.

- 6 '나'는 부상으로 축구를 그만두며 축구에 관한 물품을 모두 치웠지만 처음으로 산 축구공은 버리지 못했다.
- 7 '나'와 송미단은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상처와 좌절을 극복하고 성장하게 된다.
- 8 이 소설은 이야기 속 등장인물인 '나'가 자신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를 직접 전달하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이다.
- 9 이 소설은 이야기 속 등장인물인 '나'가 변화와 성장에 관한 자신의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다.
- 10 ①은 '나'가 등장하므로 서술자의 위치가 이야기 속에 있고, ②는 '나'가 등장하지 않으므로 서술자의 위치가 작품 밖에 있다.
- 11 ①은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나(차우현)'의 속마음까지 서술한 반면 ②는 3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관찰자인 서술자는 등장인물인 차우현의 내면 심리를 전달할 수 없다.
- 12 이 글은 '나'를 서술자로 설정하여 주인공인 '나'의 변화와 성장 과정을 '나'의 입장에서 전달함으로써 독자가 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 13 서술자가 이야기에 등장하지 않는 것은 3인칭 시점이고, 서술자가 전지전능한 것처럼 모든 등장인물의 속마음을 전달하는 것은 전지적 작가 시점이다.
- 14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이므로 1인칭 시점이고, 차우현과 송미단을 윤현재가 관찰하는 것이므로 관찰자 시점이다.
- 15 <보기>는 윤현재를 '나'로 설정한 1인칭 관찰자 시점이다. '나' 이외의 다른 등장인물에 대해서는 관찰한 내용만 서술할 수 있으므로 음악 선생님의 의도는 알기 어렵다.
- 16 이 글의 서술자를 '윤현재'로 바꾸면 원작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윤현재의 심정이 직접적으로 전달되어 독자는 윤현재에게 쉽게 공감할 수 있다.

소단원 **종합 문제**

p.044~045

01 ③ 02 ④ 03 ② 04 ③ 05 ② 06 ⑤ 07 이 소설은 '나'에게 일어난 변화와 성장 과정이 '나'의 입장에서 전달되므로 친구와 소통하며 상처와 좌절을 극복할 수 있다는 주제가 효과적으로 드러난다.

- 01 음악 수행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윤현재와 송미단이 다 투고, '나'는 송미단의 편을 들어 윤현재에게 반격하고 있다.
- 02 (가)에서 '나'는 방관자로 무관심한 태도를 보인다. (나)에서는 자신의 귀에 이어폰을 꽂아 주며 음악을 들려주는 송미단의 행동에 당황하고, (라)에서 송미단의 입장에 공감하며 편을 들어 준다.
- 03 <보기>는 송미단이 '나'가 되어 자신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시점이므로 송미단의 심리를 더욱 잘 알 수 있다.

04 이 글은 '나(차우현)'가 자신의 이야기를 직접 전하고 있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이다.

05 (나)에서 '나'는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되었다고 좋아하는 마음까지 버릴 수는 없지.'라고 생각하며 축구를 할 수 없게 되었지만 축구를 좋아하는 마음이 여전히 남아 있음을 인정하고 좌절감에서 벗어나고자 한다. 따라서 '나'가 축구에 대한 미련을 끊어 냈다고 보기 어렵다.

06 (나)와 (다)를 참고할 때 ㉠은 '나'가 그동안 송미단에게 하지 못했던 이야기로, 축구에 대한 애정, 좌절, 이를 극복하려는 과정으로 추론할 수 있다.

07 이 소설은 이야기 속 '나'가 주인공인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송미단과의 소통을 통해 내면의 상처와 좌절을 극복하는 차우현의 모습이 '나'의 입장에서 전달되므로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낸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나'의 입장에서 사건이 전달됨을 씀.	1점	3점
'성장'과 '소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이 시점이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함을 씀.	2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3단기로 끝내는

서술형 실전 문제

p.046~047

1 1인칭 주인공 시점, 1인칭 관찰자 시점, 3인칭 관찰자 시점,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 2 꿈에서 '나'는 운동장에 혼자 서 있으며 '혼자가 아나'라는 노래 가사 소리를 듣는다. 이 소설에서 꿈은 '나'가 과거의 상처와 좌절감을 극복하고 내적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는 실마리를 제시한다. 3 (나)에서 '나'는 자신의 내면 심리를 서술하므로 1인칭 주인공 시점이다. 무릎 부상으로 축구를 할 수 없게 되어 좌절과 슬픔을 느끼던 '나'가 이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직접 전달하므로 독자는 '나'의 이야기에 공감하고 몰입할 수 있다. 4 (다)를 3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바꾸어 쓰면 다음과 같다.

주말에 차우현도 음악 재생 목록을 하나 만들었다. 송미단이 차우현에게 만들어 준 목록에 있는 곡들과 차우현이 새로 알게 된 곡들을 넣었다. 몇 시간 후 그걸 발견한 송미단이 차우현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 왜 차우현, 가르친 보람이 있는데?

송미단의 메시지를 본 차우현도 바로 답을 보냈다.

— 아이스크림 먹을래?

차우현이 붉어진 얼굴로 메시지 창을 쳐다보았다. 곧 송미단의 대답이 도착했다.

— 좋지!

차우현은 빠르게 외출 준비를 하고 패스트푸드점으로 향했다. 약속 장소를 향해 걷는 차우현의 입꼬리가 올라가 있었다.

위와 같이 3인칭 관찰자 시점에서 서술자는 이야기 속 등장인물이 아니고, 등장인물의 행동과 말 등 외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것만을 전달하기 때문에 이야기 속 등장인물의 생각이나 속마음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없다. 반면에 1인칭 주인공 시점은 서술자가 이야기 속 등장인물이자 주인공으로 자신의 행동과 말, 생각이나 속마음까지 서술할 수 있다.

2 꿈에서 '나'는 운동장 한가운데 혼자 서 있다가 하늘에서 들려오는 "이제는 숨지 마. 너는 혼자가 아니야."라는 노래 가사를 듣고 눈을 뜬다. 이 꿈의 내용은 부상으로 축구를 포기했지만 여전히 축구를 하고 싶은 '나'의 마음을 드러내며, '나'가 상처와 좌절을 극복하고 내적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꿈의 내용을 40자 내외로 정리하여 씀.	2점	4점
꿈이 '나'의 내적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의 역할을 씀.	2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3 서술자가 이야기 속 등장인물인 '나'로 나타나 자신의 내면 심리를 직접 서술하고 있으므로, 이 소설의 시점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이다. 이 시점을 통해 독자는 서술자인 '나'가 느낀 좌절감과 이를 극복하는 과정을 생생하게 전달받으며 이야기에 더욱 쉽게 공감하고 몰입할 수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서술자의 특징을 1인칭 주인공 시점과 관련지어 씀.	3점	6점
서술자인 '나'가 입은 상처, 좌절과 이를 극복해 가는 과정을 독자가 공감하고 몰입할 수 있음을 씀.	3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4 1인칭 주인공 시점은 등장인물인 '나'가 주인공인 자신의 이야기를 하므로 '나'의 생각과 속마음이 그대로 드러난다. 이를 3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바꿀 경우 서술자는 등장인물의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과 말만을 전달할 수 있어, 인물의 심리 상태는 직접 서술할 수 없다는 차이가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다)의 내용을 3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적절하게 바꾸어 씀.	4점	10점
3인칭 관찰자 시점의 특징을 설명함.	2점	
1인칭 주인공 시점의 특징을 설명함.	2점	
두 시점을 인물의 내면 심리 서술 측면에서 비교함.	2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서술형 문제 풀기 노하우

- 1 조건에 따라 시점 바꾸어 쓰기 ▶ 제시된 부분을 3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바꾸어, 인물의 행동과 말을 관찰하는 입장에서 다시 써 보기
- 2 기존 시점과 바뀐 시점의 특징 파악하기 ▶ 1인칭 주인공 시점과 3인칭 관찰자 시점의 개념을 떠올리며 두 시점의 특징을 파악하기
- 3 기존 시점과 바뀐 시점을 내면 심리 서술 측면에서 비교하기 ▶ 서술자가 이야기를 전달하는 방식에 따라 내면 심리 서술에 차이가 생기는 점을 비교하기

교과서 날개 문제

p.048~049

1 '나'의 어머니를 좋아하는 마음이 드러나면 안 되기 때문에 어머니를 보러 가지는 '나'의 말에 당황해서 바쁘다고 핑계를 댄 것이다.

2 • 옥희 어머니 같은 과부의 재혼이 자유롭지 않은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옥희가 어머니와 아저씨의 재혼을 뜻하는 말을 하지 못하게 막은 것이다. • 옥희 어머니를 좋아하는 자신의 마음이 들킬까 봐 옥희의 말을 막은 것이다. 3 '나'의 어머니를 보고 싶은 마음에 예배당에 가려고 예배당의 위치를 물어본 것이다.

한 걸음 더

p.050

오해, 어린이

확인 문제 1 ① 2 ⑤

- 1 아저씨는 예배당에서 '나'에게 아는 척을 하지 않고 어머니를 의식하며 얼굴이 빨개진다.
- 2 이 글의 서술자는 어린이이로 어른들의 행동이나 심리, 감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전달하여 독자에게 재미를 느끼게 하고 여운을 준다.

어휘력 키우기

p.051

1 ① 서술 ② 관찰 ③ 시점

2 ① 서먹했는데 ② 막역한 ③ 등지고 ④ 소원해 / 10,000원

확인 문제 1 (1) 관찰 (2) 시점 (3) 서술 2 ②

- 2 '막연하다'는 '뚜렷하지 못하고 어렴풋하다.'의 의미로 '관계'와는 관련이 없다.

대단원 마무리 체크

p.052~053

01 화자 02 (1)○(2)○(3)○(4)× 03 (1)○(2)×(3)×(4)○ 04 (1)⊕(2)⊕(3)⊕(4)⊕ 05 애정 06 순수 07 수고, 성숙 08 상상력, 동화 09 감동 10 (1)×(2)×(3)○(4)○ 11 보호, 다양, 비린내 12 의인 13 상대방 14 단호 15 서술자, 시점 16 (1)×(2)×(3)○(4)○ 17 (1)⊕(2)⊕(3)⊕(4)⊕ 18 축구공 19 응원 봉 20 (1)○(2)× 21 ㉠ - ㉡ - ㉢ - ㉣ - ㉤ - ㉥ - ㉦ - ㉧ - ㉨ 22 (1) 패스트푸드점 (2) 교실 (3) 초등학교 운동장 23 내적 갈등 24 우정

대단원 종합 문제

p.054~057

01 ⑤ 02 ⑤ 03 ③ 04 ④ 05 ④ 06 ② 07 (나)는 물고기를 화자로 설정하여 인간의 편견에 대해 직접 말하게 함으로써, 독자가 물고기의 입장에서 상황을 이해하게 하고,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돌아보게 한다. 08 ① 09 ② 10 ② 11 종장에서 화자는 '산버들'을 보며 임이 자신을 생각해 주기를(떠올려 주기를, 그리워해 주기를, 잊지 말아 주기를) 바라고 있다. 12 ③ 13 ⑤ 14 ② 15 ③ 16 ③ 17 ④ 18 1인칭 주인공 시점, 서술자인 '나'의 긍정적인 변화를 보여 주어 독자는 결말의 희망적인 분위기를 효과적으로 느낄 수 있다. 19 ④ 20 ⑤

- 01 (가)와 (다)에서는 '나'로, (나)에서는 '우리'로 화자가 표면에 나타나 있어 시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잘 드러난다.

- 02 (가)는 구두, 밥 냄새, 암초 자국 등 시각, 후각적 이미지로 일상의 장면을 생생히 묘사하고 있으며, (나)는 물고기의 외형과 향기에 대한 감각적 표현을 통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03 화자는 평범한 부모님의 구두와 집의 현관을 보고 '배'와 '항구'라는 상상력을 동원하여 부모님의 삶의 모습을 짐작하고 있다. 이는 화자가 겉으로 보이는 현상에 머무르지 않고, 일상적인 사물들 속에서 의미를 찾아내는 뛰어난 상상력과 통찰력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 준다.

- 04 화자는 현관에 놓인 부모님의 구두를 보며, 그것을 '배'에 비유하고 신발의 낡은 흔적을 '암초 자국'에 빗대어 부모님의 삶의 고된 여정과 헌신을 헤아린다. 이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너머에 담긴 부모님의 노고를 이해하고, 그에 대해 깊이 감사하는 화자의 공감 어린 태도를 보여 준다.

- 05 1연의 '비린내 난다고 하지 마세요', 4연의 '향기가 다양한 걸 / 무조건 다 비린내라뇨!', 5연의 '언어폭력이에요'에서 화자는 물고기의 입장에서 인간의 일방적이고 편협한 판단을 직접 반박하고, 각자 다른 '피부'와 '향기' 등을 제시해 자신들의 가치와 특성을 드러내고 있다.

- 06 (나)의 화자인 '우리', 즉 물고기는 자신들에게 '비린내 난다'와 같은 인간의 주관적이고 폭력적인 평가에 대해 '이건, 정말 / 언어폭력이에요'라고 직접적으로 비판하며 항변하고 있다.

- 07 이 시는 실제로 말할 수 없는 물고기를 화자로 설정하여, 독자가 물고기의 입장에서 시적 상황을 이해하게 한다. 이를 통해 물고기의 생각과 감정을 직접 듣는 듯한 인상을 주며, 인간 중심적인 생각에 대해 반성할 수 있게 한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물고기의 입장에서 상황을 이해하도록 했음을 씀.	2점	4점
물고기를 화자로 설정하여 인간의 편견을 돌아보게 했음을 씀.	2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 08 (다)에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처럼 표현하는 의인법은 나타나 있지 않다.

- 09 (다)의 화자는 사랑하는 임과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임을 그리워하고 있다.

- 10 '산버들'은 자연물이지만 화자의 마음을 담아 임과 같이 있고 싶다는 소망을 드러내기 위한 소재일 뿐 자연 친화적 태도와는 관계가 없다.

- 11 임에게 보내는 '산버들'은 화자의 마음을 담은 매개물이자 화자의 분신과 같은 존재이다. 종장에서 화자는 임이 창밖에 심어 둔 산버들에서 새 잎이 나면 자신처럼 여겨 달라고 말하며 '산버들'을 보낸 자신의 바람을 드러내고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중장에서 화자가 임에게 기대하는 행위에 담긴 화자의 바람을 씀.	2점	2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 12** 앞으로 일어날 상황을 가정한 것은 (다)의 종장 ‘밤비에 새 잎이 나거든’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해당하지 않는다.
- 13** 이 글에서 ‘나’는 축구라는 꿈을 접어야 했던 아픔과 그로 인한 상실감을 솔직하게 드러낸다. 하지만 점차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과거의 공간을 찾아가고, 타인과의 소통을 통해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보여 준다. 독자들은 ‘나’의 이러한 성장 과정을 통해 자신들의 어려움을 돌아보고, 위로를 얻으며, 아픔을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과 공감을 느낄 수 있다.
- 14** 음악을 감상하는 현재의 상황 속에서 ‘나’는 불쌍하다는 말을 들었던 때를 떠올리며 과거를 회상한다. 이러한 회상과 함께 드러나는 내면의 상처와 이에 대한 성찰을 통해 인물이 좌절감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내면 심리의 변화를 보여 준다.
- 15** (바)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이고, <보기>는 3인칭 관찰자 시점이다. <보기>는 차우현이 관찰자가 아니라 서술자가 관찰자이다.
- 16** ㉠은 현실의 운동장으로 ‘나’가 좌절을 느끼고, 회피하고 싶은 공간이다. ㉡은 꿈속의 운동장으로 ‘나’가 변화의 실마리를 얻는 공간이다. ㉢은 초등학교 운동장으로 ‘나’가 자신의 속마음을 마주하고 성찰하는 공간이다.
- 17** ‘나’는 음악으로 마음을 채운다는 것에 의문을 던지며, 자신의 마음속이 ‘무언가가 꽂 들어차’ 있다고 말한다. 여기서 ‘꽂 들어차 있는 것’은 축구를 그만두게 된 상실감에서 비롯된 아픔, 미련, 슬픔 등의 복합적인 감정들을 비유한 것으로, 과거의 상처가 너무 커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 힘든 서술자의 내면 상태를 보여 준다.
- 18** 이 글은 주인공인 ‘나’의 긍정적인 변화를 보여 줌으로써 독자는 서술자인 ‘나’가 전달하는 이야기에 공감하고 결말의 희망적인 분위기를 효과적으로 느낄 수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1인칭 주인공 시점임을 밝힘.	2점	4점
서술상의 효과를 결말의 희망적인 분위기와 관련지어 씀.	2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 19** 이 글은 이야기 속 인물인 서술자가 주인공을 관찰하여 보여주는 1인칭 관찰자 시점이다. 서술자인 옥희가 주로 사랑손님인 아저씨와 어머니를 관찰하고 있다.
- 20** 아저씨는 ‘나’가 아빠라고 부르는 소리에 당황함과 난처함을 느껴 얼굴이 홍당무처럼 빨개지고, 목소리가 몹시도 떨린 것인데, 어린 ‘나’는 이러한 아저씨를 보고 몹시 성이 난 것처럼 보였다고 서술한다. 이는 어린 서술자인 ‘나’가 등장인물의 심리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내는 부분이다.

1 ㉓ 2 ㉔

- 1** 등장인물의 갈등을 파악하는 것은 소설에서 사건이나 주제를 파악하는 방법으로 화자를 중심으로 시의 내용을 파악하는 방법과는 관련이 없다.
- 2** 이 시의 화자는 실제 사람이 아니라 ‘딸기’이다. 오십 리 길을 짐차에 실려 온 딸기가 낫선 거리에서 팔려 가기 전의 모습이 그려져 있으며, 자연의 도움과 농부의 수고로 자란 자신의 정당한 몸값을 요구한다. 봄날의 생기를 느끼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02 소통으로 여는 세상

01 공감하고 존중하며 대화하기

● 바로바로 개념 체크

p.062

1 ④ 2 ② 3 ⑤

- 1 상대의 말을 똑같이 그대로 반복하는 것은 오히려 대화의 흐름을 막거나, 상대에게 진심으로 듣지 않는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 말을 반복하는 대신 상대의 말을 요약하여 재진술하면서 상대의 말을 경청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방법을 사용한다.
- 2 경청하고 공감하는 대화를 하면 상대의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상대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며 협력적으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상대의 말을 다 듣지 않고 갈등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3 갈등을 조정하는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상대의 의견과 감정을 존중하고, 사건과 관련하여 객관적으로 전달해야 하며,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진솔하게 표현하고, 자신이 상대에게 바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요청해야 한다.

● 소단원 체크

p.063~070

1 ④ 2 ⑤ 3 너도 많이 생각해 보고 말씀드렸는데 반대하셔서 속상했겠다. 4 ③ 5 ② 6 ② 7 ④ 8 ① 9 ⑤ 10 (고개를 끄덕이며) 그런 생각이 들었구나. 11 ③ 12 농구 연습 13 ③ 14 ③ 15 ③ 16 ① 17 ③ 18 너 내 친구 맞아? 19 ③ 20 ① 21 ⑤ 22 ④ 23 ⑤ 24 상대와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할 수 있다. 25 ② 26 ④ 27 ② 28 ③

- 1 미나는 기타 학원을 다니고 싶지만 엄마가 허락하지 않아 속상하고 답답한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 2 인우는 미나의 말에 맞장구, 질문 등으로 대화가 지속되도록 격려하고 있으며 재진술로 경청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미나가 스스로 문제점을 발견하도록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있지는 않다.
- 3 인우는 미나의 말을 요약하여 다시 한번 말함으로써 경청하고 공감하는 대화를 하고 있다.
- 4 비언어적 표현은 언어적·준언어적 표현 이외의 방법으로 의미를 전달하는 요소로, 몸짓, 표정, 시선 등을 이야기한다. 인우는 고개를 끄덕이는 비언어적 표현으로 미나의 말에 공감을 표현하고 있다.
- 5 미나는 인우와의 대화를 통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발견하고 인우와 원만한 친구 관계를 유지한다. 그러나 이 대화에서 인우의 고민에 대한 내용은 드러나 있지 않다.

- 6 인우는 미나의 상황과 입장에 공감하는 대화를 하며 미나의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미나의 생각과 감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 7 인우는 미나의 생각과 감정을 좀 더 깊이 이해하고 포용하는 태도를 기르게 되었으나, 이 대화에서 인우가 미나의 잘못된 점을 포용하는 부분은 드러나지 않는다.
- 8 경청하고 공감하는 대화는 상대방의 감정과 입장을 깊이 있게 이해하며 협력적으로 소통하는 대화 활동으로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 9 인우는 자신이 특별히 잘하는 것이 없어 잘하는 것이 많은 형과 비교되는 것 같아 고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10 비언어적 표현이란 몸짓, 표정, 시선 등을 말한다. 인우가 속상한 마음을 털어놓았으므로 끄덕임과 같이 비언어적 표현으로 관심을 보이고, 이어서 그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말을 해 주는 것이 적절하다.
- 11 제시된 대화에서는 농구 연습에 대한 입장 차이로 재혁이와 동우가 갈등하고 있다.
- 12 학교 대항 농구 경기를 대비해 함께 농구 연습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재혁이는 동우가 방과 후 연습에 빠지지 않기를 바란다. 그러나 동우는 사정상 방과 후 연습에 매일 참여하기 어려워 참여할 수 있는 날에 더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농구 연습에 대한 두 사람의 입장 차이로 갈등이 발생하였다.
- 13 재혁이는 동우가 방과 후 연습에 빠져 제대로 농구 연습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속상한 상태로 대화하다 동우와의 갈등이 악화된다. 동우가 자신의 말을 경청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화가 난 것은 아니다.
- 14 ㉠은 상대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갈등을 회피하는 표현으로, ㉠과 같은 표현은 갈등 상황에서 갈등을 악화시킬 수 있다.
- 15 재혁이는 동우가 방과 후 농구 연습을 빠지지 않기를 바라지만 동우는 사정상 매일 농구 연습에 참여하는 것이 힘들어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게 되었다.
- 16 재혁이와 동우는 대화를 하면서 갈등 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여 갈등을 악화시켰다.
- 17 재혁이는 '알 거 없어.'라면서 상대와의 대화를 회피하고 '우리 경기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거야?'라고 하며 사건에 대해 주관적으로 해석한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 재혁이는 이와 같이 갈등을 악화시키는 표현을 사용하였을 뿐, 동우에게 바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전달하지는 않았다.
- 18 동우는 재혁이가 자신의 상황과 입장을 이해해 주지 않아 섭섭한 마음을 '너 내 친구 맞아?'라고 이야기하면서 갈등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

1 경청, 공감, 감정, 갈등 2 그랬구나. 너도 많이 생각해 보고 말씀드렸는데 반대하셔서 속상했겠다. / 그랬어? 기타를 배우러 학원에 다니고 싶다고 말씀드렸는데, 엄마가 허락해 주시지 않아서 속상했겠다.

3 (가)에서는 인우가 미나의 감정을 이해하며 공감하는 표현을 사용하여, 미나가 자신의 고민을 편하게 이야기하고 해결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었다. (나)에서는 재혁이가 사건에 대한 주관적 해석을 전달하는 등 동우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감정을 앞세워 말해서 갈등이 악화되었다.

4 • [B]를 고쳐 쓰면 다음과 같다.

재혁: 네가 요즘 연습에 자주 못 나와서 팀 분위기가 걱정돼. 네 상황은 어떤지 궁금해.

동우: 미술 대회 준비 때문에 방과 후에 매일 연습하기는 어렵지만, 연습에 참여하는 날에는 더 열심히 하려고 해.

재혁: 네 입장을 이해했어. 그럼 우리가 같이 맞출 수 있는 연습 시간을 찾아보자.

- 갈등을 조정하는 대화 방법을 사용하면 갈등을 합리적이고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고, 서로를 존중하며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2 인우의 말 [A]에는 상대의 말을 요약하여 재진술하며 공감을 표현하고 맞장구를 치는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앞서 미나는 엄마가 공부에 집중하라며 학원에 다니는 것을 허락해 주시지 않아서 속상하다고 했으므로, 이 내용을 ‘엄마가 반대하셔서 속상했겠다.’와 같이 요약하여 재진술하고, ‘그랬구나, 그랬어?’ 등의 맞장구치는 표현을 넣어 공감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상대의 말을 요약하고 재진술하며 공감을 표현함.	2점	4점
맞장구치는 표현(예: 그랬구나, 그랬어? 등)이 자연스럽게 드러남.	2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3 (가)에서 인우는 미나의 말에 공감하는 대화 방식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공감적 대화는 미나가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기반이 되었다. (나)에서 재혁이는 동우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주관적인 해석을 바탕으로 마치듯 감정을 표출하였다. 이러한 재혁이의 대화 방식은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아 동우에게 서운함을 느끼게 하고, 결국 갈등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인우와 재혁이의 대화 방식을 각각 설명함.	각 2점	8점
인우와 재혁이의 대화 방식이 상황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씀.	각 2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4 재혁이는 [B]에서 자신의 감정, 생각 등을 진솔하게 표현하지 않아 갈등을 악화시켰다. 이에 ‘네가 연습에 자주 빠져서 걱정된다.’와 같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고, ‘우리 같이 맞출 수 있는 연습 시간을 찾아보자.’처럼 동우에게 자신이 바라는 것을 표현하면서 서로의 입장을 조정하는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대화 방법은 서로의 생각과 상황을 솔직하게 이야기하여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상대와 오해가 쌓이지 않아 원만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갈등 상황에서 필요하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B]를 갈등을 조정하는 대화 방법을 적용하여 고쳐 씀.	6점	10점
고쳐 쓴 대화문에 서로의 입장과 감정을 존중하는 태도가 드러남.	2점	
갈등을 조정하는 대화 방법의 필요성을 씀.	2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서술형 문제 풀기 노하우

- ① **갈등의 원인 파악하기** ▶ 두 사람의 입장 차이를 바탕으로 갈등의 원인을 파악하고, 두 사람이 사용한 표현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기
- ② **갈등을 조정하는 대화 방법 적용하기** ▶ <조건>에 제시된 갈등을 조정하는 대화 방법을 적용하여 재혁이와 동우의 입장에서 표현할 수 있는 솔직한 생각, 감정, 바라는 바를 정리하여 대화문 완성하기
- ③ **갈등을 조정하는 대화 방법의 필요성 정리하기** ▶ 갈등을 조정하는 대화 방법이 갈등 상황에 놓인 대화 당사자들에게 어떤 효과를 주는지 생각하며 필요성 정리하기

한 걸음 더

비난, 단절

확인 문제 1 ②

1 아빠는 민규를 비난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민규는 대화를 단절시키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두 사람의 갈등이 악화되고 있다.

어휘력 키우기

1 ① 공감 ② 포용 ③ 요청 2 처지를 바꾸어서 생각해 볼. - 역지사지(易地思之), 마음과 마음으로 서로 뜻이 통함. - 이심전심(以心傳心), 품은 생각을 터놓고 말할 만큼 아무 거리낌이 없고 솔직함. - 허심탄회(虛心坦懷), 동풍이 말의 귀를 스쳐 간다는 뜻으로, 남의 말을 귀담아듣지 않고 지나쳐 흘려버림을 이르는 말. - 마이동풍(馬耳東風)

확인 문제 1 (1) 공감 (2) 포용 2 ① 역지사지(易地思之) ② 허심탄회(虛心坦懷)

02 피동 표현과 인용 표현 활용하기

바로바로 개념 체크

1 피동 표현 2 ④ 3 ②

- 1 피동 표현은 문장의 주어가 동작이나 행위를 자기 힘이 아닌 다른 대상에게 당하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 2 ‘라고’는 직접 인용 표현을 만드는 데 쓰이는 조사이다.
- 3 직접 인용에서는 큰따옴표와 인용 조사 ‘라고’를 사용하고, 간접 인용에서는 따옴표 없이 인용 내용에 인용 조사 ‘고’를 사용한다.

1 ③ 2 ⑤ 3 ④ 4 ④ 5 ② 6 ④ 7 ⑤ 8 가족 여행이 다음 주로 미루어졌다. 9 ② 10 ① 11 ① 12 ④ 13 ③ 14 간접 인용(표현) 15 남자는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고 말했다. 16 ③ 17 지호가 그림 하나를 가리키며 “이 그림이 마음에 들어요.”라고 말했다. 18 ㉠ 직접 인용(표현) ㉡ 간접 인용(표현) 19 ④ 20 ① 21 ② 22 ③ 23 ① 24 ④ 25 ⑤ 26 ④ 27 ⑤ 28 ②, ⑤ 29 ②

1 그림 속 ‘밟다’라는 행위의 주체는 ‘다람쥐’이며 ‘사자’는 이 행위를 다람쥐에게 당하는 대상이다. 즉, 능동 표현일 때는 ‘다람쥐’를 주어로 쓰고 능동을 나타내는 동사인 ‘밟다’를 써야 하며 피동 표현일 때는 ‘사자’를 주어로 쓰고 피동을 나타내는 동사 ‘밟히다’를 서술어로 써야 한다.

2 가)는 능동 표현, 나)는 피동 표현으로 가)의 주어는 행위의 주체이나 나)의 주어는 행위를 당하는 대상이다.

3 가)와 나)는 동일한 사건을 서술하고 있지만 표현하려는 초점이 다르다. 능동 표현 가)는 행동을 한 주체인 ‘다람쥐’에 초점을 맞추어 서술한 반면에, 피동 표현 나)는 행동을 당한 ‘사자’에 초점을 맞추어 서술하였다.

4 ④는 행위의 주체인 주호가 제힘으로 만드는 행위를 하는 것을 나타내는 능동 표현이다.

Clinic 오답 강의

①은 ‘밟다 + 접미사 -리-’, ②는 ‘쓰다 + 접미사 -아-’, ③은 ‘뒤집다 + 접미사 -히-’, ⑤는 ‘뒤집다 + -어지다’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피동 표현이다.

5 ‘체포되었다’는 명사 ‘체포’에 접미사 ‘-되다’를 결합하여 만든 피동 표현이다.

6 ‘연주하다’는 능동을 나타내는 동사이다.

Clinic 오답 강의

①은 ‘쓰다 + -어지다’, ②는 ‘업다 + 접미사 -히-’, ③은 ‘시작 + 접미사 -되다’, ⑤는 ‘뭍다 + -어지다’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피동 표현이다.

7 제시된 문장에서는 ‘잡혔다’와 같이 주어 ‘토끼’가 동작을 당하는 것을 나타내는 피동 표현이 쓰였다.

8 능동을 나타내는 동사 ‘미루다’를 피동을 나타내는 동사 ‘미루어지다(미루- + -어지다)’로 바꾸어 목적어 ‘가족 여행’을 주어로 하는 피동문을 만들 수 있다.

9 ㉡은 주어가 드러나지는 않지만 ‘물리다’라는 동작을 당하고 있으며, ‘물렸어요’는 능동을 나타내는 동사 ‘물다’에 접미사 ‘-리-’를 결합하여 만든 피동 표현이다. ㉠은 주어인 ‘곰들’이 누군가에게 구출을 당한 것으로, ‘구출됐습니다’는 명사인 ‘구출’에 접미사 ‘-되다’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피동 표현이다.

Clinic 오답 강의

㉠, ㉡은 능동 표현이고, ㉢은 능동 표현을 인용한 표현이다.

10 ㉠은 주어인 ‘접시’가 동작을 당하는 의미가 드러나며 ‘깨졌어요’는 능동을 나타내는 동사 ‘깨다’에 ‘-어지다’가 결합한 피동 표현이다. ㉡은 피동 표현을 사용하여 행위의 주체를 감추며 동작에 따른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은 능동 표현으로 접시를 깬 행위의 주체인 ‘나’가 드러난다.

Clinic 오답 강의

④ 능동 표현과 피동 표현은 의도에 따라 다르게 사용하므로 어떤 표현을 일 상생활에서 더 많이 쓰지는 알 수 없다.

11 제시된 문장은 판단의 주체를 감추고 있는 피동 표현으로, 내용을 전망하는 주체를 감추어 내용의 객관성을 높이려는 의도가 드러난다.

12 ㉠과 ㉡은 모두 인용 표현으로 ‘방송부원 모집 안내문’의 내용을 자신의 말 속에 끌어다 쓰고 있다. ㉠은 직접 인용 표현, ㉡은 간접 인용 표현이다.

13 ㉠은 인용 부호(큰따옴표)와 인용 조사 ‘라고’를 사용한 직접 인용 표현이다. ㉡은 인용 부호 없이 인용 조사 ‘고’를 사용한 간접 인용 표현으로, 간접 인용 표현을 쓸 때에는 문맥이나 상황에 맞게 자신의 언어로 바꾸어 표현해야 한다.

14 인용 부호 없이 인용 조사 ‘고’를 사용하여 환경 단체의 말을 인용하는 간접 인용 표현이 쓰였다.

15 간접 인용을 할 때는 인용하려는 부분을 말하는 사람의 표현으로 바꾸어 정리한 뒤 조사 ‘고’를 쓴다.

16 간접 인용을 할 때에는 문맥이나 상황에 맞게 시간 표현 등을 고려하여 다른 사람의 말을 자신의 말로 바꾸고 인용 조사 ‘고’를 붙인다.

17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직접 인용할 때는 인용 부호(큰따옴표)를 사용하고, 조사 ‘라고’를 쓴다.

18 ㉠과 ㉡은 같은 상황을 전달하고 있으나 ㉠은 직접 인용 표현, ㉡은 간접 인용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19 ㉠과 ㉡은 같은 상황을 전달하고 있으나 ㉠은 직접 인용 표현, ㉡은 간접 인용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직접 인용 표현은 간접 인용 표현보다 인물의 감정이나 상황, 내용 등을 생동감과 현장감 있게 전달한다.

20 ㉠에는 할머니의 말을 그대로 전하는 직접 인용 표현이 사용되었고, ㉡에는 기자가 할머니의 말을 자신의 말로 바꾸어 쓴 간접 인용 표현이 사용되었다. 직접 인용 표현을 사용할 때 내용이 더 객관화되거나 격식을 갖추는 것은 아니므로 ㉠의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21 ㉡에는 간접 인용 표현이 나타난다. 간접 인용 표현은 말하는 사람의 상황이나 의도에 맞게 적절히 말을 바꾸어 전달하므로 생동감, 현장감은 줄어들고 좀 더 간결하고 객관화된 느낌을 준다.

22 문맥상 ③은 집에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 놀랍거나 실감 나지 않아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뜻을 전달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주체가 의도적으로 믿지 않는 태도를 나타내는 능동 표현 '믿지 않는다'보다는, 사실 자체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음을 드러내는 피동 표현 '믿기지 않는다(믿어지지 않는다)'를 쓰는 것이 적절하다.

23 손님은 피동 표현을 사용하여 행위의 주체를 드러내지 않고 있다. ㉠에서 동작인 '뒹다'의 대상은 '컵'이므로 동작의 대상은 드러나 있다.

24 '종업원이 컵을 덜 뒹았네요.'처럼 행위의 주체가 드러나는 능동 표현을 사용하면 주체인 종업원의 잘못을 지적하는 말처럼 들릴 수 있다.

25 ㉠에서 남학생은 다혜의 의도와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다혜의 말을 부분적으로 인용하여 다혜의 의도를 왜곡하여 전달하고 있다.

26 ㉠에서 남학생은 다혜가 말한 의도와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왜곡하여 말을 전한다. 이에 다혜가 당황함과 난감함을 느끼고 있다.

27 ㉠에는 다혜가 공적인 발표 상황에서 자신이 인용한 내용의 출처를 밝히지 않아 발표 내용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모습이 드러나 있다.

28 ㉠은 인용 표현을 잘못 사용한 문장이며 ㉡은 피동 표현을 올바르게 사용한 문장이다. ㉠을 올바른 간접 인용 표현으로 나타낼 때는 인용 조사 '라고'가 아니라 '고'를 써야 한다. ㉤ '막히다'는 '막다'에 접미사 '-히-'가 결합한 피동 표현이다.

29 ㉡는 동사 '만들다'에 '-어지다'가 결합하여 바르게 쓰인 피동 표현이다.

Clinic 오답 강의

①, ④는 능동 표현이다. ③, ⑤는 이중 피동 표현으로 '발견되었다', '안겼다'로 고쳐 써야 한다.

학습 활동 **활동** **옛보기**

p.079~086

학습 활동 **이해** 1 발혔다, -아- 2 직접 인용, 객관화, 요약

학습 활동 **적용** 2 청소년 성장 지원 사업 3 왜곡, 출처

핵심 포인트

p.080~084

- 01 동작, -히-, 접미사
- 02 대상, 책임, 주체
- 03 그대로, 간접 인용, 조사
- 04 생동감

소단원 핵심 정리

p.087

-아/어지다, 대상, 그대로, 현장감, 간결
학습 점검하기 1 ①○ ②× ③○ ④×

소단원 종합 문제

p.088~089

01 ㉡ 02 ㉡ 03 ㉣ 04 ㉠은 능동 표현이며 ㉡은 피동 표현이다. ㉠과 ㉡이 표현할 경우 판단의 주체를 감추어 보도 내용이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일반적인 의견이라는 느낌을 주어 객관성을 높일 수 있다. 05 ㉣ 06 ㉣ 07 ㉡ 08 ㉢, ㉤는 인용 표현으로 인용 표현의 유형에 따라 인용 조사와 인용 부호를 올바르게 사용하여야 하는데, ㉢, ㉤는 인용 조사와 인용 부호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다. ㉢을 간접 인용 표현으로 쓸 경우에는 인용 조사 '라고'가 아닌 '고'를 써야 한다. ㉤를 직접 인용 표현으로 쓸 경우 인용 부호인 큰따옴표를 써야 한다. 09 ㉢ 10 ㉤

01 능동 표현이 피동 표현이 되면서 주어와 목적어가 다른 문장 성분으로 바뀌고 동사도 피동을 나타내는 동사로 바뀐다. 이때 능동문의 주어 '다람쥐가'는 피동문에서 부사어 '다람쥐에게'로 바뀌었다.

02 ㉡는 주어인 '눈'이 동작이나 행위의 주체인 능동 표현이다.

Clinic 오답 강의

㉠은 '담다 + 접미사 -기-', ㉢은 '밀다 + 접미사 -리-', ㉣는 '붙잡다 + 접미사 -히-', ㉤는 '뒤집다 + -어지다'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피동 표현이 쓰였다.

03 동작이나 행위를 당하는 대상이 강조된 문장은 피동 표현이 사용된 문장이다. ㉣는 주어 '곰들'이 행위를 당하는 대상으로 '구출 + 접미사 -되다'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피동 표현이 쓰인 문장이다.

Clinic 오답 강의

㉠은 '나', ㉡는 '곰들', ㉢은 '엄마 곰', ㉤는 '환경 단체'가 행위의 주체로 나타나는 능동 표현이다.

04 피동 표현에서는 행위의 주체를 드러내지 않을 수 있다. 이에 따라 피동 표현을 사용하면 물가 상승 전망과 관련된 내용이어나온서 개인의 의견이 아닌 일반적인 의견이라는 느낌을 줄 수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과 ㉡이 각각 능동 표현과 피동 표현임을 밝힘.	각 1점	4점
피동 표현을 사용한 효과를 올바르게 설명함.	2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05 ㉢는 '방송부원 모집 안내문'을 바탕으로 하여 안내문의 글을 그대로 자신의 말 속에다 끌어다 쓴 직접 인용 표현이다.

06 (가)는 아주머니의 말을 말하는 사람이 자신의 언어로 바꾸어 옮긴 간접 인용 표현이며, (나)는 아주머니의 말을 그대로 옮긴 직접 인용 표현이다. 직접 인용 표현은 다른 사람의 말을 그대로 옮기므로 생동감과 현장감, 본래 그 말을 한 사람의 감정 등이 실감 나게 드러나고 간접 인용 표현은 직접 인용 표현에 비해 간결한 느낌을 주거나 본래 그 말을 한 사람의 감정이 덜 느껴진다.

07 '사랑을 가득 담은'의 주어인 '저'는 사랑을 담은 주체이므로 능동을 나타내는 '담은'은 올바른 표현이다.

Clinic 오답 강의

㉠은 '담긴', ㉡은 '믿기지, 믿어지지', ㉢은 '행복하게', ㉣은 '마음이 풀렸어요'로 쓰는 것이 올바르다.

08 직접 인용 표현을 쓸 때에는 인용 부호(큰따옴표)와 인용 조사 '(이)라고'를 사용해야 하며 간접 인용 표현을 쓸 때에는 인용 부호 없이 인용 조사 '고'를 사용해야 한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 ㉡ 표현이 잘못된 이유를 인용 표현을 만드는 방법과 관련하여 쓴 경우	2점	4점
㉢, ㉣ 표현을 <조건>의 인용 표현 유형에 맞게 올바르게 고친 경우	각 1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09 <기사 원문>의 능동 표현이 <수정안>에서는 피동 표현으로 바뀌었다. 바뀐 피동 표현에서는 행위의 주체인 '정부'가 감추어지고 '청소년 성장 지원 사업'이 주어로 제시된다. 이는 행위의 주체인 '정부'보다 행위의 대상인 '청소년 성장 지원 사업'을 강조하는 효과가 있다.

10 만화에서는 다혜의 말을 남학생이 부분적으로 인용하여 다혜가 한 말과는 전혀 다른 의미를 친구들에게 전달하였다. 이를 통해 대화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할 때에는 본래 그 말을 한 사람의 의도와 맥락을 고려하여 의도를 왜곡하지 않고 올바르게 인용해야 함을 알 수 있다.

3단계로 끝내는 서술형 실전 문제 p.090~091

1 피동, 주어, 인용, 말 2 (나)는 '제가 접시를 깬어요.'로, (다)는 '청소년 성장 지원 사업이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로 고친다. 3 (라)에 쓰인 인용 표현은 직접 인용 표현으로, 이를 활용하여 (마)의 할머니의 말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 할머니께서 인터뷰하실 때 "놀러 와 가꼬 쓰레기만 내뺨고 가는 걸 보면 못마땅하제."라고 말씀하셨다. 이와 같은 직접 인용 표현은 다른 사람의 말을 그대로 옮기므로 생동감과 현장감을 느낄 수 있다.

4 가현: 나 어제 아빠랑 음식점에 갔는데, 컵이 더러운 거야. 그래서 우리 아빠가 식당 종업원에게 "컵이 덜 닦였네요."라고 말씀하셨어.
 나영: 그랬구나. 너희 아버지께서 "종업원이 컵을 덜 닦았네요."라고 말씀하셨으면 종업원이 당황했을 것 같은데, 피동 표현을 사용해서 종업원의 체면을 살려 주셨네.

2 (나)의 밑줄 친 문장에는 행위의 주체를 숨기는 피동 표현이 쓰였다.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표현하려면 행위의 주체를 드러내어 "제가 접시를 깬어요."와 같이 능동 표현으로 고쳐 써야 한다. (다)에서는 기자가 청소년 성장 지원 사업을 강조하려고 한다. 이러한 의도를 드러내려면 문장의 주어를 강조하려는 대상으로 바꾸고 피동 표현을 활용하여 '청소년 성장 지원 사업이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와 같이 수정해야 한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나)의 밑줄 친 문장을 능동 표현으로 적절하게 고쳐 씀.	2점	4점
(다)의 밑줄 친 문장을 피동 표현으로 적절하게 고쳐 씀.	2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3 (라)에서는 '어떤 아주머니가 아기를 업고 뛰어와서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라고 외치셨어.'라는 직접 인용 표현이 쓰였다. 이처럼 다른 사람의 말을 직접 인용할 때는 인용하는 말에 큰따옴표(" ")와 조사 '라고'를 붙여 쓴다. 손녀가 할머니의 말을 직접 인용하는 경우, '우리 할머니께서 인터뷰하실 때 "놀러 와 가꼬 쓰레기만 내뺨고 가는 걸 보면 못마땅하제."라고 말씀하셨다.'와 같이 쓸 수 있다. 직접 인용 표현은 다른 사람의 말을 그대로 전하므로 문장에 생동감과 현장감을 더해 준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라)가 직접 인용 표현을 사용하였음을 밝혀 씀.	1점	6점
<조건>에 맞게 손녀가 할머니의 말을 직접 인용한 문장을 씀.	3점	
직접 인용 표현의 효과를 올바르게 씀.	2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4 가현이 나영에게 ㉠을 그대로 옮겨 전달하려면 직접 인용 표현을 사용하여, ㉠을 큰따옴표로 묶고 조사 '라고'를 붙여 쓴다. 나영은 ㉠의 피동 표현을 능동 표현인 '종업원이 컵을 덜 닦았네요.'와 같이 바꿔 쓸 수 있다. 피동 표현은 행위의 주체를 숨겨 상대방의 체면을 배려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나영은 가현의 아빠가 피동 표현을 사용하여 종업원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고 문제 상황을 전달한 것임을 설명할 수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가현이 (바)의 발화 상황을 드러내면서 ㉠을 직접 인용 표현으로 그대로 옮긴 담화 내용을 씀.	5점	10점
나영이 ㉠을 능동 표현으로 바꾼 담화 내용을 씀.	2점	
나영이 ㉠과 관련한 피동 표현의 효과를 포함하여 담화 내용을 씀.	3점	
가현이 ㉠을 직접 인용하였으나 발화 상황을 제대로 드러내지 않아 어색한 경우	-1점	
나영이 ㉠과 관련되지 않은 피동 표현의 효과만을 드러낸 경우	-1점	
대화의 형식으로 쓰지 않아 담화가 어색한 경우	-1점	

서술형 문제 풀기 노하우

- ① <조건>을 고려하여 '가현'이 말할 내용을 구성하기 ▶ <보기>의 상황을 설명하며 직접 인용 표현 활용하기
- ② ㉠을 능동 표현으로 수정하기 ▶ 피동 표현인 ㉠을 행위의 주체가 드러나게 능동 표현으로 수정하기
- ③ <조건>을 고려하여 '나영'이 말할 내용을 구성하기 ▶ 피동 표현을 사용하는 의도를 고려하여 (바)의 상황에서 ㉠을 사용한 효과를 설명하기

한 걸음 더 p.092

확인 문제 1 ① 2 ④

1 ②는 '해당한다', ③은 '발생했다', ④는 '발전했다(하였다)', ⑤는 '유래한'과 같이 피동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자연스럽다.

2 ④ ‘보여지다’는 ‘보다 + 접미사 -이- + -어지다’가 결합한 말로 이중 피동 형태이다.

Clinic 오답 강의

① ‘풀어지다(풀다 + -어지다)’, ③ ‘쓰였다(쓰다 + 접미사 -이-)’, ⑤ ‘붙인다(붙다 + 접미사 -이-)’는 피동 표현을 만드는 요소가 한 번만 쓰였으며, ② ‘사용하다’는 능동 표현이다.

어휘력 키우기

p.093

1 ① 객관성 ② 회피 ③ 생동감 2 (1)㉠ (2)㉡ (3)㉢ (4)㉣

확인 문제 1 (1) 객관성 (2) 생동감 (3) 회피 2 ㉠

문법 기초 다지기

p.094

1 피동 2 (1)㉠ (2)㉡ 3 (1) 피 (2) 능 (3) 능 (4) 피 4 (1) -이-, -하-, -리-, -기-, 물리다 (2) -아/어지다, -어지다 (3) -되다, -되다 5 (1)㉠ (2)㉡ 6 (1) 쓰이길 (2) 보입니다 7 인용 8 (1)㉠, ㉡, ㉢ (2)㉣, ㉤ 9 (1) 직 (2) 간 10 의도, 신뢰성

대단원 마무리 체크

p.095~096

01 감정, 입장 02 (1)○ (2)○ (3)× (4)○ (5)× 03 ① 속상함 ② 객관적 ③ 경청 ④ 포용 ⑤ 인간관계 04 (1)㉠ (2)㉡ (3)㉢ 05 (1) 회피 (2) 주관적 06 (1)㉠ (2)㉡ (3)㉢ 07 원만 08 능동, 피동 09 (1)㉠ (2)㉡ (3)㉢ (4)㉣ (5)㉤ (6)㉥ 10 (1) 내가 벌에게 쓰였다. (2) 내가 주호에게 밀렸다. (3) 음식이 (나에 의해) 만들어졌다. (4) 범인이 경찰에게 체포됐다. 11 (1)× (2)○ (3)○ 12 (1)× (2)× (3)○ (4)○ 13 인용 14 “, ”, 라고, 자신, 고 15 현장감, 요약 16 일부, 의도, 왜곡, 출처

대단원 종합 문제

p.097~099

01 (가)에서는 경청하고 공감하는 태도로 대화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대화 참여자 간에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다. (나)에서는 갈등을 악화시키는 표현을 사용하여 대화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갈등이 심화되어 대화 참여자 간의 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 02 ④ 03 ② 04 ② 05 ④ 06 ⑤ 07 ⑤ 08 ⑤ 09 ③ 10 자연스럽지 않은 피동 표현은 ‘담기어진’과 ‘믿겨지지’이다. ‘담기어진’과 ‘믿겨지지’는 모두 피동 표현을 만드는 두 가지 방법을 한 번에 써서 중복되는 경우인 이중 피동 표현이기 때문에 자연스럽지 않다. 11 ③

01 (가)에서는 각자의 생각과 감정을 경청하고 공감하는 태도가 드러난다. 이러한 대화 방법은 대화 참여자 사이에 신뢰를 형성하고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반면 (나)에서는 갈등을 악화시키는 표현이 사용되어 상대방의 감정을 자극하고 상황을 더 심각하게 만든다. 그 결과 대화 참여자 간의 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가)와 (나)의 대화 특징을 근거로 씀.	2점	4점
(가)와 (나)의 대화에 대화 참여자 간의 관계에 미친 영향을 씀.	2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02 (가)에서는 미나의 고민에 인우가 공감하며 미나의 입장에서 문제 상황을 바라보고 있다. 미나가 인우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판단을 유보하는 모습은 드러나지 않는다.

03 (나)와 <보기> 모두 갈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표현을 사용하여 갈등을 악화시키고 있다. <보기>에서는 갈등의 원인인 상대방의 상황과 입장에 대해 서로 전혀 모르고 있으나 (나)에서는 재혁이가 갈등의 원인이 된 동우의 상황을 알고는 있으나 이를 이해하지 않고 표현하면서 갈등이 악화되었다.

04 (가)는 미나가 인우의 고민을 들어 주며 대화를 나누는 상황으로 미나는 인우의 고민을 듣고 인우의 말을 재진술하여 공감을 표현하고 있을 뿐, 인우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판단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다.

05 (나)에서 재혁이와 동우는 이전의 대화 태도를 반성하고 다음 날 다시 대화를 나누며 갈등을 조정하고 있다. 이때 두 사람은 갈등을 회피하지 않고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을 바탕으로 진솔하고 구체적으로 자신의 감정과 요청 사항을 표현하여 갈등을 해결한다.

06 ㉠은 간접 인용 표현이 사용된 것으로 남학생이 다혜의 말을 부분적으로 인용하여 그 의도를 왜곡하고 있다. 이를 올바르게 수정한 내용은 다혜의 말을 일부만 인용하거나 왜곡하지 않고 나타낸 ㉤이다.

07 (가)~(마)는 모두 주어가 다른 대상에게 동작이나 행위를 당하는 표현인 피동 표현이 쓰였다.

08 (마)는 피동 표현을 사용하여 동작의 대상인 ‘청소년 성장 지원 사업’을 강조하려는 의도가 드러난다.

Clinic 오답 강의

- ① 동작이나 행위의 주체인 ‘환경 단체’를 감추어 대상인 ‘곰들’을 강조하는 효과가 있다.
- ② ‘접시를 깬’ 주체를 감추어 행위에 따른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
- ③ 판단의 주체를 감추어 보도 내용이 개인의 생각이 아닌 일반적인 의견이라는 느낌을 주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
- ④ 행위의 주체를 감추어 발화 상황에서 듣는 이의 부담을 덜어 주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

09 ①~⑤는 모두 능동 표현으로 나타낼 수 있음에도 ‘-되다’ 형태의 피동 표현으로 나타낸 예이다. ③ ‘인정받아 온’은 고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며 ‘~ 고전에 해당된다’를 ‘~ 고전에 해당한다’로 고쳐야 한다.

10 ‘담기어진’은 ‘담다’에 접미사 ‘-기-’와 ‘-어지다’가 붙은 이중 피동 표현이고, ‘믿겨지지’는 ‘믿다’에 접미사 ‘-기-’와 ‘-어지

다'가 붙은 이중 피동 표현으로 자연스럽지 않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자연스럽지 않은 피동 표현을 찾아 씀.	각 1점	4점
자연스럽지 않은 이유를 올바르게 설명함.	2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 11** 직접 인용 표현을 만들 때는 인용 부호(큰따옴표)와 인용 조사 '라고'를 사용한다.

창의·통합

p.101

1 ㉠ 2 ㉡

- 1** 경청하며 공감하는 태도로 대화하기 위해서는 온화하고 긍정적인 표정으로 친구가 부정적인 감정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고민의 중요함과 중요하지 않음, 가벼움과 무거움에 대한 판단은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으므로 지양해야 한다.
- 2** 제시된 상윤의 해결 방법을 바탕으로 재현의 고민이 무엇인지를 찾는 문제이다. 상윤이 일상의 소소한 기쁨을 찾는 해결 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재현의 고민은 현재 일상에서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03 나와 세상의 연결 고리

01 점검·조정하며 글 읽기

● 바로바로 개념 체크

p.104

1 ㉠ 2 ㉢ 3 ㉣ 4 ㉠ 능동적 ㉡ 이해

- 1** 입을 글은 목적, 수준, 흥미, 단어 난이도 등을 고려해 고르는 것이 적절하다. 문장이 길고 분량이 많은 점은 수준이나 흥미와 맞지 않으면 읽기에 오히려 방해가 되는 요소이므로 ㉡는 선정 기준으로 적절하지 않다.
- 2** 글을 읽기 전에는 읽기 목적, 수준, 관심사나 흥미 등을 고려해 입을 글을 선정한다.
- 3** 제목, 차례, 삽화를 훑어보며 내용을 예측하는 것은 읽기 전의 활동으로 적절하다.
- 4** 읽기 과정을 점검·조정하며 글을 읽으면 독서 상황에서 겪는 어려운 문제들을 능동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글을 집중해서 읽기 때문에 글의 내용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다.

● 소단원 체크

p.105~114

1 ㉠ 2 ㉣ 3 목적 4 ㉠ 5 ㉡ 6 ㉣ 7 수준 8 ㉣ 9 ㉢
 10 ㉠ 11 ㉠ 회귀 ㉡ 회소 12 ㉣ 13 질문 14 ㉡ 15 ㉠
 16 ㉡ 17 ㉠ 18 맥락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사회적 촉진 27 ㉣ 28 로버트 자이온츠 29 ㉠
 30 ㉢ 31 ㉠ 32 사회적 촉진 현상 33 ㉢ 34 ㉠ 35 ㉣ 36 ㉠
 37 ㉠

- 1** 연재는 요즘 친구들이 부쩍 경제에 관심이 많아진 것을 보고 자신도 경제에 관한 관심이 생겨 도서관에서 경제 관련 책들을 살펴보며 입을 글을 고르고 있다.
- 2** 연재는 《경제 상식 백과》가 어려운 단어가 많고 전문적인 내용을 다루어서 자신이 읽기에 너무 어렵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자신의 수준에 맞지 않아 입을 책으로 고르지 않은 것이다.
- 3** 연재는 책을 통해 경제의 역사보다는 실용적인 경제 상식이나 경제의 기본 개념을 알아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경제의 역사》는 연재의 읽기 목적에 맞지 않다.
- 4** 제시된 읽기 과정에서 연재가 책의 제목을 보고 재미를 느끼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 5** 연재는 책의 차례를 보고 여러 내용 중에서 콘서트 티켓에 관한 글에 흥미를 느끼고 있다. 따라서 연재가 책의 세부 내용을 알기 위해 살펴본 것은 책의 '차례'이다.

- 6 연재는 자신의 읽기 목적, 관심사, 흥미, 수준에 따라 읽을 글을 선정했을 뿐, 글을 선정할 때 글쓴이의 권위는 고려하지 않았다.
- 7 책에 사용된 단어, 책의 내용, 책의 분량이 자신에게 맞는지 살펴보는 것은, 읽을 글을 선정하는 기준 중에서 자신의 '수준'에 맞는지 살펴본 것이다.
- 8 이 글에서 전문가의 말을 인용한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 9 ㄱ과 ㄴ은 그 수량보다 가지고 싶어 하는 사람이 더 많은 재화이므로 '희소하다'고 할 수 있는 사례이다.

Clinic **오답 강의**

ㄷ. 제빵사가 꿈인 학생이 처음으로 만든 빵은 수량이 적기는 하지만, 많은 사람이 갖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희소한 것이 아니라 희귀한 것이다.

- 10 연재의 읽기 과정에는 제목으로 내용 예측하기, 사전과 배경 지식 활용하기, 어려운 부분은 앞부분을 다시 읽어 이해하기 등의 모습은 나타나지만, 예측이 틀렸음을 인식하거나 그에 따라 읽기 방법을 조정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 11 내가 손수 만든 인형의 수가 단순히 적은 경우에는 '희귀하다'고 할 수 있으며, 수요에 비해 그 수가 적은 경우에는 '희소하다'고 할 수 있다.
- 12 한정판 제품은 상품의 수량을 제한하여 출시하여 그 수량이 적는데, 그렇게 적게 만드는 이유는 희소성의 효과로 수량이 적은 상품을 빨리 구매하려는 심리를 이용하기 위해서이다.
- 13 연재는 많은 사람이 좋아하는 상품을 한정판으로 적게 만드는 까닭을 질문으로 만든 후, 희소성의 효과를 기대하고 일부러 적게 출시하는 것이라고 스스로 답하고 있다.
- 14 '희소하다'는 것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말은 '수요'이다.
- 15 이 글의 글쓴이는 마지막 문장에서 한정된 시간과 돈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지 생각하며 사는 것은 우리 모두의 과제라고 하였다. 이는 한정된 시간과 돈을 적절하고 의미 있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 것이다.
- 16 연재는 글을 읽기 전에 글의 제목을 보고 글의 소재와 내용을 예측하고 있다.
- 17 <보기>에서 연재는 자원의 '희소성'에 대한 배경지식을 활성화하며 읽음으로써, 글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 18 글의 내용이 잘 이해되지 않을 때에는 글의 맥락을 살피면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을 반복해서 읽으면 내용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 19 글을 읽는 중에 모르는 단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점검·조정하며 읽기 방법은 국어사전에서 해당 단어의 뜻을 찾는 것이다.

- 20 독서 기록장에 연재가 읽은 글의 제목은 나타나 있지만, 글의 제목을 보고 연재가 예측한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 21 연재는 글을 읽은 뒤 경제 개념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였다.
- 22 읽기 과정을 점검·조정하며 글을 읽으면 글을 집중해서 읽으며 내용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읽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능동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읽는 중에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때로는 다시 읽거나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하므로, 글을 빨리 읽거나 독서 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효과로 적절하지 않다.
- 23 이 글은 사람들이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면 집중이 잘되는 까닭을 사회적 촉진 현상의 개념을 바탕으로 설명한 글이다.
- 24 이 글은 사람들이 도서관이나 헬스장을 찾는 행동의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 25 글을 읽으며 '직감적', '작심삼일'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사전에서 찾아보았으므로, <보기>에 나타난 읽기 방법은 '단어 뜻 찾기'이다.
- 26 타인이 곁에 있으면 혼자 할 때보다 능률이 오르는 현상을 '사회적 촉진' 현상이라고 하며, 이러한 현상 때문에 사람들은 일부러 타인의 시선을 찾아 나선다고 하였다.
- 27 이 글은 1898년 노먼 트리플렛부터 1965년 로버트 자이온츠까지 사회적 촉진 이론의 변화 과정을 시간순으로 제시하고 있다.
- 28 로버트 자이온츠는 사회적 촉진 이론을 발전시켜 익숙한 과제를 할 때 타인이 곁에 있으면 적당히 긴장하여 더 잘하게 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 29 사회적 억제 현상은 능숙하지 않은 일을 할 때 타인의 존재가 능률을 떨어뜨리는 현상을 말한다. ㉠는 능숙하지 않은 발표라는 과제를 다른 사람들 앞에서 수행하면서 긴장하여 능률이 떨어진 경우이므로 사회적 억제 현상에 해당한다.
- 30 사회적 억제 현상이 일어나는 일상 속의 또 다른 사례를 찾아 보았다는 것은, 글을 읽고 난 후 더 알고 싶은 점을 떠올린 뒤 실제로 이를 탐색해 본 것이다.
- 31 이 글의 주제는 '사회적 촉진 현상과 사회적 억제 현상의 개념과 일상생활에서의 적용'이다.
- 32 타인의 존재가 긴장도를 높이는 원인이 되고, 이러한 긴장이 결국 잘하는 과제를 더 잘하게끔 하는 동력이 되는 것과 관련 있는 개념은 사회적 촉진 현상이다.
- 33 사회적 촉진 현상은 타인의 존재가 능률을 올리는 현상이고, 사회적 억제 현상은 타인의 존재가 능률을 떨어뜨리는 현상이다. 따라서 둘 다 타인의 존재가 개인의 능률에 영향을 끼치는 현상이다.

34 (사)에서 글쓴이는 '비교적 쉬운 취미 생활이나 큰 노력을 들일 필요가 없는 과제는 ~ 커피숍이나 도서관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라고 조언하고 있다. 이를 통해 쉬운 과제를 할 때는 타인이 있는 장소에서 즉, 타인과 함께 하는 것이 능률을 높이는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35 글에 활용된 자료 중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것이 있는지 확인하는 질문은 자신의 읽기 과정(내적 인지 활동)이 아니라 글의 신뢰성(외적 요건)을 점검하는 질문이다.

36 <보기>에서 '나'는 자신이 공부할 때 집중이 잘되었던 장소를 떠올리며 글의 내용을 이해했다. 따라서 자신의 경험을 활용했다고 할 수 있다.

37 제목을 보고 글의 내용을 예측하는 방법과 글과 관련된 질문을 만들고 답을 찾는 방법은 둘 다 글을 적극적으로 능동적인 태도로 읽는 방법이다.

학습 활동 엮기 p.106~114

학습활동 이해 1 상식, 흥미 2 소재, 능동

학습활동 적용 1 촉진 2 질문, 배경지식, 예측

핵심 포인트 p.105~112

01 관심, 개념	02 목적, 차례
03 재화	04 수요, 희소
05 욕망, 한정	06 타인

소단원 핵심 정리 p.115

개념, 희소성, 관심사, 답

학습 점검하기 1 ①○ ②○ ③× ④× 2 사전, 수준

소단원 종합 문제 p.116~117

01 ④ **02** <천 원으로 시작하는 10대들의 경제학>은 단어의 수준과 내용이 자신의 수준에 적당했기 때문이다. **03** ③ **04** ④ **05** ② **06** ④ **07** 수요와 공급에 따른 가격 형성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글을 이해했으므로, 이는 읽기 과정을 점검·조정하는 방법 중 '배경지식 활용'에 해당한다. **08** ④ **09** ③

01 책의 분량이 많을수록 읽기 목적에 적합한 것은 아니며, 책의 분량이 지나치게 많을 경우 읽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읽을 글을 선정할 때는 책의 분량이 자신의 읽기 상황에 적절한지 판단해야 한다.

02 연재는 <경제 상식 백과>는 어려운 단어가 많고 전문적인 내용을 다루어서 자신이 읽기에 너무 어렵지만, <천 원으로 시작하는 10대들의 경제학>은 단어의 수준이나 내용이 자신이

읽기에 적당해 보인다고 하였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조건>에 맞추어 연재가 책을 선택한 이유가 자신의 수준에 적절했기 때문임을 씀.	2점	2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03 (다)에서는 희소한 물건의 사례로 다이아몬드를, 희귀한 물건의 사례로 10년 동안 쓴 내 일기장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다)의 중심 내용은 '희소하다'와 '희귀하다'의 사례이다.

04 희소성이 있으려면 그 수량보다 가지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아야 한다. 인기 많은 연예인의 사인이 담긴 레코드판은 많은 사람들이 원하지만 그 수량은 한정되어 있는 것이므로 희소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05 콘서트 티켓이 비싼 까닭은 원하는 사람은 많은데 티켓의 수량이 적기 때문이다. 즉 콘서트 티켓이 희소해서 비싼 것이다.

06 (마)를 읽고 한정판을 판매한 회사의 매출이 얼마나 증가했는지 궁금함을 느낄 수 있으므로 이는 학생이 더 알고 싶은 내용에 해당된다.

Clinic 오답 강의

①, ②, ③, ⑤는 이미 글에 제시된 내용이다.

07 <보기>에서 글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은 사회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 즉 배경지식을 활용해 글을 읽었기 때문이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배경지식 활용하기' 방법임을 씀.	2점	3점
<조건>에 맞추어 씀.	1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08 로버트 자이온츠는 타인의 존재는 긴장도를 높여 익숙하거나 잘하는 과제를 더 잘하게끔 한다고 했다.

09 <보기>에서는 스스로 질문을 만들고 질문에 대한 답을 탐색하며 글을 읽었으므로 질문하고 답 찾기 방법을 활용하여 글을 이해한 것이다.

3단계로 끝내는 서술형 실전 문제 p.118~119

1 개념, 적용, 촉진, 억제 **2** ①은 모르는 단어의 뜻을 찾아보기 방법을 활용했고, ②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을 맥락을 살피며 다시 읽어 보기 방법을 활용했다. **3** ①에 들어갈 내용은 '사회적 촉진 현상 / 타인의 존재가 수행을 촉진하기'이다. 학생 1은 글을 읽기 전에 제목을 보고 내용을 예측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4** 사회적 억제 현상은 타인의 존재가 능률을 떨어뜨리는 현상을 말한다. 악기 연주가 서툰 학생이 친구들 앞에서 연주할 때 긴장하여 실수를 더 많이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 현상을 해결하는 방안으로는 혼자 충분히 연습해 실력을 쌓은 뒤, 사람들 앞에서 다시 연주해 보는 방법이 있다.

2 <보기>의 ①과 ②은 읽는 중에 읽기 과정을 점검·조정한 사례로 ①은 단어 뜻 찾기, ②은 맥락 살피며 다시 읽기 방법을 활용한 것이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모르는 단어의 뜻을 사전 등에서 찾아보는 방법을 씀.	2점	4점
이해되지 않는 내용을 앞뒤 문맥이나 맥락을 살피며 다시 읽으면서 이해하는 방법을 씀.	2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 3 ㉠에 들어갈 내용은 (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즉, 도서관에서 집중이 잘되는 이유는 다른 사람이 곁에 있어서 수행이 촉진되는 '사회적 촉진 현상' 때문이다. 또한 학생 1은 글을 읽기 전에 제목을 보고 내용을 예측했으므로, 읽기 전 점검·조정 방법 중 제목을 보고 내용 예측하기 방법을 사용했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에 들어갈 내용을 적절하게 씀.	1점	4점
'제목에 보고 내용 예측하기'라는 방법을 밝힘.	2점	
<조건>에 제시된 문장 형식을 지켜 씀.	1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 4 사회적 억제 현상은 능숙하지 않거나 복잡한 과제를 할 때 타인의 존재가 능률을 떨어뜨리는 현상을 말한다. 예를 들어, 익숙하지 않은 과제를 타인 앞에서 수행하다가 실수하는 경우가 이 현상에 해당한다. 이러한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마)의 내용처럼, 어렵거나 도전이 필요한 과제는 혼자서 충분히 연습하여 익숙해질 때까지 차분히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사회적 억제 현상'의 개념을 설명함.	2점	10점
개념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실생활 사례를 제시함.	4점	
글의 내용을 활용하여 해결 방안을 제시함.	4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서술형 문제 풀기 노하우

- 1 '사회적 억제 현상'의 개념 정리하기 ▶ 이 글에서 '사회적 억제 현상'의 개념을 확인하고 정리하기
- 2 구체적인 생활 사례 떠올리기 ▶ 타인의 존재 때문에 긴장하거나 실수하는 등, 실제 생활에서 사회적 억제 현상이 나타나는 상황을 사례로 들기
- 3 해결안 제시하기 ▶ 이 글에서 '사회적 억제 현상'을 일상생활에 적용 및 활용하는 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2의 사례에 대한 해결안을 쓰기

한 걸음 더

p.120

확인 문제 1 ④ 2 ⑤

- 1 민지는 글쓴이에게 관심이 있으며 책의 내용을 자신의 삶과 관련지을 수 있는 책을 골랐다. 따라서 민지가 자신이 읽을 책을 선정한 기준 두 가지는 '흥미'와 '삶과의 관련성'이다.
- 2 <보기>에서 '나'는 글쓴이가 미술 애호가의 입장에서 어려운 용어를 쓰지 않고 서술하여, 자신에게 맞는 책이기 때문에 선정했다고 했다. 즉 자신의 수준을 고려하여 책을 선정한 것이다.

어휘력 키우기

p.121

1 ① 선정 2 점검 3 조정 2 희소, 연장, 지향, 일체, 개시

확인 문제 1 (1) 조정 (2) 선정 (3) 점검 2 ③

- 2 '지향'의 뜻은 '어떤 목표로 뜻이 쏠리어 함함.'이고, '지양'의 뜻은 '더 높은 단계로 오르기 위하여 어떠한 것을 하지 아니함.'이므로 ③의 문맥에는 '지양'이 아닌 '지향'이 적절하다.

02 설명하는 글 쓰기

바로바로 개념 체크

p.122

1 ③ 2 인과 3 ① 4 ②

- 1 대상과 관련된 구체적인 예를 보여 주는 설명 방법은 예시이다.
- 2 민수가 열심히 공부한 것은 '원인'이고 중간고사에서 원하는 성적을 얻은 것은 '결과'이다. 이와 같이 원인과 결과를 중심으로 내용을 설명하는 방법은 '인과'이다.
- 3 <보기>에서 준영은 전동 키보드를 탈 때 유의할 점에 대해 글을 쓰기로 결심했는데, 이는 글의 주제를 정한 것이다. 따라서 <보기>는 설명하는 글 쓰기의 과정 중 '계획하기'에 해당한다.
- 4 설명하는 글을 쓸 때는 대상의 특성이 잘 드러나게 써야 하므로 글쓴이의 주관적 판단보다는 대상에 대한 객관적 설명 위주로 쓰는 것이 좋다.

소단원 체크

p.123~132

1 ① 분류와 구분 ② 분석 2 ① 3 ④ 4 정의, 예시 5 기준 6 ③ 7 ④ 8 ③ 결과 ④ 원인 9 ② 10 ④ 11 ④ 12 배경지식 13 ⑤ 14 ⑤ 15 ④ 16 설명 방법 17 ② 18 ① 19 ⑤ 20 ⑤ 21 ② 22 통일성 23 ③ 24 반대(상반) 25 ④ 26 ④ 27 ③ 28 ③ 29 예상 독자(친 친구들) 30 ④ 31 ⑤ 32 ① 33 ⑤ 34 ③ 35 ⑤ 36 인과

- 1 일정한 기준에 따라 묶거나 나누어 설명하는 방법은 '분류와 구분'이다. 그리고 대상을 그 구성 요소나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하는 방법은 '분석'이다.
- 2 전통문화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전통 문화라는 대상의 뜻을 밝혀 풀이하는 '정의'의 설명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 3 <보기>에서는 야구와 축구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으므로 '비교와 대조'의 설명 방법이 사용되었다.
- 4 '땃새란 ~ 하는 새'에는 정의, '참새, 까마귀, 꿩'에는 예시의 설명 방법이 사용되었다.
- 5 드럼과 장구를 타악기로, 첼로와 비올라를 현악기로 묶은 것은 악기를 '소리 내는 방법'이라는 '기준'에 따라 묶은 것이다.

- 6 <보기>는 곤충의 몸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분석'이 사용되었다.
- 7 둘 이상의 대상을 견주어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할 때 알맞은 설명 방법은 '비교와 대조'이다.
- 8 겨울에 눈이 오는 까닭을 설명한다고 할 때, 겨울에 눈이 오는 것은 '결과'이고, 눈이 오는 이유는 '원인'에 해당한다.
- 9 동빈이는 '내가 좋아하는 것 소개하기'라는 칠판의 글씨를 떠올리며 자신이 좋아하는 '라면'에 대한 글을 써 보려고 계획하고 있다.
- 10 동빈이는 라면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알기 쉽게 설명해야겠다고 글의 목적을 정했다.
- 11 글쓰기 계획 단계에서는 글의 주제와 목적을 정하고, 예상 독자를 분석한다.
- 12 <보기>에서 동빈이는 우리 반 친구들이 라면에 관해 이미 알고 있는 바를 떠올리고 있는데 이는 라면에 대한 예상 독자의 배경지식을 분석한 것이다.
- 13 자료 2에서는 수프를 처음부터 넣으면 끓는점이 높아져 면을 더 높은 온도에서 끓여 속까지 완전히 익힐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 14 자료 3은 라면의 영양 성분 비율이 이상적인 비율에 가깝다고 설명하므로 ⑤의 '이상적 비율과 일치하지 않음을 강조한다'는 자료 3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다.
- 15 비교와 대조는 두 대상을 견주어 공통점과 차이점을 드러내는 설명 방법이므로, 동빈이는 유탕면과 건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혀 두 면의 특성을 설명하고자 한 것이다.
- 16 동빈이는 자료 2를 인과의 방법으로, 자료 4를 구분, 비교와 대조의 방법으로 설명할 것을 생각하고 있는데, 이는 자료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설명 방법'을 고민한 것이다.
- 17 동빈이는 예상 독자를 고려하여 개요를 수정하고 있다. 하지만 작성한 개요에는 예상 독자의 특성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 18 자료 4는 유탕면과 건면을 비교한 자료로, 라면 면발의 특성을 설명할 때 활용할 수 있다. 라면의 정의는 동빈이가 사전을 통해 확인하고 추가하려는 내용이다.
- 19 동빈이는 라면의 일반적인 조리법을 먼저 언급하고 라면을 맛있게 끓이는 비법을 이어서 소개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고 생각하여 내용의 순서를 바꾸었다.
- 20 제품의 특성에 따라 분말수프 대신 액상 수프를 제공한다고 했을 뿐, 분말수프와의 비교를 통해 액상 수프의 장점을 강조하고 있지는 않다.
- 21 동빈이는 친구들에게 글에서 다룬 내용을 안내하는 문장을 추가해야겠다고 하였다. 즉 앞으로 전개될 내용을 미리 알려 주

기 위해 <보기>의 문장을 추가하려는 것이다.

- 22 문단의 통일성은 한 문단에서 다루는 화제가 하나여야 함을 뜻한다. 동빈이가 삭제하려는 국수 면발 관련 문장은 라면 면발의 특성을 설명하는 중심 내용과 관련이 없으므로, 문단의 통일성을 해치는 문장이라 할 수 있다.
- 23 동빈이는 초고에서 라면의 영양 성분을 구성하는 요소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나누어 설명하고 있으므로 분석의 설명 방법을 활용하였다.
- 24 라면이 균형 잡힌 식품이라는 내용과 라면이 나트륨 함량이 높다는 것은 서로 반대되는 내용이다. 따라서 <보기>의 빈칸에 들어갈 말은 반대(또는 상반)이다.
- 25 끝부분을 통해 우리나라 라면의 수출량이 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글에서 우리나라 라면의 수출 대상국은 언급되지 않았다.
- 26 동빈이는 문맥에 어울리지 않는 단어 '성향'을 문맥에 어울리는 단어 '취향'으로 바꾸고(ㄱ), 모호한 표현 '~ 있을 것 같습니다.'를 명확한 표현 '~ 있습니다.'로 바꿨다(ㄴ). 또한 독자가 이해하기 쉽게 글의 내용이 바뀌는 부분에서 문단을 나눴다(ㄷ). 동빈이가 초고를 고치는 과정에서 문단의 순서를 바꾸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 27 동빈이는 [A]에서 유탕면과 건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중심으로 설명하여 유탕면과 건면의 특징을 분명하고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28 '예시'는 대상과 관련된 구체적인 예를 들어 보여 주는 설명 방법으로, 예시를 사용하여 설명하면 추상적이거나 일반적인 내용을 구체적인 사례로 보여 줄 수 있어 독자가 내용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 29 동빈이는 친구들의 관심을 끌고 흥미를 유발할 수 있게 제목을 고쳐 썼으며, 친구들이 글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문단을 나누는 등 예상 독자(반 친구들)를 고려하여 글을 고쳐 썼다.
- 30 쓰기 과정의 점검·조정은 글쓰기의 모든 단계에서 할 수 있다.
- 31 작성된 초고를 점검하여 문제점을 개선하며 글을 다듬는 과정은 글쓰기 과정 중 '고쳐쓰기'에 해당한다.
- 32 온라인 게임의 양면성과 적절한 온라인 게임 이용의 중요성을 설명하려는 글이므로, 글의 종류는 감상문이 아니라 설명문이다.
- 33 (다)에는 게임 중독 문제가 늘고 있다는 내용만 제시되어 있을 뿐, 게임 중독의 구체적인 해결책은 제시되지 않았다.
- 34 두 번째 문단에 제시된 '온라인 게임'의 정의를 볼 때 온라인 게임은 인터넷을 통해 연결된 사람들끼리 즐길 수 있는 게임이다.

35 <보기>에서는 온라인 게임을 게임의 플레이 방식에 따른 기준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36 ㉠에서는 인과의 설명 방법을 사용하여 게임에 과도하게 몰두하면(원인) 학업을 소홀히 하거나 중독에 빠질 수 있다(결과)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학습 활동 **이해** **1** 결과 **3** 차이점, 예, 삭제 p.124~130

핵심 포인트 p.124~129

01 정의, 차이점, 부분	02 설명, 예상 독자
03 인과, 비교와 대조	04 개요
05 정의, 조직, 연결	

소단원 핵심 정리 p.133

정보, 수집, 개요, 관심

학습 점검하기 1 ① 점검 ② 특성 ③ 독자 2 기준, 구성 요소

소단원 종합 문제 p.134~135

01 ⑤ 02 ③ 03 ② 04 [자료 1]과 [자료 3]을 활용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보기>에서 동빈이가 예상 독자의 배경지식을 고려하여 라면 수프와 면발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기로 계획했기 때문이다. 05 ② 06 ⑤ 07 ③ 08 글의 종류가 설명문임을 고려할 때 ㉠의 '~ 있을 것 같습니다.'는 내용을 명확하게 전달하지 못하는 모호한 표현이다. 따라서 '그런데 제가 ~ 라면을 만들 수 있습니다.'로 고쳐야 한다.

01 (가)에서 동빈이는 예상 독자를 분석하였을 뿐, 예상 독자에게 글의 화제와 관련하여 설문 조사를 진행할 계획은 세우고 있지 않다.

02 [자료 2]에 따르면 물에 수프를 넣고 끓일 경우 끓는점이 섭씨 100도보다 더 높아진다.

03 [자료 2]는 라면 물을 끓일 때 수프를 처음부터 같이 넣으면, 물의 끓는점이 높아져 면을 더 높은 온도에서 끓일 수 있고 이로 인해 더 쫄깃한 맛을 즐길 수 있다고 하였다. 즉 원인에 따른 결과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인과'의 설명 방법이 적절하다.

04 [자료 1]은 라면 분말수프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며, [자료 3]은 라면 면발의 종류를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을 고려할 때 [자료 1]과 [자료 3]을 활용할 수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나)에서 활용할 자료를 두 가지 고르고, 선택한 두 자료에 담긴 정보를 바탕으로 자료를 고른 이유를 설명함.	2점	3점
동빈이가 독자의 배경지식을 고려했다는 점을 씀.	1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05 이 글은 라면의 정의, 라면 수프와 면발의 특성, 라면을 맛있게 끓이는 방법 등 라면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06 (다)에서는 라면을 맛있게 끓이는 법으로 수프를 먼저 물에 넣고 끓이다가 물이 끓을 때 면을 넣는 조리법을 언급하고, 그 속에 숨어 있는 과학적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Clinic **오답 강의**

② (나)는 유탕면과 건면은 생김새는 비슷하지만 유탕면은 지방이 많고 열량이 높은 반면, 건면은 상대적으로 지방이 적고 열량이 낮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유탕면과 건면을 비교·대조한 것이다.

07 이 글의 본래 제목에 비해 '입맛을 사로잡는 라면 맛의 비밀'이라는 제목은 글을 대하는 사람의 관심을 끌 만한 흥미로운 제목이다. 따라서 제목을 <보기>와 같이 바꾸는 것은 예상 독자의 관심과 흥미를 끌기 위해서이다.

08 이 글은 정보를 전달하는 글로 글의 종류는 설명문이다. 설명문은 읽는 이들이 어떠한 상황에 대해 이해할 수 있게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글이므로, 글의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하는데, ㉠에서는 '~ 있을 것 같습니다.'와 같은 모호한 표현이 사용되었다. 따라서 이를 명확한 표현으로 수정해야 한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글의 종류를 '설명문'으로 바르게 언급함.	1점	4점
㉠에서 모호한 표현을 지적하고, 설명문의 특성과 어울리지 않음을 씀.	2점	
고쳐 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함.	1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3단계로 끝내는 서술형 실전 문제 p.136~137

1 (가) - ㉠, (나) - ㉡, (다) - ㉢, (라) - ㉣, (마) - ㉤ 2 ㉠과 ㉡에 공통으로 사용된 설명 방법은 '분류와 구분'이다. 왜냐하면 ㉠은 라면 수프를 형태에 따라 둘로 구분하였으며, ㉡은 라면의 면발을 제조 방법에 따라 둘로 구분하였기 때문이다. 3 (나)를 두 문단으로 나눌 때 두 번째 문단의 첫 어절은 '수프만큼이나'이다. 문단을 나누는 이유는 하나의 문단 안에 '라면의 정의와 라면 수프의 특성'과 '라면 면발의 특성'이라는 서로 다른 두 가지 중심 내용이 함께 제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 문단이 하나의 중심 내용을 명확하게 다루도록 하기 위해 문단을 나눈다. 4 <보기>의 내용은 ○○○○면의 수출이 늘어 □□식품의 전체 매출이 크게 증가했다는 것인데, 이는 최근 우리나라 라면의 수출량이 늘고 있다는 내용과 관련이 있으므로, (마)에서 활용하기에 적절하다. (마)에서 <보기>의 자료를 '예시'의 방법으로 활용하면 수출량이 늘고 있는 우리나라 라면의 구체적인 예를 보여줄 수 있다.

2 ㉠과 ㉡에는 대상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묶거나 나누어 설명하는 분류와 구분의 설명 방식이 공통으로 사용되었다. ㉠은 라면 수프를 '형태'라는 기준에 따라 '분말수프'와 '액상 수프'로 나누었고, ㉡은 라면 면발을 '제조 방법'이라는 기준에 따라 '유탕면'과 '건면'으로 나누어 설명했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과 ㉡에 사용된 설명 방법을 정확하게 제시함.	1점	5점
<조건>에 맞게 ㉠과 ㉡을 나누어 각각 이유를 구분하여 서술함.	각 2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3 하나의 문단에는 하나의 중심 내용만을 담는 것이 일반적인 문단 구성의 원칙이다. (나)에서는 '라면의 정의와 라면 수프의 특성'을 설명한 뒤, '수프만큼이나 중요한 라면의 면발은 ~'이 제시되며 '라면 면발의 특성'이라는 새로운 내용이 시작된다. 따라서 문단별 중심 내용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내용이 제시되는 '수프만큼이나'에서 문단을 나누는 것이 적절하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두 번째 문단의 첫 어절을 '수프만큼이나'로 밝혀 서술함.	1점	5점
<조건 2>에 맞게 (나)의 중심 내용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서술함.	2점	
(나)를 두 문단으로 나누어야 하는 이유를 문단 구성 원리에 근거하여 적절하게 서술함.	2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4 <보기>는 ○○○○면의 세계적 인기로 □□식품의 매출과 수출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는 내용이다. 이는 (마)의 '최근 우리나라 라면의 수출량이 늘고 있다'는 내용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따라서 (마)에서 <보기>의 라면 이름과 수치(매출액, 수출 비중) 등을 예시로 활용하여 수출량이 늘고 있는 우리나라 라면의 구체적인 예를 보여 줄 수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보기>의 내용과 관련지어 활용 위치를 밝히고 그 이유를 설명함.	5점	10점
<보기>를 활용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설명 방법을 제시함.	2점	
설명 방법과 관련하여 자료를 활용할 때 얻을 수 있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서술함.	3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서술형 문제 풀기 노하우

- ① <보기>의 내용 파악하기 ▶ <보기>의 중심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기
- ② <보기>를 활용할 위치 판단하기 ▶ <보기>의 내용이 가장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문단을 찾고, 그 문단의 내용과 <보기>의 내용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밝히기
- ③ 설명 방법과 효과 제시하기 ▶ 지금까지 배운 설명 방법을 떠올리며 <보기>를 이 글에 활용할 때 적용할 설명 방법과 그 효과를 정리하기

한 걸음 더 p.138

확인 문제 1 ② 2 ①

1 ㉠은 우리 반 학생들이 즐기는 스포츠의 예를 들고 있으므로 '예시'의 설명 방법, ㉡은 우리 반 학생들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나누고 있으므로 '분류와 구분'의 설명 방법을 사용한 것이다.

2 <보기>의 문장은 '여학생, 남학생, 담임 선생님'으로 우리 반의 구성원을 나누어 설명하고 있으므로 '분석'의 설명 방법이 사용되었다.

어휘력 키우기 p.139

1 (1) ㉠ (2) ㉡ (3) ㉢ 2 3번
 확인 문제 1 (1) 전략 (2) 설명 (3) 활용 2 ④

2 싱거운 음식에 소금을 뿌렸으니 짠맛이 강해졌을 것이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말은 '입맛 당기게 약간 짠 듯해지다.'를 뜻하는 '간간해지다'가 적절하다.

대단원 마무리 체크 p.140~141

- 01 관심사 02 목적 03 수준 04 해결, 이해 05 (1) ㉠ (2) ㉢ (3) ㉡ 06 희소하다, 희귀하다 07 희귀 08 희소 09 소재, 설명 10 (1) × (2) ㉢ ㉠ (4) ㉡ 11 촉진, 억제 12 타인(다른 사람), 혼자 13 (1) ㉠ (2) ㉢ (3) ㉡ 14 (1) ㉢ (2) ㉡ (3) ㉠ (4) ㉡ 15 (1) 정의 (2) 예시 (3) 분류와 구분 (4) 비교와 대조 (5) 인과 (6) 분석 16 (1) ㉠ (2) ㉢ × 17 모든 18 특성 19 예상 독자 20 (1) 정보 (2) 독자 (3) 관심 21 (1) ㉡ (2) ㉠ 22 (1) ㉠ (2) ㉢ ×

대단원 종합 문제 p.142~145

- 01 ③ 02 ③ 03 ⑤ 04 ⑤ 05 ④ 06 ① 07 ③ 08 ③ 09 공통점: 타인의 존재가 능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 차이점: '사회적 촉진 현상'은 타인의 존재가 능률을 올리지만, '사회적 억제 현상'은 타인의 존재가 능률을 떨어뜨린다. 10 ③ 11 ① 12 '분류와 구분(구분)'과 '비교와 대조'를 활용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라면의 면발을 제조 방법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유탕면과 건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다. 13 ④ 14 ⑤ 15 ③ 16 ㉠이 문단의 중심 내용과 관계없는 문장이기 때문으로, ㉠을 삭제하면 문단의 핵심 내용이 명확해지고 문단의 통일성을 높일 수 있다. 17 ④ 18 ⑤

01 만화에서 학생은 글을 읽다가 모르는 단어를 발견한 후 사전을 통해 단어의 뜻을 찾아보고 있다. 이는 '읽기 과정을 점검·조정하며 읽기'에 해당한다.

02 학생은 《천 원으로 시작하는 10대들의 경제학》의 차례를 훑어보며 실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경제 상식을 다루었다는 점을 확인하고, <콘서트 티켓이 비싼 까닭>이라는 글의 제목을 보면서 글의 소재와 내용을 예측하고 있다.

03 <보기>의 친구는 자신에게 적합한 책을 골라서 읽어 보려고 한다. 이럴 때에는 읽기 목적, 수준, 관심사나 흥미 등을 기준으로 읽을 책을 선정한다. 다른 사람이 많이 읽는 책이라 하더라도 실제 읽는 이의 상황(목적, 수준, 관심사나 흥미)에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⑤는 조언으로 적절하지 않다.

- 04 사람들이 정화된 물을 사 먹는 이유는 깨끗한 물에 대한 수요가 많아졌는데 그에 비해 환경 오염으로 물이 오염되어 깨끗한 물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 05 (가)에서 물건의 가격은 그 물건이 얼마나 희소한지 알려 주는 지표라고 하였다. 콘서트 티켓이 비싼 까닭은 티켓이 희소하기 때문이라고 하였으므로 가격이 0원이라는 것은 희소하지 않다는 뜻이다.
- 06 이 글은 구체적인 예를 통해 사회적 촉진 현상과 사회적 억제 현상에 대한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 07 <보기>에서 민지는 타인의 존재가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배경지식을 활용하여 글을 쉽게 이해하였다.
- 08 로버트 자이온츠는 익숙한 과제를 할 때 타인이 곁에 있으면 적당히 긴장하므로 더 잘하게 된다고 했다. 따라서 달리기를 잘하는 A는 B와 함께 훈련하면 더 잘하게 될 것이다.
- 09 '사회적 촉진 현상'은 타인의 존재가 능률을 올리는 현상이고, '사회적 억제 현상'은 타인의 존재가 능률을 떨어뜨리는 현상이다. 따라서 둘의 공통점은 타인의 존재가 능률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고, 차이점은 전자는 타인의 존재가 능률을 올리고 후자는 떨어뜨린다는 것이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사회적 촉진 현상'과 '사회적 억제 현상'의 공통점을 씀.	2점	4점
'사회적 촉진 현상'과 '사회적 억제 현상'의 차이점을 씀.	2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 10 주장과 근거는 주장하는 글에 제시되는 내용이므로, 설명하는 글의 쓰기 과정을 점검·조정할 때의 평가 기준과는 거리가 멀다.
- 11 예상 독자인 반 친구들의 관심을 고려하는 모습은 나타나고 있지만, 성별을 고려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 12 라면의 면발을 제조 방법에 따라 유당면과 건면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으므로 '분류와 구분(구분)'의 설명 방법을 활용할 수 있으며, 유당면과 건면의 공통점과 차이점도 설명할 수 있으므로 '비교와 대조'의 설명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활용할 수 있는 설명 방법 두 가지를 제시함.	각 1점	4점
설명 방법을 활용할 수 있는 이유를 각각 서술함.	각 1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 13 '중간' 부분에서는 라면의 특성, 라면을 맛있게 먹는 방법, 라면을 건강하게 먹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을 뿐, 라면의 장점과 단점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 14 '중간 1'에서 라면의 정의를 추가하는 것은 라면의 개념을 독자에게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이고, '중간 2'에서 일반적인 조리법을 먼저 제시하고 라면을 맛있게 끓이는 비법을 나중에 제시하는 것과 같이 세부 내용의 순서를 바꾸는 것은 글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 15 (라)에서는 라면의 세계적 위상을 강조하고 있을 뿐, 비교와 대조를 통해 라면의 위상을 나라별로 보여 주고 있지는 않다.
- 16 ㉠이 포함된 문단의 중심 내용은 라면 면발의 특성이다. 그런데 ㉠은 라면 면발과 국수 면발을 대조하여 국수 면발의 특성을 설명하고 있어 문단의 중심 내용과 관련성이 떨어진다. 이에 ㉠을 삭제하면 글의 핵심 내용이 명확해지고 문단의 통일성을 높일 수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을 삭제한 이유를 알맞게 씀.	2점	4점
㉠을 삭제하여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적절하게 씀.	2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 17 (나)에서 수프가 섞인 물은 맹물보다 끓는점이 높기 때문에 더 높은 온도에서 면발을 익힐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라면을 맛있게 끓이는 방법에 숨어 있는 과학적인 원리는 물에 다른 물질이 녹아 있으면 끓는점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 18 <보기>는 나트륨 배출을 돕는 식품의 구체적 예를 제시하여 나트륨 배출을 돕는 식품에 대한 정보를 독자에게 상세히 알려 주고 있다.

창의·통합

1 ④ 2 ③

- 1 반 친구들과 함께 읽을 책을 정할 때에는 어렵더라도 친구들과 과의 협의를 통해 정해야 한다. 그래야 모든 친구들이 함께 책을 읽을 수 있다.
- 2 책을 읽을 때에는 무조건 많은 분량을 읽을 것이 아니라 자신의 독서 상황에 따라 적절히 읽을 분량을 조절하며 읽는 것이 좋다.

04 표현의 빛깔

01 개성적인 발상과 표현

● 바로바로 개념 체크 p.150

1 반어 2 ②, ③ 3 역설 4 ②

- 1 반어는 전하고자 하는 의도를 실제와 반대되는 말로 나타내는 표현 방법이다.
- 2 겉보기에 모순되는 진술 속에 삶의 진실을 담고 있는 표현 방법을 '역설'이라고 한다.
- 3 '슬픔'이 '찬란'하다고 하는 것은 모순되어 보이지만 이를 통해 모란이 지는 슬픔을 알면서도 모란이 피는 기쁨(찬란함)이 있기에 모란에 대한 기다림을 버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역설적으로 표현하였다.
- 4 풍자는 대상을 비꼬거나 과장하거나 우스꽝스럽게 드러내어 비판하는 표현 방법으로, 대상에 대해 부정적, 비판적 태도를 취한다.

● 소단원 체크 p.151

1 ② 2 ⑤ 3 ① 4 반어

- 1 화자는 입과 헤어진 상황에서 떠난 입을 잊을 수 없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 2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을 다른 대상에 빗대어 표현하는 것은 비유이다. 이 시에 비유적 표현은 나타나지 않는다.
- 3 화자는 이별한 '당신'을 잊지 못하고 그리워하고 있다.
- 4 화자는 실제 속마음과 반대되는 말로 표현하여 자신의 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전하고자 하는 의도를 반대되는 말로 표현하는 것을 반어라고 한다.

소단원 핵심 정리 p.152

가정, 당신, 잊었노라, 리듬감

학습 활동 예보기 p.153~154

학습활동 이해 1 이별, 당신 2 반어, 강조

● 학습활동 응용 문제 p.153~154

1 ④ 2 ⑤ 3 ④ 4 사랑하는 사람을 잊을 수 없다. /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한다. 5 ③ 6 ⑤ 7 ⑤ 8 ④

- 1 '오늘도 어제도 아니 잊고'라는 구절을 통해 화자는 '당신'과 이별한 뒤에도 '당신'을 잊지 못하고 계속 그리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 이 시에서 '당신'은 화자와 이별한 임으로 화자가 그리워하며 먼 훗날에도 잊을 수 없는 존재이다.
- 3 '먼 훗날 그때에 '잊었노라'는 먼 훗날에도 화자가 입을 잊을 수 없음을 강조하는 반어 표현이다.
- 4 화자는 입을 다시 만날 상황을 가정하며 그때에 '잊었노라'라고 말하겠다고 속마음을 반대로 표현함으로써, 입을 결코 잊을 수 없다는 속마음을 강조한다.
- 5 '잊었노라'는 반어 표현으로, 화자가 '당신'을 잊을 수 없음을 강조한다.
- 6 이 시의 화자는 먼 훗날에도 '당신'을 잊을 수 없다는 것을 반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7 반어는 표현할 내용을 실제 의미와 반대로 표현하는 방법으로, 화자의 의도나 태도를 강조하는 효과를 줄 수 있다.
- 8 '행운이 따르는 날'은 실제로는 불운이 계속된 하루를 반대되게 표현한 것으로 불운함을 더 강하게 부각할 수 있는 반어 표현이다.

● 소단원 체크 p.155

1 ① 2 ⑤ 3 ④ 4 꿈

- 1 '혹'과 '꿈'은 '낙타'와 '나'가 어려움이나 시련을 맞닥뜨렸을 때, 이를 이겨 내도록 하는 힘이다.
- 2 4연에는 역설 표현이 쓰였다. 겉보기에는 모순되는 표현이나 그 이면에 꿈을 가지고 나아가는 삶의 자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3 화자는 역설 표현을 통해 꿈을 갖고 끊임없이 나아가는 삶의 자세를 강조하고 있다.
- 4 2연의 '혹'과 5연의 '꿈'은 주체인 '낙타'와 '나'가 시련을 견뎌 내고 나아가게 하는 힘이다.

소단원 핵심 정리 p.156

병렬적, 꿈, 모순

학습 활동 예보기 p.157~158

학습활동 이해 1 먼 길 2 혼자, 진리

1 ⑤ 2 ④ 3 ③ 4 ㉠ 5 ③ 6 ⑤ 7 ① 8 ⑤

- 1 4~6연에서 ‘떨었다’는 거리감으로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을 뿐, 구체적인 수치로 어려움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 2 화자는 ‘혼자 가지만 / 혼자 가는 게 아니다’라는 역설 표현을 통해 마음속에 지닌 꿈이 시련을 극복하게 하는 힘이 됨을 말하며, 꿈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삶의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 3 모순된 표현 안에 담긴 뜻을 깊이 생각하게 하여 삶의 진리를 인상적으로 전달하는 표현법은 역설이다.
- 4 ‘혹’이 낙타가 혼자 가는 길을 견디게 해 주듯, ‘꿈’은 ‘나’가 혼자서도 계속 나아가게 해 주는 요소이므로, ‘꿈’은 ‘혹’과 의미가 유사한 시어이다.
- 5 <보기>는 역설 표현에 대한 설명이다. ③은 역설 표현이 쓰인 시구로 모순된 표현을 통해 꿈을 갖고 나아가는 삶의 자세를 강조하고 있다.
- 6 이 시에서는 ‘혼자 가지만 / 혼자 가는 게 아니다’라는 모순된 표현을 사용하여, 꿈을 가지고 끊임없이 나아가는 삶의 자세를 인상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7 ‘비우는 것’과 ‘채우는 것’이 의미상 대비되어 표현에 모순이 있으나,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면 마음이 풍족해진다는 삶의 진리를 전달하고 있다.
- 8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는 죽는 한이 있어도 이별의 상황에서 눈물을 보이지 않겠다는 말이지만 실제로는 임이 떠날 때 매우 슬퍼할 것이라는 속마음을 반대로 표현한 것이므로 반어 표현이 쓰인 시구이다.

1 ⑤ 2 ② 3 ① 감사 ④ 아내 4 ⑤ 5 ④ 6 부자 7 ① 8 ②
9 ① 10 ① 11 ② 12 ⑤ 13 ② 14 ② 15 ② 16 ④
17 ④ 18 도둑놈 19 ①

- 1 양반은 집이 가난하여 관청에서 곡식을 빌려다가 먹었는데, 천 섬이나 되는 환곡을 갚을 능력이 없어 울기만 할 뿐 군수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
- 2 (가)에서 아내는 “당신은 평생 ~ 그놈의 양반!”이라고 말하며 양반의 무능함을 비판하고 있다.
- 3 (가)에서는 양반이 빚을 갚지 못한 상황을 중심으로 두 가지 갈등이 드러난다. 감사는 양반을 잡아 가두려 하고, 아내는 무능하게 밤낮으로 울기만 하는 양반을 나무라며 각각 갈등이 발생한다.

- 4 (나)에서 부자는 양반은 가난하더라도 귀한 대접을 받지만 자신은 잘살아도 늘 천한 대우를 받는 등 무시당하고 수모를 겪으며 살아온 것을 한탄하고 있다.
- 5 신분 제도가 존재했지만 돈으로 신분을 사고파는 것이 가능한 시대였으므로 신분제가 동요되던 사회상을 보여 준다.
- 6 부자는 돈으로 양반 신분을 사려는 인물로, 조선 후기의 신흥 부유층을 대변하는 인물이다.
- 7 (다)에서 양반은 평민의 옷차림을 하고 길에 엎드려 자신을 ‘소인’이라 칭하면서 군수에게 자신을 낮추고 있다.
- 8 양반은 빚을 갚기 위해 부자에게 신분을 판 후 평민 복장으로 군수 앞에서 자신을 낮췄다.
- 9 부자와 양반이 신분 매매를 통해 신분이 바뀌었으므로, 신분 에 따라 자리를 배치한 것이다.
- 10 군수는 양반과 부자가 신분을 매매했다는 사실을 듣고 증거를 작성하자고 제안한 것이지 부자에게 양반의 신분을 살 것을 제안하지는 않았다.
- 11 군수는 양반을 사고팔면서 증거를 작성하지 않았으니 소송의 꼬투리가 될 수 있다며, 증거를 작성하여 양반을 사고판 일을 모두에게 알릴 것을 제안하고 있다.
- 12 ‘손에 돈을 쥐지 말고, 쌀값을 묻지 말고’라는 내용에서 돈과 관련된 일을 천하게 여기는 양반들의 모습이 드러난다.
- 13 첫 번째 증서에서는 양반으로서 지켜야 할 덕목과 행실을 나열하여 체면을 지나치게 중시하고 허례허식에 얽매어 있는 양반의 모습을 비판한다.
- 14 죄수와 별감이 증인으로서 서명함으로써 증서가 믿을 만한 서류임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다.
- 15 첫 번째 매매 증서에 쓰인 내용이 자신에게 이득이 될 것은 없고, 허례허식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다.
- 16 두 번째 매매 증서에서는 부당한 특권을 남용하고 횡포를 부리는 양반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
- 17 양반은 과거 시험에 합격했음을 증명하는 홍패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있는 것이지 홍패를 숨겨야 막대한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18 두 번째 증서의 내용을 들은 부자는 양반 신분의 권리를 남용하여 횡포를 일삼는 양반의 모습에 “나를 도둑놈으로 만들 작정입니까?”라고 하며 양반이 되기를 포기한다. 이는 ‘도둑놈’과 다를 바 없는 당시 양반들의 모습을 비판하고자 하는 작가의 의도가 드러나는 부분이다.
- 19 이 글은 양반 계층의 허례허식과 부패한 모습을 풍자하고는 있지만 신분 제도 폐지를 주장하는 내용은 드러나지 않는다.

- 01 무능, 환곡 02 경제력
- 04 신분 매매 05 허례허식
- 06 특권 07 간접적

교과서 날개 문제

1 천한 대접을 받는 것이 싫었기 때문에 양반의 환곡을 갚아 주는 대신 양반 신분을 사기로 했기 때문이다. 2 양반과 부자의 신분이 바뀌어 부자의 신분이 더 높아졌기 때문이다. 3 자신의 기대와 다르게 양반으로서 얻는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소단원 핵심 정리

실학사상, 환곡, 허례허식, 비생산성, 풍자

학습 점검하기 1 ① ○ ② × ③ × ④ ○ 2 역설

학습 활동 엮보기

학습 활동 188 1 증서 2 체면, 풍자, 조롱, 웃음

학습활동 응용 문제

- 1 ④ 2 ① 3 ① 4 ② 5 ④ 6 ⑤ 7 ⑤ 8 ④ 9 ④
- 10 다섯이지만 하나

- 1 부자는 양반의 환곡을 대신 갚아 양반 신분을 사려고 했으나, 양반의 실상을 알고 양반이 되기를 포기했다.
- 2 감사가 양반을 잡아 가두라고 명했으나, 군수는 양반의 사정을 딱하게 여겨 가두지는 못했다.
- 3 양반 매매 증서는 양반의 부정적인 모습을 비판하고자 제시된 것이므로, 학문에 정진하는 모습은 비판하고자 하는 모습으로 적절하지 않다.
- 4 양반의 아내는 양반이 환곡을 갚는 데 전혀 도움이 안 된다며 양반의 무능력함과 비생산성을 비판하고 있다.
- 5 이 글에 사용된 주된 표현 방법은 풍자이다. 풍자는 대상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를 바탕으로 대상의 부정적인 면을 우스꽝스럽게 그려 내어 웃음을 유발한다.
- 6 풍자는 대상을 우스꽝스럽게 표현하고 조롱하여 비판하는 방법으로 대상에 대한 연민의 태도를 부각하지 않는다.
- 7 기사문에서는 매일 10억 끼 분량의 음식물이 버려진다는 유엔 환경 계획[UNEP]의 말을 전하며, 음식물 쓰레기가 증가하는 문제를 비판하고 있다.

- 8 풍자를 활용하여 대상이나 상황을 비판할 때에는 대상이나 상황을 왜곡하거나 과장되게 표현하여 대상을 간접적으로 비판한다.
- 9 이 시는 공부 비법을 소개하는 듯하지만 실제로는 공부를 미루고 딴짓하며 자기합리화하는 학생의 모습을 비틀어 표현하여 풍자하고 있다.
- 10 ‘다섯이지만 하나’는 논리적으로 모순되어 보이지만 협력과 단합을 통해 다섯 명이 하나처럼 움직인다는 의미를 드러낸 역설 표현이다.

소단원 종합 문제

01 ③ 02 ④ 03 ④ 04 ⑤ 05 ㉠과 같이 전하고자 하는 의도와 반대되는 말로 표현하는 반어를 사용하여 표현하면 ‘당신’을 그리워하는 화자의 정서를 인상 깊게 표현하여 주제를 강조할 수 있다. 06 ⑤ 07 ③ 08 ④ 09 ③ 10 화자에게는 ‘꿈’이 있기 때문에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 것이다. 11 ② 12 ⑤ 13 ⑤ 14 (나)에서 양반이 “환곡을 갚느라고 이미 양반을 팔았으니”라고 한 말과 (다)에서 군수가 “양반을 사고판 일”이라고 말하는 부분에서 당시 신분을 사고파는 일이 공공연히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15 ⑤ 16 ① 17 ② 18 ⑤ 19 증서에는 양반이 이웃의 소나 일꾼을 강제로 끌어다 써도 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부자는 양반의 이런 모습이 정당하지 않고 도둑과 같은 행동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과 같이 말한 것으로 여기에는 양반을 바라보는 작가의 비판적 시각이 반영되어 있다.

- 01 ‘당신이 ~면 / ~ 잊었노라’라는 시구를 반복하고 변주하여 ‘당신’에 대한 화자의 그리움을 강조하고 있다.
- 02 화자는 ‘먼 훗날’에도 ‘당신’을 놓지 못한 채, 잊을 수 없음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는 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 03 이 시에서는 ‘잊었노라’라는 단어를 반복하고 있으며, ‘~면 / ~ 잊었노라’와 같은 비슷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 04 ㉠은 입을 잊지 못한 화자가 속마음과 반대로 ‘잊었노라’라고 말하고 있는 반어 표현이다. ⑤ 또한 ‘그대’를 사랑하는 깊은 감정을 ‘사소한 일’이라고 표현하는 반어 표현을 사용하였다.

Clinic 오답 강의

①~④에는 역설 표현이 쓰였다.

- 05 ㉠에는 ‘당신’을 결코 잊을 수 없는 화자의 마음을 ‘잊었노라’라고 표현하는 반어가 사용되었다. 이를 통해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인상 깊게 전달할 수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에 사용된 표현 방법이 반어임을 밝히고, 그 개념을 씀.	2점	4점
반어를 사용한 효과를 적절히 씀.	2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06 이 시에서 화자는 낙타의 모습을 먼저 제시한 후, '나도 혼자 가지만 / 혼자 가는 게 아니다'라고 자신의 처지를 병렬적으로 제시하여 꿈을 지니고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부각하고 있다.

07 '가고 있다'로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으므로 명사로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08 이 시에서 낙타는 혹을 입고 혼자 길을 가는 존재로, 어려움을 견디며 나아가는 의지적인 존재로 표현된다. 또한 '혹'이라는 외양적 특징이 시적 발상의 출발점이 되고, 화자 역시 '나도 혼자 가지만'이라고 말하며 낙타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밝힌다. 하지만 낙타를 통해 과거를 회상하고 있지는 않다.

09 ㉠은 의미상 서로 어울리지 않는 모순된 표현이나 그 안에 삶의 진리를 담아낸 역설 표현이다.

10 ㉡에서 화자는 혼자 걷고 있지만 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멈추지 않고 나아갈 수 있음을 역설로 표현하고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씀.	2점	3점
<조건>에 맞추어 씀.	1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11 양반이 신분을 판 뒤, 병거지에 잠방이를 입고 길에 엎드려 자신을 낮추는 것으로 보아 계층에 따라 입는 옷과 행동이 달랐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2 양반은 신분에 대한 편견이 없어서가 아니라 빛을 갚을 능력이 없어 자신의 양반 신분을 부자에게 팔았기 때문에 평민의 복식과 언어, 행동 양식을 따른 것이다.

13 부인은 양반 신분이 환곡을 갚는 데에는 도움이 안 된다며 양반의 무능함과 비생산성을 비판하고 있다. 양반이 한 푼어치도 안 된다고 말하는 모습에서 부인이 현실적인 생활 능력을 중시하는 인물임을 알 수 있다.

14 양반과 군수의 말에서 신분을 돈을 주고 사고파는 일이 가능했던 당시 사회상이 드러나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신분을 사고파는 일이 가능했던 사회상을 씀.	2점	4점
(나)의 양반의 말과 (다)의 군수의 말에서 근거를 찾아 씀.	2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15 ㉠에서 양반은 병거지, 잠방이 차림으로 길바닥에 엎드려 '소인, 소인'을 연발하고 군수의 눈도 못 마주친다. 작가는 이와 같이 과장되고 우스운 모습으로 체면과 품위를 잃은 양반을 보여 주어 양반답지 못한 모습을 풍자하고 있다.

16 (가)~(다)에서는 군수가 작성한 증서와 그에 대한 부자의 반응을 통해 양반이라는 신분의 허황된 실상이 드러난다. 작가는 양반을 우스꽝스럽게 묘사하여 양반 신분의 실체를 드러내고, 그 폐단을 강조하며 비판하는 풍자 효과를 거두고 있다.

17 (다)에서는 백성에게 횡포를 부리는 양반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

18 허례허식에 얽매어 있는 양반의 모습이 나열되어 있는 신분 매매 증서의 내용을 들은 부자는 자신에게 이익이 되도록 문서를 고쳐 달라고 요구했다.

19 군수가 새로 작성한 증서에는 양반이 기생과 어울리거나 종과 이웃을 마음대로 부리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는 양반의 특권과 횡포를 드러내는 장면으로, 부자는 이런 생활을 따른다면 양반이 아니라 도둑처럼 행동하는 꼴이 된다고 여겼다. 결국 "나를 도둑놈으로 만들 작정입니까?"라는 부자의 말은 양반의 허위와 폐단을 풍자적으로 비판하는 작가의 시선을 드러낸 것이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다)의 매매 증서에 담긴 양반의 모습을 한 가지 이상 씀.	2점	5점
㉠과 같이 말한 이유를 작가의 시선과 관련지어 씀.	3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3단계로 끝내는 서술형 실전 문제 p.172~173

1 ㉠ 반대 ㉡ 반어 ㉢ 모순 ㉣ 진리 ㉤ 역설 2 '잇었노라'에는 '당신'을 잊지 못하는 그리움을 전하고자 한 화자의 의도가 담겨 있다. 3 1연과 4연을 통해 꿈을 가지고 끊임없이 나아가는 삶의 자세를 강조하고 있다. 4 반어 표현을 사용한 예: 햇살이 참 다정하네, / 살을 태우고 숨을 막히게 하다니. / 비가 참 고맙네, / 한꺼번에 쏟아져 모두 쏟아 가 주다니. / 이렇게나 자연이 친절해서 / 살기 더 힘들어졌네. 역설 표현을 사용한 예: 빙하가 녹아 바다가 불어날수록 / 목마른 땅은 더 깊이 갈라진다. / 끝없이 내리는 비가 / 갈증을 적시지 못하고 홍수가 된다. / 죽음을 물고 오는 더위 속에서 / 나는 더 절실히 살아 있음을 느낀다.

2 화자는 '당신'과 이별하였으나, '당신'을 잊지 못하고 그리워하고 있다. 이러한 마음을 '잇었노라'라는 반대되는 말로 표현하여 화자의 심정을 부각하고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한 단어로 된 시어를 찾아 씀.	2점	5점
시어에 담긴 화자의 의도를 씀.	2점	
<조건>에 맞추어 씀.	1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3 이 시는 1연과 4연의 혼자 가고 있지만 혼자 가는 것이 아니고 한 모순된 표현을 통해 마음속에 지닌 꿈이 시련과 어려움을 이겨 내는 힘이 되어 계속 나아갈 수 있게 한다는 삶의 진리를 전달한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두 연을 찾아 씀.	2점	5점
시구의 의미를 알맞게 씀.	3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4 반어 표현을 사용한 시에서 '햇살이 참 다정하네', '비가 참 고맙네'는 뜨거운 태양과 쏟아지는 비에 따른 재난적 상황에 대한 감상을 반대로 말한 것으로 반어 표현을 사용하여 기후 변화의 심각성을 전달하고 있다.

역설 표현을 사용한 시에서는 빙하가 녹아 바다는 넘치는데 땅은 여전히 목마르고, 비가 끝없이 내리는데도 갈증을 해소하지 못하며, 죽음이 다가올수록 삶이 더 선명해지는 모순이 드러난다. 이를 통해 기후 위기와 고통 속에서도 오히려 삶의 소중함과 살아가려는 의지가 더욱 분명해짐을 강조하고 있다. 두 시 모두 짧고 간결한 문장 구조, 반복된 어미를 사용하여 운율을 살리고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반어 또는 역설 표현 중 하나를 명확하게 사용함.	2점	10점
극심한 기후 변화 상황을 반영하여 감정을 적절히 표현함.	4점	
행을 구분하되 하나의 연으로 작성함.	1점	
반복된 어미, 유사한 문장 구조 등을 통해 운율을 살림.	2점	
문장 연결이 자연스럽고 시의 흐름이 매끄러움.	1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서술형 문제 풀기 노하우

- 조건 확인하기** ▶ 반어 또는 역설 표현을 사용하며, 시의 운율감을 살리고 행을 구분하되 1연으로 써야 함을 확인하기
- 상황과 감정 연결하기** ▶ 제시된 상황을 보고, 그 상황에서 느껴지는 감정(불안, 두려움, 삶과 자연의 소중함 등)과 표현하고 싶은 내용을 떠올려 보기
- 시적 표현으로 정리하기** ▶ 떠올린 내용을 반어나 역설로 표현하고, 상황과 감정이 잘 드러나게 시를 쓰기

한 걸음 더

p.174

풍자, 반어적

확인 문제 1 ② 2 ④

- “요즘 날씨가 한번 참 좋네.”라는 누리꾼의 반응은 폭염 문제의 심각성을 간과하려는 의도에서 가볍게 발언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날씨가 좋지 않음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한 반어 표현이다.
- (나)는 역설 표현을 활용해 한현의 의미를 인상적으로 드러낸 표현으로 사람들에게 한현에 동참하도록 설득하고 있다.

어휘력 키우기

p.175

1 ① 형상화 ② 조롱 ③ 모순 2 3582

확인 문제 1 (1) 조롱 (2) 형상화 (3) 모순 2 ③

- ‘조소’는 ‘흉을 보듯이 빈정거리거나 업신여기는 일, 또는 그렇게 웃는 웃음’을 뜻한다. ③에서는 ‘순쩍을 치며 크게 웃음’을 뜻하는 ‘박장대소’를 쓰는 것이 적절하다.

02 영상매체 자료 만들기

바로바로 개념 체크

p.176

1 ② 2 ③ 3 ⑤

- 복합양식성은 문자, 그림, 소리 등 여러 양식이 결합된 것을 의미하며(ㄱ), 뉴스나 광고는 복합양식성이 잘 나타나는 대표적인 영상 매체 자료이다(ㄷ).
- 인터넷에 있는 음악이라도 대부분 저작권이 보호되고 있으므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게 저작권 보호 기간이 만료된 음원이나 직접 제작한 음악, 또는 저작권자에게 사용 허락을 받은 음원을 사용한다.
- 주제와 목적에 맞게 편집하며 적절한 자막, 배경 음악, 효과음 등을 삽입하는 작업은 촬영이 끝난 뒤에 편집하기 단계에서 이루어진다.

소단원 체크

p.177~184

1 ④ 2 ③ 3 복합양식성 4 ③ 5 ③ 6 ⑤ 7 보는 사람이 영상의 내용을 쉽게 이해하도록 한다. 8 ① 9 ⑤ 10 ④ 11 ⑤ 12 ③ 13 ⑤ 14 ① 15 ④ 16 초상권, 저작권 17 ⑤ 18 ④ 19 ③ 20 ⑤ 21 ⑤ 22 ② 23 ④ 24 ④ 25 ⑤ 26 ①

- 계획하기 단계에서는 만들고자 하는 영상의 소재와 형식, 주제, 목적, 예상 시청자, 공유 매체를 정해야 한다. 자막과 효과음은 주로 편집하기 단계에서 고려할 사항이다.
- 다솜은 “은진이가 쓴 시로 영상을 만들어 보면 어때?”, “~ 친구들이 공감할 거야.”라고 영상의 소재와 공감 요소만 언급했을 뿐, 교훈적 의미를 강조하거나 공유 매체를 제안하지는 않았다.
- 다양한 양식이 결합된 특성을 복합양식성이라고 한다.
- 카메라와 대상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면 대상의 전체적인 모습과 배경을 동시에 보여 줄 수 있다.
- 카메라 각도를 위에서 아래로 찍는 것은 하이 앵글로, 이 각도로 찍으면 대상을 실제보다 작아 보이게 하여 대상을 포함한 전체적인 장면을 한눈에 보여 줄 수 있다.
- 학생의 표정을 세밀하게 담기 위해서는 클로즈업 샷으로 카메라와 대상 사이의 거리를 가깝게 하여 찍어야 한다.
- 중요한 내용을 시각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자막은 보는 사람이 내용을 쉽게 이해하도록 돕는다.
- 기획안은 영상을 촬영하기 전에 작성하는 문서이다.
- 자막은 스토리보드를 작성할 때 고려하는 시각적 요소 중 하나이며, 보는 사람이 내용을 쉽게 이해하도록 돕는 효과가 있다.
- 장면 2 설명에 주인공과 카메라 사이의 거리를 멀게 하여 배경까지 함께 찍는다고 제시되어 있다(ㄴ). 장면 3 대사는 공부에 집중하기 위해 책상 정리를 하며 정작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는 학생의 모습을 풍자하고 있다(ㄷ).

- 11 스토리보드를 작성하면 주제를 효과적으로 담을 수 있고, 영상 제작 방향을 체계적으로 정해 놓아 촬영과 편집 전에 영상 구성 요소를 미리 점검할 수 있다.
- 12 ㉠을 고려할 때 주인공이 책상을 치우는 모습을 화면에 담기 위해서는 정면에서 주인공과 책상 전체를 함께 촬영해야 한다.
- 13 영상을 촬영할 때에는 대사가 깨끗하게 녹음되도록 마이크를 사용한다.
- 14 장면 3을 2배속으로 편집하여 공부 대신 책상 정리만 하는 인물의 모습을 우스꽝스럽게 표현함으로써 풍자 효과를 강조할 수 있다.
- 15 장면 2를 편집할 때에는 시계의 초침 소리를 더 크게 해서 시간이 낭비되는 분위기를 강조했다.
- 16 동의 없이 친구들의 얼굴이 식별되는 장면을 공개하면 초상권 침해가 될 수 있으므로, 게시 전 당사자 동의가 필요하다. 상업용 음원을 그대로 사용하면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사용 전 저작권자에게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한다.
- 17 ‘시험공부 성공 비법’은 영상의 내용과 반대되는 제목으로, 학생들의 관심을 끄는 동시에, 시간을 허비하는 모습에 대한 풍자 효과를 높이고 있다.
- 18 시각적, 청각적 요소는 모두 내용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장치로, 청각적 요소보다 시각적 요소를 많이 활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19 <보기>에서는 예상 시청자인 신입생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주제를 다루고자 한다.
- 20 일기는 일상의 경험을 담는 형식으로, 시청자의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다.

Clinic **오답 강의**

- ② 내용의 풍자 효과는 대개 시사·코미디 영상의 특징이다.
- ③ 영상 일기는 정보 전달보다는 일상의 체험과 감상을 주로 다루므로 정보의 신뢰성을 높인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④ 대상의 특징과 장단점이 두드러지는 것은 제품이나 서비스 등을 비교·분석하는 영상의 특징이다.

- 21 학원 정보는 학교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이다.
- 22 장면 8에서는 동아리 모집 정보가 잘 보이게 게시판과 카메라 사이의 거리를 가깝게 해서 찍기로 했다.
- 23 장면 3에서는 시각 이미지와 대사로 체육 시간 복장 규칙을 전달하고 있다.
- 24 그림의 완성도보다는 장면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 25 소음을 통제하고 소리가 깨끗하게 녹음되는지 확인하는 것은 촬영 단계에서 유의할 점이다.
- 26 영상 제작을 마친 후에 공유 및 평가가 이루어지므로, 이를 통해 해당 영상의 제작 시간을 단축할 수는 없다.

학습 활동 **이해** **활용** **연보기** p.177~181

1 풍자, 자막 **2** 주제 **3** 각도, 녹음, 속도

핵심 포인트 p.178~182

01 배경, 안정 **02** 그림, 자막
03 스토리보드, 마이크, 효과음, 저작권

소단원 핵심 정리 p.185

주제, 편집, 압도감, 이해
학습 점검하기 **1** ①○ ②× ③○ ④× **2** 자신감

소단원 통합 문제 p.186~187

01 ① **02** ④ **03** ②, ⑤ **04** 반어 표현을 활용하여 제목을 붙임으로써 풍자 효과를 강화하고 학생들이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05** ② **06** 카메라와 대상 사이의 거리를 가깝게 하여 촬영하면 인물의 세밀한 표정이나 감정을 강조할 수 있다. **07** ⑤ **08** ⑤

- 01** (가)의 대화에서 지훈이와 친구들은 영상 매체 자료를 제작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며, 영상의 목적과 형식, 주제, 예상 시청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나 영상을 제작할 때 어떤 역할을 맡고 싶은지 개인적인 선호를 밝힌 부분은 없다.
- 02** 기획 의도에서 딱짓만 하고도 열심히 공부했다고 착각하는 학생의 모습을 풍자하겠다고 하였으므로 ④는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 03** 자막과 시각 이미지는 시각적 요소에 해당한다.
- 04** ‘시험공부 성공 비법’은 시험 기간에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는 학생의 모습과 반대되는 반어적 제목이다. 이를 통해 딱짓만 하고 열심히 공부했다고 착각하는 학생의 모습을 풍자하고, 예상 시청자인 학생들이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한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반어’라는 명칭을 밝혀 씀.	2점	4점
‘풍자’와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함.’이라는 영상 제작 목적을 밝힘.	2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 05** (가)의 마이크 사용은 대사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방법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나)의 장면 1의 자막은 제목을 부각하기 위해 활용하고 있으므로 대사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방법으로 보기 어렵다.

06 카메라와 대상 사이의 거리가 가까우면 인물의 표정이 잘 드러나므로 대상의 세밀한 감정을 묘사할 수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보기〉를 실현할 수 있는 촬영 방법을 씀.	2점	4점
해당 촬영 방법의 효과를 설명함.	2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07 대사가 효과음에 묻히지 않도록 음량을 조절해야 한다.

08 영상을 평가할 때는 상대방의 노력을 존중하면서 예의를 지키는 태도가 필요하다.

3단계로 끝내는

서술형 실전 문제

p.188~189

1 기획안, 스토리보드, 복합양식성 2 기획안인 (가)를 작성할 때는 영상의 주제, 기획 의도, 내용 등을 작성하며, 스토리보드인 (나)를 작성할 때는 시각 이미지, 자막 등 시각적 요소와 대사, 배경 음악, 효과음 등 청각적 요소를 포함한 촬영 기법과 편집 기법을 작성한다. 영상 제작 전에 (가)와 (나)를 작성하면 전체적인 촬영 및 편집 계획을 세울 수 있어 영상을 효율적으로 제작할 수 있다. 3 카메라 각도를 아래에서 위로 하여 찍으면 인물을 더 당당하고 커 보이게 한다. 이러한 촬영 기법과 '우리 반 일 등은 내 거야'라는 대사가 어울려, 인물이 실제로 자신보다 더 대단하게 여기는(과대평가하는) 태도를 드러낸다. 4 시각 이미지: 조용한 교실에서 학생이 책상 앞에 앉아 문제집을 풀고 있는 모습
자막: "계획대로 준비 중! 이제는 자신감이 생긴다."
효과음: 연필로 글씨 쓰는 소리
의도: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시간을 낭비하는 (나)의 인물과 달리, 계획에 따라 성실히 공부하는 모습이 진정한 자신감으로 이어짐을 보여 주고자 하였다.

2 기획안인 (가)에는 영상에서 다루고 싶은 주제와 내용 등을 정리하고, 스토리보드인 (나)에는 화면에 들어갈 구체적인 장면이나 소리 같은 표현 요소를 담는다. 이렇게 (가)와 (나)를 미리 작성하면 영상의 제작 과정을 미리 점검할 수 있고 촬영과 편집 과정에서의 혼란을 줄여 영상을 효율적으로 제작할 수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가)와 (나)를 구성하는 내용 요소를 씀.	2점	5점
(가)와 (나)를 작성하여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씀.	3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3 카메라의 각도를 아래에서 위로 찍는 로 앵글 기법은 인물을 실제보다 크게 보이게 하여 인물의 모습을 강조한다. 이러한 촬영 기법과 대사가 어울려 인물의 과장된 자신감이 강조된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촬영 기법의 효과를 씀.	2점	5점
대사와 연결하여 촬영 기법을 통해 강조되는 인물의 태도를 설명함.	3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4 시험 준비를 성실히 한 학생의 모습을 보여 주는 장면을 새롭게 구성하려면 시각 이미지로 학생이 공부하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야 하며, 자막을 통해 학생의 생각이나 태도를 표현하는 것이 좋다. 또한 효과음을 활용해 장면의 분위기를 살려 시험 준비를 제대로 한 학생의 태도와 (나)의 학생이 대비되게 보여 주어야 한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시험 준비를 성실히 한 학생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시각 이미지를 제시함.	4점	10점
자막이 장면과 어울리며, 학생의 태도·상태를 효과적으로 표현함.	2점	
장면의 분위기나 메시지를 강화하는 효과음이 적절히 쓰임.	2점	
장면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가 분명히 드러남.	2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서술형 문제 풀기 노하우

- 1 장면의 핵심 상황 정하기 ▶ 어떤 학생의 모습이나 행동을 보여 줄지 결정하기
예) 책상 위에 참고서를 펼쳐 두고 차분히 문제를 풀고 있는 모습
- 2 구체적인 시각적, 청각적 요소 떠올리기 ▶ 상황에 맞는 시각 이미지, 자막, 효과음을 떠올려 장면을 구체화하기
- 3 전달하려는 의도 정리하기 ▶ 2에서 구성한 장면을 통해 자신이 전달하고자 한 바가 무엇인지 정리하기

한 걸음 더

p.190

확인 문제 1 ①

1 마지막 단락에서 '장면은 똑같지만 순서를 뒤바꾸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연결되는 장면의 순서를 바꾸면 이야기의 주제도 달라질 수 있다.

어휘력 키우기

p.191

1 ① 장면 ② 공유 ③ 효과음 2 별빛공원

확인 문제 1 (1) 장면 (2) 공유 (3) 효과음 2 ③

2 영화 필름이나 녹음테이프, 문서 따위를 하나의 작품으로 완성하는 일은 '편집'이라고 한다. '편집'은 '여러 가지 자료를 모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책을 만들.'이라는 뜻이다.

대단원 마무리 체크

p.192~193

- 01 먼 훗날 02 그림움 03 이별 04 잊었노라 05 당신 06 (1) ○ (2) ○ (3) × 07 잊었다, 없다, 반어 08 (1) ○ (2) ○ (3) × (4) ○ 09 공 통적 10 (1) ㉠-㉢ (2) ㉡-㉣ 11 역설 12 어려움 13 꿈 14 (1) ○ (2) ○ (3) × (4) × 15 모순, 진리, 참신 16 양반, 부자, 군수, 특권, 도둑놈, 포기 17 (1) × (2) ○ (3) × 18 아내, 비판 19 (1) × (2) ○ (3) ○ 20 체면, 허례허식 21 두 번째, 풍자 22 복합양식성 23 계획하기 24 (1) ㉠, ㉢ (2) ㉡, ㉣ 25 (1) ○ (2) ○ (3) × 26 (1) 멀 먼 (2) 가까우면 (3) 아래, 위 27 자막, 이해

01 ① 02 ⑤ 03 ④ 04 먼 훗날√당신이√찾으시면 05 ⑤
 06 ② 07 ④ 08 ⑤ 09 ② 10 ③ 11 ① 12 ① 13 ⑤
 14 양반의 모습: 허례허식에 얽매어 있음. 부자의 모습: 양반이 가진 특
 권을 동경함. 15 ③ 16 ④ 17 ④

- 01 (가)에서는 당신을 잊을 수 없는 애절한 마음을 이와 반대되는 말인 '잊었노라'라고 표현하고 있으므로 반어 표현이 쓰였다. (나)에서는 모순되는 표현 속에 진실을 담고 있는 역설 표현이 쓰였다.
- 02 (나)의 화자는 꿈을 가지고 끊임없이 나아가는 삶의 자세를 강조한 것이지, 가만히 멈춰 서는 태도에 대해 말한 것이 아니다.
- 03 4연에서 화자는 '오늘도 어제도' 당신을 잊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먼 훗날 그대에 '잊었노라'라는 표현은 당신을 만나겠다는 다짐이 아니라, 먼 후일까지도 결코 당신을 잊을 수 없다는 반어 표현이다.
- 04 (가)는 3음보의 율격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각 행을 세 마디로 끊어 읽을 수 있다. 따라서 '먼 훗날√당신이√찾으시면'과 같이 끊어 읽는 것이 적절하다.
- 05 화자는 흑을 업고 더위와 추위와 목마름을 묵묵히 견뎌 내는 낙타의 모습에서 꿈을 가지고 끊임없이 나아가는 삶의 자세를 성찰하고 있다. 독자는 이러한 화자의 모습을 보며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계기를 가질 수 있다.
- 06 이 글에서는 양반 신분을 사고파는 사건에 초점을 맞추어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영웅적인 활약을 하는 인물은 등장하지 않는다.
- 07 (가)에서 '우리는 아무리 잘살아도 항상 천한 대접을 받는다.'라는 부자의 말을 통해 부의 정도가 아닌 타고난 신분에 따라 위계가 정해진 사회였음을 알 수 있다.
- 08 (가)에서 부자는 돈이 많아도 양반 신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수모를 당하며 살아왔다고 말하며 돈으로 양반 신분을 사서 살아 보자고 이야기한다. 따라서 부자가 양반의 환곡을 대신 갚아 준 이유는 돈으로 양반 신분을 사서 양반의 특권을 누리고 싶었기 때문이다.
- 09 작가는 양반 아내의 말을 통해 현실 문제에 대한 대처 능력이 부족한 양반의 무능함을 비판하고 있다.
- 10 양반이 병거지에 잠방이를 입고 군수 앞에서 자신을 낮춘 이유는 환곡을 대신 갚아 주는 대가로 부자에게 양반 신분을 팔았기 때문이다.
- 11 (가)에서 허례허식에 얽매어 있는 양반의 모습을 과장하고 있으며 (다)에서 흥패를 돈 자루에 비유하고, 하는 일 없이 놀면서 살만 찌는 양반의 모습을 과장하여 표현하고 있으므로 ①의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12 양반 매매 증서는 단순히 신분을 사고파는 기록이 아니라, 작가가 양반의 모순된 모습을 풍자적으로 드러내는 장치로 기능한다. 신분 제도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기능을 하는 것은 아니다.
- 13 흥패가 돈 나오는 돈 자루와 다름없다고 하는 데에서 과거에 급제한 양반들이 흥패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했음을 비판하고 있다.
- 14 '부자'는 작가 의식을 대변하여 양반을 비판하는 인물이기도 하지만, 그 자체로 비판의 대상이기도 하다. ㉠의 말은 허례허식에 얽매어 있는 양반을 풍자하는 기능을 하지만, 양반의 특권을 동경하며 신분 상승을 꾀하는 부자의 속내를 보여 줌으로써 부자에 대한 풍자 효과도 나타낸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을 통해 풍자하고자 한 양반과 부자의 모습을 제시함.	각 2점	4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 15 스토리보드는 기획안을 토대로 장면별 시각적·청각적 요소와 촬영·편집 계획을 구체화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나) 기획안의 세부 내용이 (다) 스토리보드의 장면 순서를 참고하여 작성되는 것은 아니다.
- 16 카메라가 위에서 아래로 악당을 비출 경우, 관객은 영웅의 시선으로 내려다보듯 악당을 보게 된다. 따라서 악당과 같은 시선으로 보게 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17 학교생활에 적응해 가는 신입생의 이야기이므로 영상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밝을 것이다. 특히 급식을 먹으러 가는 길은 학생의 기대감이 드러나도록 경쾌한 음악을 넣는 것이 효과적이다.

1 ⑤ 2 ② 3 ⑤

- 1 감상평 공유는 영상을 시청한 뒤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부족한 점을 인식하며 개선 방향을 고민할 수 있는 활동이다.

Clinic 오답 강의

①, ②, ③, ④는 각 단계의 의도나 목적을 잘못 설명하고 있어 적절하지 않다.

- 2 소개 단계에서 영상의 전체 줄거리를 세세하게 이야기하면 영상에 대한 기대감이나 흥미를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핵심 내용만 간략하게 전달한다.
- 3 학습의 전체 영상 가운데 우수 영상을 선발할 때에는 선발 기준을 모둠 간, 그리고 학습 전체에서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

1

문학을 펼치면

01 시의 목소리_저녁 항구

p.004

01 '나', 부모님의 구두를 만져 보고 바라보고 **02** ㉠은 수고로운 현실, ㉡은 아빠와 엄마의 구두, ㉢은 우리 집 현관, 휴식처 등을 의미한다. **03** '암초 자국들'은 부모님의 수고, 고단한 생활로 인한 상처를 의미하며, 화자는 이를 바라보면서 자신을 위해 수고하는 부모님에게 애정과 감사함을 느끼고 있다. **04** 화자는 순수하고 풍부한 상상력을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화자의 시선이 동화 같은 분위기를 느끼게 한다.

01 이 시의 화자는 '나'로, 현관에서 부모님의 구두를 만지며 바라보는 상황이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화자가 '나'임을 밝힘.	1점	3점
화자가 부모님의 구두를 만져 보고 바라보고 있다는 내용을 씀.	2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02 화자는 현관에 놓인 아빠와 엄마의 구두를 바다에서 돌아와 항구에 닦을 내린 '배'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바다'는 문밖의 수고로운 현실, '항구'는 우리 집 현관, 혹은 휴식처 등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의 함축적 의미를 각각 알맞게 씀.	각 2점	6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03 배의 '암초 자국들'은 부모님 신발의 닳은 흔적을 빗대어 표현한 것으로 부모님의 고단한 삶의 흔적을 의미한다. 화자가 그것을 '오랫동안 바라본다'는 것은 부모님의 수고와 고단함을 떠올리며 감사와 애정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암초 자국들'의 의미를 알맞게 씀.	3점	6점
화자의 정서를 '애정, 감사, 애뜻함, 존경심' 등으로 알맞게 씀.	3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04 화자는 아빠 구두와 엄마 구두의 생김새를 바탕으로 각각 다른 배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아이로 설정된 화자의 특성이 드러나는 부분으로, 시의 동화 같은 분위기를 느끼게 하고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화자의 특성을 알맞게 씀.	3점	6점
화자의 특성이 시의 분위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맞게 씀.	3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01 시의 목소리_비린내라뇨!

p.005

01 '우리들한테 비린내 난다고 하지 마세요', '물고기 일등' 등의 표현을 통해 화자가 물고기임을 알 수 있다. **02** (1) 정성 들여 화장한 것이며 향기가 다양하다. (2) 비린내가 난다. **03** 비린내 난다고 하지 마세요, 코 막지 마세요 **04** 독자들이 인간이 아닌 물고기의 입장에서 시적 상황을 바라보게 하기 때문이다.

01 이 시는 물고기를 화자로 설정하여 물고기의 냄새를 비린내로 만 여기는 인간의 편협한 관점을 비판하고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화자가 물고기라는 내용을 씀.	1점	3점
<조건>에 맞추어 씀.	2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02 인간은 물고기를 보고 '비린내'가 난다고 하는 것에 반해 화자는 '정성 들여 화장한 거예요', '향기가 다양한 걸'이라고 표현하며 자신들의 고유한 특성을 강조하고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에 관한 화자의 관점을 알맞게 씀.	2점	4점
㉡에 관한 인간의 관점을 알맞게 씀.	2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03 이 시는 '하지 마세요', '코 막지 마세요'처럼 반복적인 명령문과 단호한 어조를 사용하여 화자의 주장과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1연의 '비린내 난다고 하지 마세요'를 찾아 씀.	2점	4점
2연의 '코 막지 마세요'를 찾아 씀.	2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04 이 시는 물고기를 화자로 설정하여 독자들이 물고기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 그 결과 독자는 물고기의 관점에서 물고기를 바라보며 대상을 함부로 판단했던 자기중심적인 태도에 관해 돌아보게 된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물고기의 입장에서 대상을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을 씀.	4점	6점
<조건>에 맞추어 씀.	2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01 한 걸음 더

p.006

01 화자의 행동: 임에게 산버들을 꺾어 보내고 있다. 화자가 처한 상황: 임과 헤어진 / 만나기 힘든 상황이다. **02** 임이 자신을 잊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03** (1) 풍경 (2) 상대방에 대한 화자의 마음을 전하는 사물이기 때문이다. **04**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느끼는 그리움의 정서를 보다 애뜻하고 효과적으로 표현한다.

01 이 시에서 화자가 임에게 산버들을 꺾어 보내는 이유는 멀리 떨어져 있는 임에게 임을 사랑하는 마음을 전달하고 싶기 때문이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화자가 임에게 산버들을 꺾어 보낸다는 행동을 씀.	2점	4점
화자가 임과 이별한 상황임을 씀.	2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02 산버들에 새 잎이 나면 그것을 화자로 여겨 달라는 희망을 담은 구절로, 임이 자신을 잊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임이 자신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씀.	3점	4점
<조건>에 맞추어 씀.	1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03 ‘풍경’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화자의 보고 싶은 감정이 닿는 통로 역할을 한다. (가)의 ‘산버들’과 마찬가지로 직접 만나지 못하는 대신 어떤 사물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남기려는 방식이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나)에서 시어 ‘풍경’을 정확히 제시함.	2점	5점
풍경이 화자의 마음을 전한다는 내용을 까닭으로 제시함.	3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04 두 시의 화자는 모두 자신의 마음을 상대방에게 ‘산버들’과 ‘풍경’이라는 매개체를 활용하여 전달하고 있다. 이와 같이 특정 사물을 통해 간접적으로 마음을 표현하는 방식은 과장 없이 담담히 감정을 드러내는 효과를 준다. 또한 독자는 이면에 더 깊은 그리움이 있음을 느끼고, 작품의 절제된 분위기와 애뜻함에 공감할 수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정서를 보다 애뜻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내용을 씀.	2점	4점
<조건>에 맞추어 씀.	2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02 이야기 속 시선_축구공과 응원봉 (1)

p.007

01 윤현재는 자기주장이 강한 성격일 것이고, 송미단은 시끄럽지는 않지만 주관이 뚜렷하고 아무진 성격일 것이다. **02** (1) 수행 평가 주제 선정 (2) 윤현재는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해 점수를 잘 받을 만한 노래를 수행 평가 주제로 정하고 싶어 하지만, 송미단은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를 수행 평가 주제로 정하고 싶어 한다. **03** (라)의 서술자는 ‘나(차우현)’이고, <보기>의 서술자는 송미단이다. (라)에서는 ‘나(차우현)’의 생각과 속마음이 드러나는데, <보기>에서는 서술자가 바뀌어 (라)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송미단의 생각과 속마음이 직접적으로 드러나게 된다. **04** ‘나’가 부상으로 축구를 그만두게 되면서 무기력해졌기 때문이다.

01 ‘목소리가 동전이 든 저금통을 흔드는 것처럼 시끄러운 아이’라는 표현으로 볼 때 윤현재가 자기 의견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인물임을 짐작하게 한다. ‘아무진 입매’와 ‘만만치 않은 분위기’라는 묘사는 송미단이 조용하지만 주관이 뚜렷하고 의지가 강한 성격임을 짐작하게 한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윤현재의 성격을 짐작하여 알맞게 씀.	2점	4점
송미단의 성격을 짐작하여 알맞게 씀.	2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02 윤현재와 송미단의 갈등은 수행 평가 주제 선정 기준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윤현재는 객관적 성과와 사회적 평가를 중시해 점수를 잘 받을 주제를 원하지만, 송미단은 자신이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를 고집한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두 인물이 부딪히고 있는 쟁점이 무엇인지 밝힘.	2점	5점
해당 쟁점에 대한 두 인물의 입장을 씀.	3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03 <보기>에서는 서술자를 송미단으로 바꾸면서 송미단의 생각과 속마음이 자세히 드러난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서술자가 송미단으로 바뀌었다는 내용을 씀.	2점	6점
송미단의 생각이나 속마음이 드러난다는 내용을 씀.	3점	
<조건>에 맞추어 씀.	1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04 (마)에서 ‘나’가 얼마 전까지 축구부원이었으나 부상으로 축구를 그만둔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이로 인해 좌절을 겪게 된 ‘나’는 수행 평가에도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부상으로 축구를 그만두게 되었다는 내용을 씀.	3점	6점
무기력해졌다는 내용을 씀.	3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02 이야기 속 시선_축구공과 응원봉 (2)

p.008

01 ㉠은 친구를 응원하는 마음을, ㉡은 ‘나’가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를 의미한다. **02** 자신이 좋아하는 축구와 관련된 이야기일 것이다. **03** ‘나’는 송미단과의 소통을 계기로 음악에 관심이 생기고, 송미단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해 주고 싶어 하며, 송미단에게 먼저 아이스크림을 먹여 주려 하고 하는 등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04** [A]는 이야기 속 등장인물인 서술자가 자신의 행동과 말, 생각이나 속마음까지 상세히 서술하는 반면, <보기>는 이야기 속 등장인물이 아닌 서술자가 등장인물의 행동과 말 등 외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것만을 서술한다.

01 응원 봉은 송미단이 ‘나’를 응원하고 지지하면서 보내는 진심 어린 우정과 응원의 마음을, 축구공은 부상으로 그만두었지만 ‘나’가 축구를 여전히 좋아하는 마음이자 ‘나’가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를 의미한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의 의미를 알맞게 씀.	2점	4점
㉡의 의미를 알맞게 씀.	2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02 (나)에서 ‘나’는 송미단에게 아직 말하지 못한 자신의 이야기, 즉 자신이 좋아하는 축구 이야기를 하려고 마음먹고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축구와 관련된 이야기라는 내용을 씀.	2점	3점
<조건>에 맞추어 씀.	1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03 ‘나’는 송미단과 소통하며 자신의 속마음을 마주하게 되었고 이후 무기력하고 주변에 무관심하던 상태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바를 표현하는 모습을 보인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송미단과의 소통이 계기가 되었다는 내용을 씀.	2점	6점
'나의 달라진 행동을 구체적으로 씀.	각 2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04 1인칭 주인공 시점인 [A]에서는 서술자의 내면 심리와 감정이 상세히 표현되어 있는 반면, 3인칭 관찰자 시점인 <보기>에서는 관찰 가능한 부분만 서술하고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A]의 서술자의 특성을 알맞게 씀.	3점	6점
<보기>의 서술자의 특성을 알맞게 씀.	3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02 한 걸음 더

p.009

01 어린아이의 천진난만하고 순수한 모습이 보는 이의 웃음을 자아낸다. / 서술자인 '나'가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에서 보는 이가 실제 상황을 짐작하면서 재미를 느끼게 한다. / 봉건적인 사회 분위기에서 자유롭게 표현될 수 없었던 어른들의 사랑 이야기를 순수하고 아름답게 느껴지게 한다. **02** 어린아이의 눈에 보이는 사실만을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상황이나 등장인물의 심리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어. **03** 아마 아저씨가 우리 외삼촌을 무서워하나 봐요. **04** 상대방에게 관심 / 연심 / 호감이 있는 자신의 마음이 들길까 봐 당황한 것

01 어린아이인 '나'를 서술자로 설정함으로써, 독자는 서술자가 이해하지 못하는 어른들의 심리나 행동의 진짜 의미를 스스로 추론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이야기의 재미와 여운이 더해진다. 또한 어린아이의 순수한 시선을 통해 봉건적인 사회 분위기에서 자유롭게 표현될 수 없었던 성인 남녀의 사랑을 낭만적으로 표현한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어린아이 서술자를 설정하여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씀.	각 3점	6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02 이 소설은 어린아이인 '나의 시점에서 이야기가 전개되어, 서술자의 순수하고 솔직한 관점에서 서술된다. '나는 어린 나이로 인한 인식의 부족으로 어른들의 감정이나 행동의 진짜 의미를 오해하거나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낸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어린아이의 시선에서 사건이 간접적으로 전달된다는 내용을 씀.	2점	5점
어른들의 감정이나 행동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낸다는 내용을 씀.	3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03 아저씨는 '나의 어머니에게 연심을 품고 있다는 것을 '나의 외삼촌이 눈치챌까 봐 외삼촌이 있을 때에는 조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나는 이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고 아저씨가 '나의 외삼촌을 무서워한다고 생각한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아저씨가 외삼촌을 무서워한다는 내용을 씀.	2점	3점
<조건>에 맞추어 씀.	1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04 아저씨와 어머니는 자신이 품고 있는 마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날까 봐 당황하며, 이를 감추기 위해 얼굴을 붉히거나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인다. 옥희의 시선에서는 화가 난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어린아이가 어른들의 행동이나 감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데에서 비롯된 오해라고 할 수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두 인물의 공통된 감정을 당황스러움으로 밝혀 씀.	2점	4점
상대방을 향한 관심 / 연심 / 호감이 드러날까 염려하는 상황과 연결하여 씀.	2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2 소통으로 여는 세상

01 공감하고 존중하며 대화하기 (1)

p.010

01 (1) 기타를 배우러 학원에 다니고 싶은데 엄마가 허락해 주시지 않음. (2) 엄마와의 대화가 잘 풀리지 않아 답답하고 속상함. **02** ㉠: 상대의 말을 요약하여 재진술하며 공감을 표현한다. ㉡: 비언어적 표현으로 상대의 말에 관심을 표현하며 듣는다. **03** (1)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정리하고, 문제를 객관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었다. (2) 상대의 상황과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보게 되었으며, 상대의 생각과 감정을 깊이 이해하고 포용하는 태도를 기르게 되었다. **04** 정말?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줄 수 있어?

01 (가)에서 미나는 엄마에게 기타 학원에 다니고 싶다고 말했지만, 곧 중간고사라서 허락을 받지 못해 답답하고 속상한 감정을 느끼고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대화에 나타난 미나의 고민 상황을 씀.	2점	4점
고민 상황에서 미나가 느끼는 감정을 씀.	2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02 ㉠에서 인우는 미나의 말을 다시 한번 자신의 말로 풀어서 재진술하고 있으며, ㉡에서는 고개를 끄덕이는 등의 비언어적 표현을 통해 미나의 말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 ㉡에 쓰인 경청하고 공감하는 대화 방법을 알맞게 씀.	각 3점	6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03 경청하고 공감하는 대화는 미나에게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고 문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기회를 제공하며, 인우에게는 상대의 상황과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고민을 함께 해결하며 공감 능력과 배려하는 태도를 기르는 효과가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경청하고 공감하는 대화의 효과를 미나의 입장에서 알맞게 씀.	3점	6점
경청하고 공감하는 대화의 효과를 인우의 입장에서 알맞게 씀.	3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04 ‘정말?’, ‘저런’과 같은 맞장구나 질문 등 이야기를 계속할 수 있는 표현을 활용하여 인우의 말에 적절한 반응을 보일 수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맞장구 표현을 알맞게 활용함.	2점	5점
상대가 이야기를 지속할 수 있는 질문을 함.	3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01 공감하고 존중하며 대화하기 (2)

p.011

01 (1) 학교 대항 농구 경기가 다가오는데 동우가 연습에 빠져서 속상하다. (2) 미술 대회 준비로 방과 후 연습에 매일 참여할 수 있는데 재혁이가 자신의 상황을 이해해 주지 않아서 서운하다. **02** 우리 경기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거야? **03** (1) 상대의 의견과 감정을 존중하며 상황이나 사건에 관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진솔하게 표현하였다. (2) 자신이 상대에게 바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요청하였다. **04** 갈등 상황에서 갈등을 조정하는 대화 방법을 활용하면 갈등을 합리적이고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고, 상대와의 관계를 원만하게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01 재혁이는 농구 경기 준비에 집중하고 싶은데 동우가 자꾸 연습을 빠지는 것에 속상함을 느꼈고, 동우는 자신의 사정(미술 대회 준비)을 이해받지 못하는 것에 서운함을 느끼고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재혁이의 생각과 감정을 알맞게 씀.	2점	4점
동우의 생각과 감정을 알맞게 씀.	2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02 농구 경기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말은 동우의 입장이 아닌 재혁이의 주관적 해석일 뿐이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사건에 대한 주관적 해석이 담긴 말을 그대로 찾아 씀.	3점	3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03 ㉠에서 재혁이는 동우의 감정과 입장을 존중하고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며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있다. ㉡에서 동우는 자신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하여 해결 방안(점심시간 연습)을 구체적으로 제안함으로써 적극적인 태도로 갈등을 조정하고자 했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에 드러난 갈등을 조정하는 대화 방법을 알맞게 씀.	3점	6점
㉡에 드러난 갈등을 조정하는 대화 방법을 알맞게 씀.	3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04 갈등 상황에서는 감정적으로 반응하기 쉽지만, 대화를 통해서 서로의 생각과 상황을 솔직하게 공유하면 오해를 풀고 합리적

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상대와의 신뢰와 긍정적인 관계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갈등을 조정하는 대화 방법이 필요하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갈등을 합리적이고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내용을 씀.	3점	6점
상대와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씀.	3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01 한 걸음 더

p.012

01 아빠는 민규가 친구와 싸운 일을 알고 화난 얼굴로 민규를 다그쳤고, 민규는 아빠에게 친구와 싸운 까닭을 솔직하게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02** 친구와 싸우게 된 민규의 상황이나 입장은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민규를 비난하는 표현이기 때문이다. **03** 아빠에게 말씀드리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요. **04** 자신의 상황이나 감정, 입장 등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상대를 존중하며 갈등을 악화시키는 표현을 경계해야 한다.

01 민규와 아빠의 갈등은 아빠가 민규의 속마음을 이해하려 하기 보다는 먼저 화를 내며 다그친 데서 비롯된다. 또한 민규가 자신의 진짜 감정과 싸운 이유를 솔직하게 말하지 않아 오해가 깊어진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아빠와 민규의 입장에서 갈등을 불러일으킨 원인을 알맞게 씀.	각 2점	4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02 아빠의 “강과 될래?”와 같은 표현은 민규의 입장을 충분히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말이다. 이러한 표현은 민규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방어적인 태도를 유발해 갈등을 심화시킨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갈등을 악화시킨 이유를 알맞게 씀.	3점	3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03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민규가 자신의 상황이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아빠에게 자신의 생각을 들어 달라고 요청하는 대화로 바꾸어 말하는 것이 적절하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상황이나 감정이 솔직하게 드러나는 내용으로 고쳐 씀.	3점	3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04 민규는 자신의 상황과 감정을 진솔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아빠는 민규를 일방적으로 비난한 결과 두 사람의 갈등이 악화되었다.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감정과 상황을 솔직하게 이해하고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로 대화에 참여해야 한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상대를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을 씀.	3점	6점
자신의 상황,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해야 한다는 내용을 씀.	3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02 피동 표현과 인용 표현 활용하기 (1)

p.013

- 01** 동작이나 행위를 당하는 것 **02** 도둑이 경찰에게 붙잡혔다.
03 (1) 종업원이 컵을 덜 닦았네요. (2) 능동 표현의 주체(컵을 덜 닦은 종업원)를 감추어서 주체인 듣는 이의 부담을 덜어 주고 체면을 살려 주는 효과가 있다. **04** (1) 동작이나 행위의 주체를 감추어 동작이나 행위에 관한 책임을 회피하는 의도로 사용될 수 있다. (2) 뉴스에서 판단의 주체를 밝히지 않음으로써 해당 의견이 특정 개인의 생각이 아닌 일반적인 의견이라는 느낌을 주어 객관성을 높일 수 있다.

- 01** 문장의 주어가 동작이나 행위를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을 능동 표현, 문장의 주어가 다른 대상에게 동작이나 행위를 당하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을 피동 표현이라고 한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피동 표현의 개념을 알맞게 씀.	3점	3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 02** 능동 표현의 목적어 '도둑을'을 피동 표현의 주어 '도둑이'로, 주어 '경찰이'를 부사어 '경찰에게'로 바꾸고 동사 '붙잡다'에 접미사 '-히-'를 붙여 피동 표현을 만든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피동 표현으로 알맞게 바꾸어 씀.	2점	2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 03** (나)의 상황에서는 의도적으로 피동 표현을 사용하여 행위의 주체를 감추어 표현함으로써 청자의 부담을 덜고 체면을 살려 주고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밀줄 친 표현을 능동 표현으로 적절히 바꿈.	2점	5점
능동 표현과 비교하여 손님이 사용한 피동 표현의 효과를 씀.	3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 04** 피동 표현은 행위의 결과(접시가 깨짐)를 강조하고 행위의 주체는 감추어서 상황에 따라 책임을 회피하는 의도로 사용될 수 있다. 또한 피동 표현을 사용하면 판단의 주체가 드러나지 않아, 뉴스가 특정 입장에 치우치지 않고 일반적인 의견이라는 느낌을 주어 독자에게 뉴스가 객관적이고 신뢰할 만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다)에 쓰인 표현의 효과를 <조건>에 맞추어 씀.	3점	6점
(라)에 쓰인 표현의 효과를 <조건>에 맞추어 씀.	3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02 피동 표현과 인용 표현 활용하기 (2)

p.014

- 01** ㉠은 직접 인용 표현을 사용하여 안내문의 내용을 그대로 옮겼고, ㉡은 간접 인용 표현을 사용하여 안내문의 내용을 자신의 언어로 바꾸어 옮겼다. **02** 어제 미주가 오늘은 자신이 도와주겠다고 말했다. **03** 손녀의 말은 할머니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여 생동감과 현장감이 느껴지고, 기자의 말은 좀 더 간결하고 객관화된 느낌을 준다. **04** 말의 일부만 인용하여 본래 그 말을 한 사람의 의도를 왜곡해서는 안 된다.

- 01** 직접 인용은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내용과 형식을 유지하면서 그대로 가져온 표현인 데 비해 간접 인용은 형식은 유지하지 않고 내용만 가져온 표현이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이 직접 인용 표현을 사용한 표현임을 설명함.	2점	4점
㉡이 간접 인용 표현을 사용한 표현임을 설명함.	2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 02** 어제의 기준에서 봤을 때, '내일'은 '오늘'에 해당하므로 시간 표현인 '내일'은 '오늘'로 바꾸어 써야 한다. 또한 '내가' 역시 '미주가'로 바꾸고, 인용 조사는 '고'를 사용해야 한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내일'을 '오늘'로 바꾸어 씀.	2점	5점
'내가'를 '미주가'로 바꾸어 씀.	2점	
인용 부호 없이 인용 조사 '고'를 씀.	1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 03** 직접 인용 표현은 인물의 말을 그대로 옮겨 와서 인물의 감정이나 상황을 더 생생하게 전달하는 효과가 있다. 반면, 간접 인용 표현은 말하는 사람의 상황이나 의도에 맞게 내용을 정리하거나 요약하여 전달하기 때문에 간결하고 객관화된 느낌을 주는 효과가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손녀가 사용한 직접 인용 표현의 효과를 알맞게 씀.	2점	4점
기자가 사용한 간접 인용 표현의 효과를 알맞게 씀.	2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 04** 인용 표현을 사용할 때, 상대의 말을 일부만 따오거나 맥락을 생략하면 원래의 의도와 다르게 왜곡되어 전혀 다른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본래의 말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씀.	3점	3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02 한 걸음 더

p.015

- 01** '-하다' 형태의 능동 표현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도 '-되다' 형태의 피동 표현으로 나타내거나, 피동 표현을 두 번 겹쳐 쓴다. **02** 유래한, 해당한다, 발전해 **03** (1) 집에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이 믿겨지지 않을 정도였거든요. (2) 집에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 믿어지지 않을 정도였거든요. **04** 잘못된 표현인지 모르고 오래 쓰다 보니 익숙해져서 계속 사용하는 경우와 이중 피동을 사용하면 내용을 보다 더 잘 전달하고 강조하는 느낌이 드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 01** 이 글에서는 불필요한 피동 표현 접미사 '-되다'를 붙이는 경우와 피동 표현을 두 번 겹쳐 쓰는 이중 피동을 자연스럽게 읽은 피동 표현으로 지적하고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불필요한 피동 표현의 내용을 씀.	2점	4점
이중 피동의 내용을 씀.	2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 02** 밑줄 친 표현은 모두 '-하다' 형태의 능동 표현으로 나타낼 수 있음에도 '-되다'를 붙여 피동 표현으로 나타낸 경우이다. 따라서 능동 표현으로 고쳐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불필요한 피동 표현을 능동 표현으로 알맞게 수정함.	각 1점	3점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 03** (다)는 피동 표현을 두 번 겹쳐 쓰는 이중 피동에 관한 내용이다. <보기>에서 이중 피동 표현이 쓰인 표현은 '믿겨지지'로, 접미사 '-기-'가 붙어 이미 피동 표현이 된 '믿기다'에 '-어지다'가 붙은 형태이다. 따라서 피동 표현을 겹쳐 쓰지 않는 '믿기다 / 믿어지다'로 고쳐 쓰는 것이 자연스럽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믿겨지지'를 찾아 씀.	2점	4점
'믿겨지지'를 '믿기지 / 믿어지지'로 고쳐 씀.	2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 04** (나)로 미루어 볼 때, 자연스럽게 읽지 않은 피동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 까닭은 사람들이 평소에 듣고 쓰는 언어 환경에서 이 표현들이 반복적으로 사용되어 자연스러운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또한 (다)에서 언급된 이중 피동은 내용을 강조하거나 견해를 조심스럽게 표현하려는 의도로 문법적 부자연스러움을 인식하지 못하고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자연스럽지 않은 피동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 까닭을 씀.	각 2점	4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3 나와 세상의 연결 고리

01 점검·조정하며 글 읽기 (1)

p.016

01 관심 분야, 읽기 목적, 수준 **02** 글의 제목을 보니 이 글은 콘서트 티켓 가격을 소재로 경제 상식을 설명하는 글일 것 같다. **03** (1) 모르는 단어의 뜻을 찾아보고 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한다. (2) 배경지식을 활용하여 글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이해한다. **04** 읽기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능동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내용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었어.

- 01** (가)에서 연재는 자신에게 적합한 글을 선정하기 위해서 관심 있는 경제 분야의 서거에서 다양한 책을 살펴보고 흥미, 수준 등 다양한 요소를 두루 고려하고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빈칸에 각각 알맞은 말을 씀.	각 1점	3점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 02** 연재가 읽기로 정한 책의 제목은 《천 원으로 시작하는 10대들의 경제학》으로, 청소년에게 필요한 경제 상식을 다루고 있다고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연재가 읽을 글의 제목인 ㉠을 보면

서 (나)가 콘서트 티켓 가격을 소재로 하여 청소년에게 필요한 경제 상식을 설명하는 글일 것이라는 예측을 할 수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콘서트 티켓 가격을 소재로 쓴 글일 것이라는 내용을 씀.	3점	6점
경제 상식을 설명하는 글일 것이라는 내용을 씀.	3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 03** 글을 읽는 중에는 모르는 단어의 뜻을 찾아보거나 자신의 배경지식을 활용하여 읽기 과정을 스스로 점검·조정할 수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읽는 중에 활용한 읽기 과정 점검·조정 방법을 알맞게 씀.	각 2점	4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 04** 읽기 과정을 점검·조정하며 글을 읽으면 읽기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능동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또한 글을 집중해서 읽으며 글의 내용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읽기 과정 점검·조정 효과와 관련된 내용을 알맞게 씀.	3점	3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01 점검·조정하며 글 읽기 (2)

p.017

01 타인의 존재가 능률을 올리는 현상, 타인의 존재가 능률을 떨어뜨리는 현상,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 혼자 집중하는 시간 **02** 맥락을 살피면서 다시 읽어 봐. **03** 질문을 만들고 답을 찾으며 글을 읽는다. **04** 나는 평소 어떤 과제든 혼자 하곤 했는데, 이제는 비교적 자신 있는 영어 단어 암기나 수학 문제 풀이 같은 과제는 도서관이나 카페에서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며 효율을 높이고, 발표 준비처럼 아직 익숙하지 않은 과제는 집에서 혼자 연습하면서 집중할 것이다.

- 01** 이 글은 사회적 촉진 현상과 사회적 억제 현상의 차이를 바탕으로 일상에서 각 현상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빈칸에 각각 알맞은 내용을 씀.	각 2점	8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 02** 읽는 중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맥락을 살피며 다시 읽어봄으로써 글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다시 읽어 보라는 내용을 씀.	2점	4점
맥락을 살피며 읽어 보라는 내용을 씀.	2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 03** 글을 읽으며 생긴 궁금증을 질문으로 만들어 답을 찾는 과정을 통해 글의 내용에 더욱 집중할 수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질문을 만들고 답을 찾는다는 내용을 씀.	3점	4점
<조건>에 맞추어 씀.	1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 04** 자신의 기존 학습 습관을 돌아보고, 이 글에서 제시한 방법을 실생활에 구체적으로 적용해 계획을 세워 볼 수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평소 공부 환경을 선택할 때 고려한 점이 무엇인지 밝힘.	2점	6점
자신에게 익숙한 과제와 익숙하지 않은 과제의 예를 언급하며 글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적용하여 씀.	4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01 한결을 더

p.018

01 책을 선정할 때에는 읽기 목적, 흥미, 배경지식, 수준, 분량, 관련성을 고려해야 한다. **02** (1) 단어의 내용, 수준, 분량이 적절하지 않아 읽는 도중 흥미와 관심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 (2) 단어의 내용, 수준, 분량이 적절하여 내용을 이해하기 쉬우므로 흥미를 갖고 끝까지 읽을 가능성이 높다. **03** 미술 분야에 처음 입문하는 사람에게는 '책 2'가 더 적합하다. 쉬운 어휘로 작품을 간단히 설명해 줌으로써 미술 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도 쉽게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 **04** 읽기 목적과 자신의 흥미나 관심사, 자신의 수준에 맞는 다른 책을 골라서 읽어 보세요.

01 책을 선정할 때에는 읽기 목적에 부합하는지, 소재나 글쓰기에 대한 관심과 흥미, 배경지식이 있는지, 단어나 내용의 수준이 본인에게 맞는지, 분량이 적당한지, 책의 내용을 자신의 삶과 관련지을 수 있는지 등 다양한 요소를 두루 고려해야 한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읽기 목적, 흥미, 배경지식, 수준, 분량, 관련성'과 같이 책 선정 시 고려할 요소를 씀.	각 1점	6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02 '책 1'은 '수준'과 '분량' 항목에서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 이는 책의 난이도나 분량이 독자의 상황에 맞지 않음을 뜻한다. 내용이 지나치게 어렵거나 많아 부담을 느낄 수도 있으며, 반대로 너무 쉽거나 짧아 흥미를 잃을 수도 있다. 따라서 '책 1'을 읽으면 흥미를 유지하기 어렵고 완독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 반면 '책 2'는 수준, 분량이 적합하므로 독자는 내용을 이해하기 쉽고, 흥미를 유지하며 끝까지 읽을 가능성이 높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책 1'은 수준과 분량이 독자에게 맞지 않아 독자가 흥미나 관심을 잃을 수 있다는 내용을 씀.	2점	4점
'책 2'는 수준과 분량이 적절하여 내용을 이해하기 쉽고 끝까지 읽을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을 씀.	2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03 입문자는 배경지식이 적고 전문 용어에 익숙하지 않으므로 전문적인 '책 1'보다는 '책 2'와 같이 쉬운 어휘와 간단한 설명이 많고, 작품을 보며 다양한 생각을 해 볼 수 있는 책이 흥미를 유지하고 읽기에 적합하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입문자에게 적합한 책을 선택함.	1점	4점
책을 선택한 이유를 '책 2'의 내용과 연결해 씀.	3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04 책의 내용이 재미없거나 어렵다면 자신의 흥미와 수준에 맞지 않는 책을 읽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읽기 목적과 자신의 흥미나 관심사, 수준에 맞는 다른 책을 선정하는 것이 좋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책의 내용이 재미가 없다는 것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함.	2점	4점
책의 내용이 어렵다는 것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함.	2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02 설명하는 글 쓰기 (1)

p.019

01 대상의 특성에 적합한 설명 방법을 활용 **02** (1) 분석 (2) 예시 **03** (1) 라면에 관한 다양한 정보 (2) 라면을 즐겨 먹고 관심이 많음. 라면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기대함. **04** 라면을 맛있게 끓이는 비법을 인과 의 설명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다.

01 설명하는 글을 쓸 때에는 설명 대상의 핵심 특성에 적합한 설명 방법을 활용함으로써 대상의 특성을 효과적으로 전달하여 독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대상의 특성에 적합한 설명 방법을 활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씀.	3점	3점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02 (1)은 곤충의 몸을 구성하는 요소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고, (2)는 콩을 원료로 만든 식품과 관련된 구체적인 예를 보여 주고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문장에 사용된 설명 방법을 알맞게 씀.	각 2점	4점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03 (나)에서 동빈이는 라면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알기 쉽게 설명하는 글을 쓰려고 하고 있다. 예상 독자인 '우리 반 친구들'이 라면을 즐겨 먹고 관심이 많아서 라면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기대할 것이라고 하였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글쓰기의 주제와 목적에 대한 설명을 (나)에서 찾아 씀.	3점	6점
예상 독자에 대한 분석을 (나)에서 찾아 씀.	3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04 <보기>는 수프를 넣는 시점에 따라 라면의 맛이 달라진다는 내용의 자료이다. 이를 활용하여 라면을 맛있게 끓이는 비법을 원인과 결과가 드러나도록 설명할 수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보기>의 내용과 설명 방법을 관련지어 자료 활용 방안을 적절히 씀.	4점	5점
<조건>에 맞추어 씀.	1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02 설명하는 글 쓰기 (2)

p.020

01 (1) 라면의 정확한 뜻을 전달하기 위해 라면의 정의를 추가하였다. (2) 내용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라면을 맛있게 끓이는 비법'과 '라면의 일반적인 조리법'의 순서를 서로 바꾸었다. **02** 독자의 관심(흥미)을 고려하여 바꾸었다. **03** 독자가 이어질 내용을 예측하여 글의 전개를 쉽게 따라갈 수 있다. **04** 앞뒤 문장이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으므로 '그리고'를 '그러나'로 고쳐 써야 한다.

01 중간 1에서는 ㉠과 같이 ‘라면의 정의’를 추가하였다. 이는 라면의 정확한 뜻을 독자에게 알려 주기 위함이다. ㉠에서는 ‘라면을 맛있게 끓이는 비법’을 ‘라면의 일반적인 조리법’ 뒤에 배치하였다. 이렇게 하면 일반적인 조리법을 먼저 제시한 뒤, 맛있게 끓이는 비법을 소개하게 되어 글의 내용 전개가 더 자연스럽고 이해하기 쉬워진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 ㉡과 같이 개요를 수정한 이유를 알맞게 씀.	각 3점	6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02 독자들의 관심을 끌 만한 제목을 사용하여 읽기 동기를 높일 수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제목에 수정한 의도를 알맞게 씀.	3점	3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03 글의 처음 부분에 이어질 내용을 알려 주는 문장을 추가하여 독자가 이어질 내용을 예측할 수 있도록 만들면 글의 전개를 보다 쉽게 따라갈 수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글의 내용을 추가하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밝힘.	3점	3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04 (다)의 앞부분에서는 라면이 비교적 영양이 균형 잡힌 식품이라고 언급한 뒤, 뒷부분에서는 나트륨 함량이 높은 편이라고 상반되는 내용을 서술하고 있다. ‘그리고’는 앞뒤 내용을 대등하게 이어 주는 말이므로, 앞과 뒤의 내용이 상반될 때 쓰는 ‘그러나’로 바꾸어 쓰는 것이 자연스럽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고쳐 써야 할 말과 까닭을 알맞게 씀	3점	4점
<조건>에 맞추어 씀.	1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02 한 걸음 더

p.021

01 우리 반은 경쟁 활동을 할 때 치열하게 겨루지만, 협력 활동을 할 때에는 서로 잘 돕습니다. **02** (1) 우리 반 학생들은 조회 시간마다 꾸준히 책을 읽기 때문에 독서 능력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2) ㉠에는 인과의 설명 방법을 활용하여 작성한 문장이 들어가야 하는데, 결과만 제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03** 예시를 활용하여 우리 반 친구들이 함께 즐기는 스포츠의 예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전하려는 바를 더욱 자세하게 드러내고자 하였다. **04** (1) 분석, 우리 반이라는 대상의 구성 요소를 남학생, 여학생, 담임 선생님이 나누어 설명하였다. (2) 분류와 구분, 우리 반 학생들을 좋아하는 동물이라는 기준에 따라 나누어 설명하였다.

01 <보기>에는 차이점을 드러내는 대조의 방법이 사용되었다. 이를 활용하여 경쟁 활동을 할 때와 협력 활동을 할 때 우리 반이 어떻게 다른 모습을 보이는지 설명할 수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대조의 방법을 활용하여 차이점이 드러나도록 씀.	3점	3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02 ㉠은 ‘독서 능력이 크게 향상되었다’는 결과만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가)의 ‘조회 시간마다 책을 읽는다’는 내용을 활용하여 문장을 고치면 원인과 결과가 연결된 우리 반의 특성이 잘 드러나는 문장을 만들 수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인과를 활용하여 ㉠을 적절하게 고쳐 씀.	2점	4점
원인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내용을 까닭으로 제시함.	2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03 ㉠을 바탕으로 <보기>에서는 우리 반 친구들이 즐기는 스포츠의 예를 구체적으로 들어 설명하고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예시를 활용했다는 내용을 씀.	2점	5점
전하려는 바를 자세하게 드러내고자 했다는 내용을 씀.	3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04 ㉠은 ‘남학생, 여학생, 담임 선생님’처럼 우리 반의 구성원을 나누어 설명했으므로 분석에 해당한다. ㉡는 ‘강아지를 좋아하는 학생과 고양이 좋아하는 학생’처럼 기준에 따라 나누어 설명했으므로 분류와 구분에 해당한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 ㉡에 들어갈 설명 방법을 씀.	각 2점	8점
㉠, ㉡와 관련된 각 문장의 특징을 언급하여 판단 이유를 씀.	각 2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4 표현의 빛깔

01 개성적인 발상과 표현_면 후일

p.022

01 화자는 사랑하는 사람인 ‘당신’과 이별한 상황이며, 슬픔과 그리움을 느끼고 있다. **02** (1) ‘당신’을 잊었다. (2) ‘당신’을 잊을 수 없다. **03** 반대되는 말, 반어 **04** 완벽한 하루 / 운수 좋은 날 / 행운이 넘치는 하루, <보기>의 일기는 좋지 않은 상황이 반복해서 일어난 날에 작성된 글이다. 반어를 활용해 제목을 붙임으로써 좋지 않았던 하루라는 의미를 더욱 강조하여 전달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01 화자는 ‘면 훔날’ 다시 찾아올 ‘당신’을 떠올리는 것으로 보아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시 전체에서 반복적으로 ‘잊었노라’라고 말하며 속마음과 반대되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사랑하는 사람을 잊지 못한 슬픔과 여전히 그리워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화자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밝힘.	2점	4점
화자가 느끼는 심정을 알맞게 씀.	2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02 '잇었노라'는 표면적으로는 사랑하는 '당신'을 잊었다는 뜻이지만, 실제로는 화자가 입을 잊을 수 없다는 속마음이 담긴 표현이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잇었노라'의 표면적 의미를 알맞게 씀.	2점	4점
'잇었노라'에 담긴 속마음을 알맞게 씀.	2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03 전하고자 하는 의도를 실제와 반대되는 말로 나타내는 표현을 방어라고 한다. 이 시의 화자는 떠난 입이 다시 나를 찾으면 '잇었노라'라고 말할 것을 다짐하지만, 이는 입을 잊을 수 없는 마음을 방어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반대되는 말이라는 내용을 씀.	2점	3점
방어를 씀.	1점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04 <보기>의 글은 실제로는 좋지 않은 일들이 반복된 하루를 서술하고 있다. '운수 좋은 날', '완벽한 하루'처럼 실제와 반대되는 말로 제목을 붙이게 되면 불운했던 하루라는 의미를 강조하여 표현할 수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방어를 활용하여 제목을 씀.	3점	6점
방어를 활용한 제목이 주는 효과를 씀.	3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01 개성적인 발상과 표현_낙타

p.023

01 이 시의 '낙타'와 '나'는 혼자 가고 있다는 점, 혼자이지만 함께 가져가는 것이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02** '나'도 혼자이지만 꿈이 있어서 어려움을 이겨 낼 수 있다는 의미이다. **03** 이 시에서는 역설을 통해 시의 주제를 강조하였다. 모순된 표현을 사용하여 참신한 느낌을 주었으며, 모순된 표현 안에 담긴 뜻을 독자가 깊이 생각하게 하여 삶의 진리를 인상적으로 전달하였다. **04** 주는 것이 받는 것이다. / 비우는 것이 채우는 것이다.

01 이 시에서 '낙타'와 '나'는 모두 혼자 가는 존재로 제시되지만, 낙타는 '혹'을, '나'는 '꿈'을 지니고 있다. 이처럼 둘 다 혼자임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를 함께 가져간다는 공통점을 보이고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낙타'와 '나'의 공통점을 씀.	각 2점	4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02 이 시는 낙타의 모습과 '나'의 모습을 병렬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보기>의 내용을 바탕으로 ㉠의 의미를 추측할 수 있다. ㉠은 '나' 역시 낙타처럼 혼자 가고 있지만 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멈추지 않고 나아갈 수 있음을 표현한 구절이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혼자이지만 꿈이 있다는 내용을 씀.	2점	4점
꿈이 있어서 어려움을 이겨 낼 수 있다는 내용을 씀.	2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03 이 시에서는 '혼자 가지만 / 혼자 가는 게 아니다'와 같은 역설 표현을 통해 시의 내용을 참신하게 전달할 뿐만 아니라, 독자가 그 속에 담긴 진정한 의미를 깊이 생각하도록 유도하여 주제를 강조하였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역설을 씀.	2점	6점
역설을 사용하여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씀.	4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04 <보기>는 인형을 많이 가졌을 때는 기쁨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가 친구들에게 인형을 주고 고마운 마음을 받으며 기쁨에 가득 차 있는 역설적인 상황이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역설을 활용하여 (보기)의 상황을 표현하는 말을 씀.	3점	4점
<조건>에 맞추어 씀.	1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01 개성적인 발상과 표현_양반전

p.024

01 빛을 갠을 길이 없어 밤낮으로 울기만 하는 양반의 모습을 통해 양반의 무능하고, 비생산적인 모습을 비판하고 있다. **02** 양반 대신 환곡을 갠고 **03** ㉠에서는 체면과 형식을 지나치게 중시하는 양반의 모습을 비판하고 있다. 그리고 <보기>에서는 신분을 이용해 부당한 특권을 누리고 백성을 괴롭히며 횡포를 부리는 양반의 모습을 비판하고 있다. **04** 이 글에 쓰인 표현 방법은 풍자이다. 풍자를 활용하여 양반의 부정적인 모습을 간접적으로 비판할 수 있고, 양반의 모습을 우스꽝스럽게 드러내어 웃음을 유발하면서 인상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01 밤낮으로 울기만 하는 양반의 모습과 이를 질타하는 아내의 말을 통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양반의 무능함을 희화화하여 드러내면서, 양반 계층의 비생산성을 비판하고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양반의 무능함과 비생산적인 모습을 비판한다는 내용을 씀.	3점	4점
<조건>에 맞추어 씀.	1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02 부자는 자신의 경제적 부와 상관없이 양반이 아니라는 이유로 겪는 천대에 불만을 갖고 있었다. 따라서 양반의 환곡을 대신 갠아 주고 그의 신분을 사서 양반 신분으로 살아가고자 한 것이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양반 대신 환곡을 갠아 있다는 내용을 씀.	3점	4점
10자 이내로 씀.	1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03 ㉠에서는 양반으로서 지켜야 할 덕목과 행실을 나열하여 걸치레와 허례허식에 얽매어 있는 양반의 모습을 비판하고 있다. 또한 <보기>에서는 특권을 남용하여 백성들을 괴롭히는 모습

을 나열하여 신분을 이용해 백성을 괴롭히는 양반의 모습을 비판하고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을 통해 비판하고자 하는 양반의 모습이 무엇인지 밝힘.	3점	6점
<보기>를 통해 비판하고자 하는 양반의 모습이 무엇인지 밝힘.	3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04 <보기>는 이 글에 활용된 풍자에 관한 설명이다. 풍자는 인물의 부정적인 면이나 사회의 모순 등을 비꼬거나 과장하거나 우스꽝스럽게 드러내어 간접적으로 비판하는 표현 방법이다. 이를 통해 부정적인 대상을 간접적으로 비판할 수 있으며, 웃음을 유발하면서 인상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풍자를 씀.	2점	8점
풍자의 효과를 알맞게 씀.	각 3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01 한걸음 더

p.025

- 01** ㉠에서는 반어가, ㉡에서는 역설이, ㉢에서는 풍자가 사용되었다.
02 가장 인상적인 표현은 ㉠이다. 실제로 나도 날씨가 좋지 않아 짜증이 나거나 기분이 좋지 않을 때, 이를 간접적으로 그리고 보다 재치 있게 드러내고자 일상에서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었기 때문이다. / 가장 인상적인 표현은 ㉡이다. 현혈을 망설이는 사람들을 설득해 현혈에 동참할 수 있게 만드는 표현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 가장 인상적인 표현은 ㉢이다. 길가에 쓰레기를 함부로 버린 사람들을 간접적으로 비판하기 위해 풍자를 활용한 것이 재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03** ㉢에는 역설이 사용되었다. ‘뽑는 것이 심는 것입니다.’라는 모순된 표현 속에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를 뽑는 것이 환경을 지키는 일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04 상대를 좋아하는 마음을 ‘반한 게 아니라고 하면서 반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를 통해 독자에게 진심을 강조하여 드러내고 깊은 인상을 줄 수 있다.

01 ㉠의 ‘요즘 날씨 한번 참 좋네.’라는 표현에서는 실제로는 너무 더운 날씨에 대한 생각을 반어를 활용해 반대로 표현하고 있다. ㉡에서는 ‘짱그림’이 ‘가장 아름다운 표정’이라는 모순된 표현을 사용하여 현혈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의 ‘이기심 전시회’는 쓰레기가 늘어선 모습을 전시회로 표현하여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행동을 비꼬고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에 사용된 표현법이 반어임을 밝힘.	1점	3점
㉡에 사용된 표현법이 역설임을 밝힘.	1점	
㉢에 사용된 표현법이 풍자임을 밝힘.	1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02 제시된 반어와 역설, 풍자의 예시를 살펴보고 가장 인상적인 표현을 근거를 들어 설명한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 중 가장 인상적인 표현을 한 가지 골라 자신의 생각을 씀.	2점	5점
<조건>에 맞추어 씀.	3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03 ‘뽑는 것이 심는 것이다’는 ‘플러그를 뽑을수록 나무를 심는 것과 같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길으로 보기에는 모순되는 역설 표현으로 전기 절약이 환경 보호로 이어진다는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에 사용된 표현법이 역설임을 밝힘.	1점	4점
역설 표현에 담긴 의미를 씀.	3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04 (다)의 노랫말 속 화자는 자꾸 생각나고 웃음이 나는 좋아하는 상대가 있지만, 반한 게 아니라고 하면서 속마음과 반대되게 표현하고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상대를 좋아한다는 마음을 표현하고자 했다는 내용을 씀.	2점	6점
반어를 활용하였다는 내용을 씀.	2점	
반어 표현의 효과에 대한 내용을 씀.	2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02 영상매체 자료 만들기 (1)

p.026

- 01** 영화, 시험 기간에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는 학생의 모습 풍자, 행복중학교 학생들 **02** 영상 매체 자료에는 문자, 소리, 그림, 사진, 동영상 등 다양한 양식이 결합된 복합양식성이 나타난다는 특성이 있다. **03**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고 지루해하는 학생의 표정을 보다 세밀하게 표현하고 강조할 수 있다. **04** 영상을 체계적으로 제작하고 주제를 효과적으로 담아내기 위해서이다.

01 (가)에서 다숨이가 은진이가 쓴 ‘시험 기간에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는 학생의 모습’을 풍자한 시를 영상으로 만들자고 제안하고 있다. 이에 은진이는 영화 형식으로 만들자는 의견을 내고 있다. (가)의 상단에 제시된 정보에서 학교 누리집에 게시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예상 시청자는 ‘행복중학교 학생들’임을 알 수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형식, 주제, 예상 시청자를 알맞게 씀.	각 2점	6점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02 ㉠에서 ‘자막, 배경 음악’ 등 다양한 요소를 활용한다고 언급하고 있으므로, 이를 통해 영상 매체의 ‘복합양식성’이 드러남을 알 수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에서 알 수 있는 특성이 ‘복합양식성’임을 설명함.	3점	3점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03 <보기>에서는 카메라와 대상의 거리가 가까울 때, 대상의 세밀한 감정을 묘사할 수 있다고 하였다. '장면 2'를 가까이 찍는다면,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는 학생의 지루한 표정이나 감정이 더 강조되어 나타나므로, 시청자가 인물의 상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카메라와 대상 사이의 거리를 가깝게 조절하였을 때 나타나는 효과를 알맞게 씀.	3점	3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04 스토리보드는 영상을 구성하는 장면을 글과 그림으로 나타낸 장면 연출 판으로, 스토리보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전하고자 하는 바를 어떻게 표현할지 구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스토리보드를 작성하는 까닭을 알맞게 씀.	3점	4점
<조건>에 맞추어 씀.	1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02 영상매체자료 만들기 (2)

p.027

01 카메라의 거리, 위치와 각도를 조절하고, 마이크를 사용하여 대사가 정확하게 녹음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02** 시간이 낭비되는 분위기를 강조해야겠어 **03** 다른 사람의 모습을 허락 없이 촬영하여 초상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04** 자막, 청각적

01 다숨이와 지훈이의 말에서 카메라의 거리, 위치, 각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점을, 은진이의 말에서 대사 녹음에 유의해야 한다는 점이 드러나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영상 촬영 시 유의점을 알맞게 씀.	각 2점	4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02 초침 소리를 크게 조절하면 시간 흐름에 대한 긴박감을 확실히 조성하고, 시간 낭비의 분위기를 강조하여 전달하려는 바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시간이 낭비되는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내용을 씀.	3점	3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03 (다)의 현주의 말을 통해 촬영을 허락한 적 없는 현주의 얼굴이 영상에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초상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영상 제작 과정에서 초상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다른 사람의 모습을 허락 없이 촬영하면 안 된다는 내용을 씀.	3점	4점
<조건>에 맞추어 씀.	1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04 영상 매체는 시각 이미지, 자막 등의 시각적 요소, 대사, 배경음악, 효과음 등의 청각적 요소로 구성된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두 개의 빈칸에 각각 알맞은 말을 씀.	각 1점	2점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02 한 걸음 더

p.028

01 편집에 따라 전혀 다른 이야기 **02** 마당에 매우 아름다운 꽃 한 송이가 피어 있다. 마당 주인은 마을에 꽃 도둑이 있다는 소식에 꽃을 지켜보고 있다. 옆집에 사는 꽃 도둑은 창밖을 내다보며 마당 주인이 집 안으로 들어가기를 기다린다. 기회를 노리던 옆집 사람은 마당 주인이 자리를 뜨자마자 문을 열고 달려 나오고,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은 채 꽃을 꺾어 도둑질에 성공한다. **03** 울고 있는 아이에게 산타클로스가 찾아와서 선물을 전달하자 아이가 행복해한다. **04** (1) 장면 1 - 장면 3 - 장면 2 (2) 어느 날, 의문의 선물 상자를 받은 나는 상자 안에서 한 장의 지도를 발견했다. 지도에는 미지의 장소와 나만이 알아볼 수 있는 비밀 표시가 그려져 있었다. 나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지도를 들고, 보물의 위치를 향해 전력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과연 그곳엔 어떤 모험과 보물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01 이 글은 장면을 배열(순서)하고 구성하는 편집에 따라 새로운 이야기와 의미를 창조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편집에 따라 전혀 다른 이야기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내용을 씀.	3점	3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02 창의력을 발휘하여, 편집에 따라 다양한 이야기가 완성될 수 있음을 이해하고 개연성을 고려하여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 수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다섯 장면 모두를 활용하여 자신만의 이야기를 창작함.	4점	8점
장면이 이어질 수 있도록 개연성 있는 이야기를 창작함.	4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03 장면을 배열하는 순서에 따라 개연성 있게 이야기를 구성하도록 한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의 장면 배열 순서에 맞게 이야기를 구성함.	4점	4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04 편집에 따라 다양한 이야기가 완성될 수 있음을 이해하고 개연성을 고려하여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어 본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제시된 장면을 자신만의 방식대로 나열함.	2점	6점
나열한 순서에 맞게 이야기의 줄거리를 창작함.	4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1 문학을 펼치면

01 시의 목소리(저녁 항구)

개념 확인문제 p.030

01 구두 02 배 03 항구 04 암초

소단원 기출 예상

p.031

01 ⑤ 02 ④ 03 ② 04 ⑤ 05 '바다'는 소금 냄새가 확 풍겨 오고 암초가 존재하는 공간으로 고단한 삶의 현장이자 부모님의 수고로운 현실을 의미하고, '항구'는 밥 냄새가 나는 공간으로 가정이라는 휴식처를 의미한다.

- 01 3연의 '푸른 파도', '소금 냄새' 등에 시각적 심상과 후각적 심상이 나타나 있으나, 이는 화자가 떠올리는 부모님의 삶의 모습과 관련된 것이지 실제 현관 밖 바닷가의 모습을 나타낸 것은 아니다.
- 02 이 시의 화자는 부모님의 구두를 바라보면서 부모님의 수고를 떠올리고 감사함과 애뜻함을 느끼고 있다. 부모님을 생각하는 화자의 모습에서 시 전체적으로 따뜻하고 정감 있는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 03 일을 마치고 돌아온 부모님의 고단한 모습과 부모님의 낡은 구두를 바라보며 애뜻함을 느끼는 화자의 모습으로 보아 화자가 성숙한 태도로 부모님의 수고를 헤아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04 ㉠의 '암초 자국들'은 부모님의 구두에 남은 닳은 자국을 빗대어 표현한 것으로, 부모님이 살아오며 겪은 삶의 고단함과 수고를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05 이 시에서는 아빠와 엄마의 구두를 고기잡이배에 비유하고, 우리 집 현관을 항구로 표현하였다. 바다는 소금 냄새가 풍겨 오고 암초가 존재하는 공간인 데 반하여 항구는 밥 냄새가 풍기고, 배가 돌아와 닻을 내리고 쉬는 공간으로 제시되어 있는 점을 통해 '바다'는 부모님이 고단하게 일하며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의미하고 '항구'는 가족이 함께 모여 쉬는 휴식처를 의미함을 알 수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바다'의 의미를 시의 내용을 근거로 씀.	2점	4점
'항구'의 의미를 시의 내용을 근거로 씀.	2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01 시의 목소리(비린내라뇨!)

개념 확인문제 p.032

01 의인화 02 물고기 03 인간 04 비판

소단원 기출 예상

p.033

01 ⑤ 02 ② 03 ⑤ 04 ② 05 시의 화자를 물고기로 설정한 이유는 독자가 물고기의 관점을 긍정적으로 이해하고, 인간이 아닌 다른 존재의 입장에서 시적 상황을 바라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이다. 물고기로 설정된 화자를 통해 독자는 화자의 생각과 감정을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고, 자기중심적인 사고와 언어 사용을 돌아보며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태도를 지닐 수 있다.

- 01 이 시는 물고기를 의인화하여 인간의 편견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물고기의 외형이나 특징을 과장하여 웃음을 유발하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다.
- 02 이 시의 화자는 '비린내 난다고 하지 마세요', '코 막지 마세요' 등과 같이 단호한 어조로 자신들에 대한 부정적 평가와 편견을 거부하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 03 이 시의 화자는 '물고기'로, 피부 특성에 따른 화장과 다양한 향기를 '비린내'라고 평가하는 인간의 자기중심적 관점과 편견을 비판하고 있다.
- 04 이 시의 화자는 인간이 자신들(물고기)을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하는 점을 비판하며, 대상의 다양한 특성을 함부로 판단하는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대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함을 말하고 있다.
- 05 이 시에서 화자를 물고기로 설정한 까닭은 독자가 다른 존재의 입장에서 시적 상황을 바라봄으로써 화자의 생각과 감정을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이 시는 사람들이 흔히 사용하는 '비린내'라는 표현을 물고기의 시선에서 다시 바라보게 하여 독자가 자기중심적인 언어 사용을 반성하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화자를 물고기로 설정한 이유를 설명함.	2점	5점
독자의 생각이나 태도 변화를 중심으로 화자의 특성이 시에 미치는 효과를 씀.	3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한 걸음 더 기출 예상

p.034

01 ⑤ 02 ③ 03 ③ 04 ③ 05 화자는 멀리 떨어져 있는 임이 자신을 잊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산버들을 꺾어 임에게 보내려 한다.

- 01 '산버들'을 매개체로 삼아 떠난 임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표현한 시조로, 이 시조에 화자가 임과 재회하는 장면은 드러나 있지 않다.
- 02 화자는 임에게 '산버들'을 꺾어 보내며 자신의 변함없는 마음을 전하려 하고 있다. 이때 '산버들'은 화자가 임에게 보내고자 하는 것이지 임으로부터 선물받은 것이 아니다.

03 이 시조의 화자는 부재한 입에게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산버들'을 꺾어 보내며 입을 향한 그리움과 사랑을 전하려 하고 있다. ③의 화자 역시 입이 부재한 부정적 시간인 겨울 밤의 한가운데를 잘라 두었다가 입이 오시는 날 밤 굽이굽이 퍼내어 사랑하는 입과 오래도록 함께하고 싶은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Clinic **오답 강의**

- ①의 화자는 자연의 소리에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②의 화자는 자연과 하나가 되어 풍류를 즐기는 삶을 노래하고 있다.
- ④의 화자는 가을 달밤의 풍류와 정취를 노래하고 있다.
- ⑤의 화자는 자신의 변함없는 충성심과 굳은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04 '산버들'은 떨어져 있는 입에게 화자의 마음을 전하기 위한 매개물로, 입을 향한 애절한 사랑과 그리움을 드러낸다.

05 이 시조에서 화자가 산버들을 꺾어 입에게 보내어 '주무시는 창밖에 심어 두고' 보라고 하는 것은 입이 산버들을 가까이 두고 자신을 떠올리며 잊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화자가 산버들을 꺾어 보내는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씀.	3점	3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02 이야기 속 시선(축구공과 응원봉)

개념 확인문제 p.035

01 성장 **02** 나 **03** 축구공 **04** 응원봉

소단원 **기출 예상**

p.036~037

01 ② **02** ③ **03** 이야기 속 등장인물이자 주인공인 '나'가 자신의 생각과 속마음을 전달하고 있으므로 1인칭 주인공 시점이다. 이러한 시점으로 서술하면 주인공의 생각과 감정을 직접 드러내어 인물의 내면을 생생하게 보여 줄 수 있다. **04** ③ **05** ② **06** ③ **07** ① **08** '나'는 좋아하는 것을 묻는 질문에 '그런 거 없다'라고 생각하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 반면 '송미단'은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하며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다.

01 이 소설은 이야기 속 등장인물이자 주인공인 '나'가 자신의 경험을 직접 이야기하는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서술되어 있다.

02 '나'는 윤현재와 송미단이 자신의 의견을 내놓으며 대립하는 동안 그들을 살피기만 했을 뿐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03 ㉠에서 '나'는 송미단의 감정을 직접 추측하며 서술하고 있다. 이처럼 '나'가 주인공으로 등장해 자신의 생각과 속마음을 표현하는 것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의 특징이다. 이 시점은 주인공의 내면을 깊이 있게 드러내고, 이야기에 몰입감을 줄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시점을 바르게 밝혀 씀.	2점	5점
시점의 효과를 바르게 씀.	3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04 '나'는 얼마 전까지 축구부원이었지만 부상 때문에 좋아하는 축구를 할 수 없게 된 상황이다. ㉠에서 '나'가 축구부의 훈련 모습을 보지 않으려고 애쓰는 이유는 축구에 대한 미련과 아쉬움 때문이다.

05 (나)에서 '나'가 축구를 그만두었던 과거를 회상하고 있을 뿐, 제시된 부분에 '나'가 송미단에게 축구를 그만둔 이유를 이야기하는 장면은 나타나지 않는다.

06 '나'는 부상으로 축구를 그만두고 축구와 관련된 물건을 찾아 버리면서도 처음으로 산 '축구공'은 버리지 못했다. '축구공'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축구공'은 '나'가 소중한 게 여기는 가치를 의미함을 알 수 있다.

07 송미단은 자신이 좋아하는 가수의 음악을 들으며 고개를 기울인 채 미소 짓고 있다. 또한, '음악에 기대고 있'다는 표현을 통해, 송미단이 음악을 들으며 심리적 위안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8 '나'는 송미단이 "너는 좋아하는 거 없어?"라고 물어도 '그런 거 없다'라고 생각하며 고개를 흔들고 흥미나 의욕이 없는 태도를 보인다. 반면 송미단은 바준의 노래에 대해 끊임없이 설명하며,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데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 대한 '나'의 태도를 밝혀 씀.	2점	4점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 대한 '송미단'의 태도를 밝혀 씀.	2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한 걸음 더 기출 예상

p.038

01 ⑤ **02** ① **03** ④ **04** 순수한 어린아이의 시선을 따라 인물들의 심리를 추측하며 이야기에 몰입할 수 있다.

01 ⑤는 1인칭 주인공 시점에 대한 설명이다. 이 소설은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주요 서사의 중심 인물은 사랑손님인 '아저씨'와 옥희의 '어머니'이다. '사랑손님과 어머니 사이의 연정'이라는 주제를 1인칭 관찰자인 '옥희'를 통해 드러내고 있으므로 서술자인 옥희가 자신의 눈에 비친 다른 인물(주인공)의 이야기를 전달할 수는 있지만 주인공의 내면 심리까지 서술하지는 못한다.

Clinic **오답 강의**

② 이 소설은 서술자인 '나'가 구어체를 사용하여 독자에게 이야기를 직접 들려주는 듯한 어조로 내용을 전개한다.

02 어머니는 옥희가 아저씨를 귀찮게 할 것을 염려하여 옥희를 붙잡기도 하지만 옥희가 아저씨에게 갈 때에는 머리를 다시 땅아 주거나 저고리를 갈아입혀 주는 등 매무새를 가다듬어 줄 뿐 옥희를 크게 나무라지 않는다.

- 03** 아저씨는 어머니를 향한 자신의 마음이 드러날까 당황하여 분주하다는 핑계를 대며 상황을 피하려 한다. 실제로는 바쁜 일이 없었다는 것이 이후 옥희의 서술에 드러나 있다.
- 04** 이 글은 여섯 살 옥희가 관찰한 내용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어린아이가 서술하기 때문에 어른들의 내면 심리는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으며, 독자는 옥희의 시선을 통해 상황을 간접적으로 추측하며 공감하게 된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1인칭 관찰자 시점의 효과를 씀.	3점	3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대단원 종합 문제

p.039~041

- 01 ③ 02 ③ 03 ⑤ 04** 아빠와 엄마의 구두를 통통배와 뽀족배에 빗댄 것을 볼 때 화자는 순수한 것 같다. / 상상력이 풍부한 것 같다.
- 05 ⑤ 06 ② 07 ① 08** <보기>의 시점은 3인칭 관찰자 시점이다. [A]를 <보기>와 같이 바꾸면 주인공의 내면 심리가 직접 드러나지 않고, 행동과 표정을 통해 간접적으로 전달된다. **09 ④ 10 ④ 11 ④ 12** 어린아이인 '옥희'는 아저씨가 아빠였으면 좋겠다는 자신의 마음을 말하지만, 아저씨가 당황하며 다그치자 실망과 서운함, 부끄러움이 뒤섞여 울음을 터뜨렸다.

01 (가)는 부모님의 구두를 배에 빗대어 표현한 은유법을 사용하여 부모님의 수고를 애뜻하게 여기는 마음을 형상화한 작품이고, (나)는 물고기를 사람처럼 표현한 의인법을 사용하여 상대의 특성을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하는 태도를 비판한 작품이다. 즉 (가), (나) 모두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다.

02 화자는 부모님의 낡은 구두를 오랫동안 바라보며 부모님의 고된 삶을 떠올리고 있다. '배 바닥에 굽힌 암초 자국들'은 화자가 아니라 부모님이 밖에서 수고롭게 일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시어로, 이 시에 화자의 고단한 삶을 상징하는 시어는 나타나지 않는다.

03 이 시는 물고기를 의인화한 1인칭 화자를 내세워 자신들에 대한 차별적 시선을 비판하고 요구 사항을 단호히 전달하고 있다. 화자는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므로 시적 대상과 거리를 유지하거나 관찰자의 입장에서 상황을 전달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04 이 시의 화자는 부모님의 구두를 '고래잡이 통통배'와 '새우잡이 뽀족배'에 비유하고, 현관에서 밀려오는 파도를 상상하는 등 사물을 관찰하며 다양한 상상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표현으로 보아 화자는 순수하고 상상력이 풍부한 인물임을 알 수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①을 통해 알 수 있는 화자의 특성을 적절하게 제시함.	2점	3점
<조건>에 맞추어 씀.	1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05 이 글의 서술자는 '나'이며, 장면에 따라 서술자가 바뀌고 있지 않다.

06 수행 평가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일로 화를 내는 윤현재에 맞서 '나'가 송미단을 변호한 뒤, 송미단은 '나'에게 점차 마음을 열고 '나'를 위한 음악 재생 목록을 만들어 주었다. '나' 역시 '나만의 착각일지 모르겠지만'이라며 송미단의 우호적인 변화를 눈치채고 있으므로, ②와 같은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07 송미단은 '나'를 응원하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응원 봉' 사진을 보내고, "응원한다!"라는 메시지를 함께 전송했다.

08 [A]는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주인공이 곧 서술자이기 때문에 자신의 내면 심리를 서술할 수 있다. 하지만 <보기>는 3인칭 관찰자 시점이므로 인물의 내면을 직접 말하지 않고, 관찰 가능한 행동이나 표정을 통해 심리를 암시한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3인칭 관찰자 시점임을 밝힘.	1점	3점
시점을 바꿨을 때 달라진 점을 적절하게 씀.	2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09 (가)의 말하는 이는 산버들을 꺾어 입에 보내며 자신의 마음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자연물을 자신의 분신처럼 여기는 모습을 보인다. (나)의 말하는 이가 아저씨가 아빠였다면 좋겠다는 바람을 듣고 당황한 아저씨의 모습을 '몹시 성이 난 것처럼 보'였다고 서술한 것으로 보아, 아저씨의 본심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10 화자는 산버들을 꺾어 입에 보내며 자신의 사랑을 간접하면서도 조심스럽게 전하고 있다.

11 이 소설은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이야기 속 서술자인 옥희가 자신의 입장에서 어머니와 아저씨의 행동과 심리를 판단하고 있다.

12 과부의 재혼을 바라보는 시선이 긍정적이지 않던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옥희의 바람을 듣고 당황한 아저씨는 "그런 소리 하면 못써."라며 다그친다. 이에 옥희는 아저씨가 화가 난 것 같다고 오해하며 실망과 서운함, 부끄러움 등을 느껴 울음을 터뜨리게 되었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옥희의 복합적인 마음을 적절하게 씀.	3점	3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핵심 마무리 체크

p.042~043

- 01** 현관 **02** 대조 **03** 나 **04** 암초 **05** 인간 **06** 편견
07 물고기 **08** 비린내 **09** 수행 평가 **10** 무기력 **11** 주인공
12 심리 **13** 동질감 **14** 소중 **15** 응원 **16** 우정

2 소통으로 여는 세상

01 공감하고 존중하며 대화하기

개념 확인문제 p.044

01 공감 02 비언어적 03 원인 04 주관적 05 인간관계

소단원 기출 예상

p.045~046

01 ③ 02 ⑤ 03 ④ 04 · 상대의 생각과 감정을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 ·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다. 05 ① 06 ⑤ 07 ③ 08 · 말하기 방법: 동우는 상대의 생각, 감정, 욕구를 이해하고 상대의 의견과 감정을 존중하며 말하고 있다. · 효과: 갈등을 합리적이고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다. / 상대와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다.

- 01 ③은 상대의 말을 경청하기보다 자신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대화를 이끄는 방식으로, 경청하고 공감하는 대화와는 거리가 멀다. 경청하고 공감하는 대화에서는 상대의 말에 집중하고, 상대가 자신의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 02 인우는 미나의 입장을 존중하며 공감하고 배려하는 태도로 말하고 있다. 자신의 해석이나 판단을 근거로 상대의 결정을 바꾸려 설득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 03 제시된 대화에서는 인우가 공감적 태도로 미나의 고민을 들어주고 있으며, 인우는 미나와 함께 대화하며 미나의 입장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인우의 상황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었다는 반응은 미나가 한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다.
- 04 경청하고 공감하는 태도로 대화하면,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으며 상대의 상황과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볼 수 있다. 또한 상대의 생각과 감정을 깊이 이해하고 포용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으며,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정리하고 문제를 객관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다. 더불어 듣기·말하기 활동에 협력적으로 참여하면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도 찾을 수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경청하고 공감하는 대화의 효과를 적절하게 씀.	각 2점	4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 05 갈등을 조정하려면 대화를 통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함께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갈등 상황에서 대화를 피하면 오히려 갈등을 증폭하고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
- 06 동우와 재혁이는 상대를 배려하지 못한 자신의 태도를 돌아보고 함께 해결 방법을 찾아보기로 했다. (나)에 동우와 재혁이가 서로의 잘못을 논리적으로 분석한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07 ㉠에서 재혁이는 동우의 의도를 주관적으로 해석한 내용을 언급하며 갈등을 악화시킬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질문의 형식을 활용한 것은 맞지만 재혁이가 동우에게 자신의 요구를 전달한 것은 아니다.

08 ㉡에서 동우는 재혁이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음을 밝히며 재혁이의 입장을 헤아리고 존중하며 말하고 있다. 이렇게 갈등을 조정하는 대화 방법을 활용하여 대화하면 갈등을 원만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상대와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동우의 말하기 방법을 적절하게 씀.	2점	4점
갈등을 조정하는 대화 방법의 효과를 한 가지 이상 적절하게 씀.	2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한 걸음 더 기출 예상

p.047

01 ② 02 · 민규의 상황이나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 · 민규를 비난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03 ④ 04 ②

- 01 아빠는 민규가 친구와 다툰 이유를 물으며 답답한 마음에 민규를 다그치고 있다. 이 글에 아빠가 민규가 친구와 다툰 이유를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있다고 볼 만한 근거는 나타나지 않는다.
- 02 아빠는 친구와 싸우게 된 민규의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민규를 비난하는 표현으로 갈등을 악화시켰다. 따라서 민규와 원만하게 대화하기 위해서는 민규의 상황이나 입장을 고려하고, 민규를 비난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으려는 태도가 필요하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민규의 상황이나 입장을 고려하는 태도'를 밝혀 씀.	2점	4점
'비난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 태도'를 밝혀 씀.	2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 03 민규는 친구와 다툰 사건과 관련한 자신의 상황과 감정을 터놓지 않고 대화를 단절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이를 고려할 때 민규에게 ④와 같이 조언하는 것이 적절하다.
- 04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감정을 자극하는 말보다는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고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며 차분히 대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02 피동 표현과 인용 표현 활용하기

개념 확인문제 p.048

01 피동 표현 02 접미사 03 간접 04 조사 05 현장감

01 ④ 02 ⑤ 03 ⑤ 04 ① 05 • 피동 표현: 찢어졌어요 • 효과: 종이를 찢은 주체를 드러내지 않아 동작이나 행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 06 ⑤ 07 ⑤ 08 ③ 09 ③ 10 ③ 11 ⑤ 12 직접 인용 표현, 직접 인용 표현을 사용하면 다른 사람의 말을 그대로 옮겨 내용을 생동감과 현장감 있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01 ④는 주체인 '나'가 자기 힘으로 수학 문제를 풀었음을 나타내는 문장으로, 피동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다. 이때 '풀었다'는 능동을 나타내는 동사 '풀다'에 이야기하는 시점에서 볼 때 사건이나 행위가 이미 일어났음을 나타내는 어미 '-었-'이 결합한 형태이다.

Clinic 오답 강의

①은 '겉다 + 접미사 -리-', ②는 '시작 + 접미사 -되다', ③은 '쓰다 + -어지다', ⑤는 '채택 + 접미사 -되다'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피동 표현이다.

02 ⑤는 주어가 동작을 제힘으로 하는 것을 나타내는 능동 표현, 나머지는 모두 주어가 다른 대상에게 동작이나 행위를 당하는 것을 나타내는 피동 표현이 사용된 문장이다.

03 ①은 밝는 행위의 주체인 '다람쥐'를 강조한 능동문이고, ②는 밝는 행위를 당하는 대상인 '사자'를 강조한 피동문으로, 행위의 주체를 강조한 문장은 ①뿐이다. 능동 표현을 사용하면 동작이나 행위의 주체를 강조할 수 있고, 피동 표현을 사용하면 동작이나 행위를 당하는 대상을 강조할 수 있다.

04 피동 표현은 주어가 다른 대상에게 동작이나 행위를 당하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①의 '내가 방 안을 밝혔다.'는 주어인 '내'가 방 안을 밝게 만들었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문장으로, ①은 능동 표현을 피동 표현으로 바꾼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다.

05 '찢어졌어요'는 '찢다'에 '-어지다'가 붙은 피동 표현으로, 학생은 "종이가 찢어졌어요."라고 말하여 종이를 찢은 행위의 주체를 밝히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이 피동 표현을 사용하면 동작이나 행위를 한 주체를 감추어 책임을 회피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피동 표현을 찾아 씀.	1점	3점
피동 표현을 사용하여 얻을 수 있는 효과를 밝혀 씀.	2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06 제시된 상황에서는 '향후 경기가 빠르게 회복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주체를 감추어서 보도 내용이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일반적인 의견이라는 느낌을 주고 있다. 이와 같이 뉴스나 신문 기사에서는 전하는 내용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판단의 주체를 감추는 피동 표현을 사용하기도 한다.

07 직접 인용 표현을 간접 인용 표현으로 바꿀 때에는 높임 표현과 시간 표현, 지시 표현 등을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바꾸어야 한다. 예를 들어 직접 인용문 '어제 진수는 "내일 학교에서 만나

자.'라고 말했다.'를 간접 인용문으로 바꾸면 '어제 진수는 오늘 학교에서 만나자고 말했다.'와 같이 시간 표현이 달라진다.

08 말하는 상황을 생동감 있게 전달한다는 점은 직접 인용 표현의 효과에 해당한다.

09 ㉠과 ㉡은 말하는 사람인 '엄마'와 '동생'의 말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옮긴 간접 인용 표현이고, ㉠과 ㉡은 큰 따옴표(" ")를 사용하여 '나'와 '민희'의 말을 직접 인용한 표현이다.

10 ㉠은 직접 인용 표현, ㉡은 간접 인용 표현이다. ㉠을 ㉡으로 바꾸면 말하는 이의 입장에서 내용을 요약하거나 간결하게 표현하는 등 말하는 사람의 상황이나 의도에 맞게 적절히 표현할 수 있다.

11 ⑤는 간접 인용 표현으로, 인용 조사 '라고'가 아니라 '고'를 사용해야 한다. 따라서 '순희가 자기 집 바둑이가 새끼를 여러 마리 낳았다고 나에게 말했다.'로 써야 자연스럽다.

12 큰따옴표를 사용하여 말한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은 직접 인용 표현이며, 직접 인용 표현을 사용하면 내용을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어 생동감과 현장감 있는 보도가 가능하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인용 표현의 유형을 정확히 밝힘.	1점	3점
이러한 인용 표현이 뉴스 보도에서 쓰이는 이유를 씀.	2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01 ③ 02 ④ 03 ② 04 • 고친 문장: 그 문제는 어려워져 풀리지 않았다. • 고쳐 쓴 이유: '풀려지지는' '풀다'의 이중 피동 표현이므로 '풀리다'와 같이 피동 접미사를 한 번만 덧붙이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01 ③은 '내 책'이 다른 책과 섞인 상태를 나타내려고 '두 가지 이상의 것이 한데 합쳐지다.'를 뜻하는 피동사 '섞이다'를 쓴 것이므로 피동 표현이 바르게 쓰였다.

Clinic 오답 강의

①의 '쓰여졌다'는 '쓰였다'로, ②의 '잡겨진'은 '잡긴'으로, ④의 '잊혀지지는' '잊히지'로, ⑤의 '확산됐다'는 '확산했다'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02 '짜여졌다'는 동사 '짜다'에 피동 접미사 '-이-'와 '-어지다'가 붙은 이중 피동 표현이다.

03 ㉠과 달리 ㉡는 능동 표현을 사용할 수 있음에도 피동 접미사 '-되다'를 덧붙여 불필요한 피동 표현을 사용한 문장이다.

04 '풀려지다'는 능동을 나타내는 동사 '풀다'에 피동 접미사 '-리-'와 '-어지다'가 결합된 이중 피동 표현으로, 피동 표현을 잘못 사용한 사례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중 피동을 피하고 '풀리다'처럼 피동 접미사를 한 번만 덧붙여 사용하는 것이 문법적으로 바르고 자연스럽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이중 피동 표현을 바르게 고침.	1점	3점
고친 이유로 '이중 피동 표현'임을 밝혀 씀.	2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대단원 종합 문제

p.052~055

01 ③ 02 ② 03 ⑤ 04 기말고사가 얼마 남지 않아서 기타 학원에 다니는 게 쉽지 않겠다고 걱정하시는 거죠? 엄마께서 걱정하시는 바를 충분히 이해해요. 엄마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기타 연습 시간을 잘 조절하고 공부도 더 열심히 할게요. 05 ④ 06 ④ 07 ④ 08 자신의 상황이나 입장, 감정을 진솔하게 표현하지 않고 상대와의 대화를 단절하는 표현을 사용하여 갈등을 악화시켰다. 09 ② 10 ⑤ 11 ③ 12 ㉠의 '경찰이'가 ㉡의 '경찰에게'로 바뀌었고, ㉠의 '범인'이 ㉡의 '범인'으로 바뀌었다. 또한, ㉠의 '체포했다'가 ㉡의 '체포됐다'로 바뀌었다. 13 ③ 14 ① 15 ⑤ 16 ④ 17 ① 18 • 고친 문장: 이곳의 지명은 식물의 이름에서 유래하였다. • 고쳐 쓴 이유: '유래하다'는 '사물이나 일이 생겨나다.'라는 의미를 지닌 동사로 피동 표현보다는 능동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게 때문이다.

- 01 미나는 인우와 대화하며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찾았을 뿐, 바로 엄마와의 갈등을 해결한 것은 아니다.
- 02 경청하고 공감하는 대화는 상대의 말을 귀 기울여 듣고, 상대의 감정과 입장에 공감하는 반응을 하는 대화이다.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하여 상대를 설득하는 것은 이러한 대화의 성격이나 효과와는 거리가 멀다.
- 03 ㉠에서 인우는 미나에게 질문을 던지며 미나가 자신의 상황과 입장을 계속하여 이야기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있다.

Clinic **오답 강의**

- ① ㉠에서 인우가 미나의 말에 동의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④ 말의 속도나 어조, 목소리의 크기 등 언어적 표현에 더하여 의미를 전달하는 요소인 준언어적 표현은 ㉠에서 확인하기 어렵다.

04 [A]에서 미나는 인우의 조언을 듣고 엄마께 기타 치는 시간을 잘 조절하고 공부도 더 열심히 하겠다고 말씀드릴 것을 결심하고 있다. 또한 ㉠에서 인우는 상대의 말을 요약·재진술하며 공감을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미나도 엄마가 걱정하는 바를 요약하며 공감한 뒤, 자신의 바람을 부드럽게 덧붙이는 것이 효과적이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A]의 내용을 고려하여 씀.	2점	4점
㉠에 나타난 대화 방법을 사용하여 씀	2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05 (가)에서 재혁이는 미술 대회 때문에 농구 연습을 빠지는 동우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했고, 동우는 농구 연습 때문에 걱정하는 재혁이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해 갈등이 발생했다. 또한

(나)에서 아빠는 친구와 싸운 이유를 차마 말하지 못하는 민규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했고, 민규는 자신이 싸운 이유를 궁금해하는 아빠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해 갈등이 발생했다.

- 06 갈등을 조정하는 대화를 할 때에는 자신과 상대의 생각과 감정, 욕구를 파악하고 이를 진솔하게 표현해야 한다. 상대의 생각과 감정, 욕구를 존중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자신의 감정을 짓누른 채 상대의 감정을 우선시하는 것은 상호 간의 갈등을 원만히 조정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 07 ㉠은 상대방 말을 요약하여 재진술하는 말이 아니라, 상대의 책임을 강조하며 자신의 불만을 드러내는 말이다.
- 08 민규는 ㉠에서 아빠에게 친구와 다툰 이유를 말할 수 없는 자기 상황과 감정을 숨긴 채, '모르면 좀 가만히 있어요.'와 같이 대화를 단절하는 표현을 사용하여 갈등을 악화시키고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자신의 생각과 감정, 욕구를 진솔하게 표현하지 않았음을 씀.	2점	4점
상대와의 대화를 단절하는 표현을 사용하였음을 씀.	2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 09 능동문을 피동문으로 바꾸면 능동문의 주어가 피동문의 부사어가 된다.
- 10 손님은 '덜 정리되었네요.'와 같이 피동 표현을 사용해 탁자가 정리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완곡하고 간접적인 방식으로 전달하고 있다. 이는 행위의 주체를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듣는 이(종업원)의 부담을 덜어 주려는 표현 전략이다.
- 11 <보기>의 문장에는 행위를 한 주체 '나'가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다.
- 12 능동 표현의 주어는 피동 표현의 부사어로, 능동 표현의 목적어는 피동 표현의 주어로 바뀐다. 또한, 명사 '체포' 뒤에 접미사 '-되다'가 붙은 형태의 서술어가 사용되어 피동 표현으로 바뀌었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의 능동 표현을 ㉡의 피동 표현으로 바꿔 쓸 때 바뀌는 내용을 씀.	각 1점	3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13 직접 인용 표현을 간접 인용 표현으로 바꾸면 인용 부호를 사용하지 않고 인용 조사 '라고' 대신 '고'를 사용하며 말하는 이의 상황과 의도에 맞게 적절히 표현할 수 있다. 하지만 이때 전하는 내용 자체는 달라지지 않는다.

14 ㉠은 직접 인용문, ㉡은 간접 인용문이다. 직접 인용 표현을 사용하면 말하는 내용을 생생하고 현장감 있게 전달하는 효과가 있다.

Clinic **오답 강의**

- ⑤ 전하는 이의 상황과 의도에 맞게 내용을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은 ㉠과 같은 간접 인용 표현에만 해당하는 설명이다.

15 이 뉴스 보도에서는 관계자의 말을 직접 인용하여 걱정 속에서도 성공적으로 축제를 마무리한 것과 관련한 감사한 감정을 생동감 있게 전달하고 있다.

16 이 글에 따르면 '발생되다'는 능동 표현인 '발생하다'라고 써도 충분하므로, ④는 '하루 사이 환자가 백여 명 발생했다.'로 고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17 ①의 '밝혀졌다'는 '드러나지 않거나 알려지지 않은 사실, 내용, 생각 등을 드러내 알리다.'를 의미하는 동사 '밝히다'에 '-어지다'가 결합한 형태로, 이중 피동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다.

Clinic **오답 강의**

- ② '놓여지다'는 접미사 '-이-'가 붙어 피동 표현이 된 '놓이다'에 '-어지다'가 붙어 이중 피동이 된 형태이다.
- ③ '밀겨지다'는 접미사 '-기-'가 붙어 피동 표현이 된 '밀기다'에 '-어지다'가 붙어 이중 피동이 된 형태이다.
- ④ '쓰여지다'는 접미사 '-이-'가 붙어 피동 표현이 된 '쓰이다'에 '-어지다'가 붙어 이중 피동이 된 형태이다.
- ⑤ '덮여지다'는 접미사 '-이-'가 붙어 피동 표현이 된 '덮이다'에 '-어지다'가 붙어 이중 피동이 된 형태이다.

18 '유래하다'는 '사물이나 일이 생겨나다.'라는 의미를 지닌 동사로, 이 글에 따르면 피동 표현보다는 능동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따라서 피동 표현 '유래되었다'를 능동 표현 '유래하였다'로 고쳐 쓰는 것이 적절하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어색한 피동 표현을 고쳐 씀.	1점	3점
단어의 의미를 고려하여 부자연스러운 이유를 밝힘.	2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핵심 **마무리 체크**

p.056~057

- 01 재진술 02 객관적 03 격려 04 욕구 05 해결 06 주관적
- 07 회피 08 대상 09 동사 10 주체 11 언어 12 고 13 현장감
- 14 의도

3 나와 세상의 연결 고리

01 점검·조정하며 글 읽기

개념 확인문제 p.058

- 01 목적 02 예측 03 사전 04 성찰

소단원 **기출 예상**

p.059~061

01 ④ 02 ① 03 ② 04 연재는 책의 제목, 차례, 내용 등을 살펴보고 읽기 목적, 관심사, 흥미, 수준에 맞는 글을 선정하였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책을 읽기 전에 책의 내용이 자신의 읽기 목적, 관심사나 흥미, 수준에 적합한지 점검할 수 있다. 05 ① 06 ⑤ 07 ① 08 수요와 상관 없이 수량이 적고 귀한 것을 '희귀하다'고 하는데, 10년 동안 쓴 일기장은 세상에 하나뿐이고, 시장에 판매할 수 없으므로 희귀하다고 말할 수 있다. 09 ⑤ 10 ①은 사회적 촉진 현상에 해당한다. ①의 이유는 공부처럼 익숙한 과제를 할 때 타인의 존재가 적당한 긴장감을 유발해 수행 능력을 촉진하기 때문이다. 11 ③

01 연재는 실생활 속에서 활용 가능한 경제 상식과 기본 개념을 익히고자 읽기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02 발행일은 출판물이나 인쇄물을 찍어서 세상에 퍼낸 날짜이다. 머리말은 책의 첫머리에 내용이나 목적 등을 간략하게 적은 글이다. 연재의 읽을 글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책의 발행일을 살펴보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03 연재는 책의 제목과 내용, 차례를 살펴보고 자신의 읽기 목적과 수준, 관심사에 적합한지 확인하고 있을 뿐, 관련 분야의 인기 도서를 중심으로 책을 살펴보지 않았다. 자신의 읽기 목적과 수준, 관심사나 흥미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책의 인기와 유명세를 중심으로 읽을 글을 선정하는 태도는 적절하지 않다.

04 연재는 책의 제목, 차례 등을 살펴보고 글의 수준을 파악하여 자신의 읽기 목적에 적합한 책을 선정했다. 이러한 읽기 전 활동은 글의 내용을 미리 생각해 보도록 하여 자신의 관심사나 흥미에 적합한 책을 선정하는 데 도움을 준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읽기 전 활동을 구체적으로 씀.	2점	4점
활동의 효과를 적절하게 씀.	2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05 이 글은 희소성과 희귀성의 개념 차이를 설명하고, 콘서트 티켓, 다이아몬드, 일기장, 한정판 상품 등 일상 사재를 통해 경제 개념을 알기 쉽게 전달하는 설명문이다. 이 글에 재화의 생산 과정을 중심으로 희소성의 원인을 분석하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06 이 글의 제목은 '콘서트 티켓이 비싼 까닭'이고, (가)는 '희소하다'의 의미를 밝힌 부분이다. 제목과 (가)의 내용을 보고 독자는 이 글에서 콘서트 티켓이 비싼 이유를 희소성과 관련지어 설명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07 목차를 확인해 보고 원하는 글을 찾아 읽으려고 생각하는 것은 '읽기 전'에 할 수 있는 활동이다.

08 '희귀하다'는 수요와 관계없이 수량이 적고 귀한 것을 뜻한다. ㉠(10년 동안 쓴 일기장)은 세상에 하나뿐이지만 시장에서 사 고팔 수 없어 수요와 무관하므로 '희소하다'가 아니라 '희귀하다'고 할 수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희귀하다'의 의미를 씀.	1점	3점
본문을 바탕으로 일기장이 희귀한 이유를 적절하게 씀.	2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09 이 글의 내용에 따르면, 타인의 존재는 긴장감을 높여 익숙하거나 잘하는 과제를 더욱 잘하게끔 하는 동력이 되지만 익숙하지 않은 과제를 할 때에는 오히려 능력을 낮춘다. 따라서 ㉡은 이 글과 메모의 내용을 잘못 이해한 반응이다.

10 로버트 자이온츠의 사회적 촉진 이론에 따르면 사회적 촉진은 익숙한 과제, 타인의 존재라는 두 조건이 갖춰질 때 나타난다. 공부하는 익숙한 과제에 해당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는 환경은 타인의 존재에 해당하므로, ㉢은 타인이 곁에 있어서 수행 능력이 높아지는 사회적 촉진 현상의 예이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이 사회적 촉진 현상에 해당함을 밝힘.	1점	3점
로버트 자이온츠의 이론을 바탕으로 익숙한 과제, 타인의 존재가 수행 능력을 촉진함을 씀.	2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11 사회적 촉진 이론에 따르면, 타인이 곁에 있을 때 적당한 긴장이 유발되며, 이는 익숙한 과제를 수행할 때 집중력을 높여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

한 걸음 더 기출 예상 p.062

01 ㉢ 02 ㉡ 03 ㉤ 04 책 선정 점검표를 활용하면 읽기 목적, 흥미, 배경지식, 수준, 분량, 관련성 등 다양한 기준을 점검하여 자신의 독서 목적에 맞는 책을 찾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01 (가)~(다)의 활동은 자신의 읽기 목적, 흥미, 수준 등에 맞는 책을 고르기 위한 읽기 전 활동이다.

02 읽을 책을 선정할 때 '책의 출판 연도'를 참고할 수는 있지만, 이는 (나)의 점검표에 명시된 기준은 아니다.

03 (다)의 '고른 까닭'으로 보아, 학생은 자신의 흥미('나는 평소 미술 작품에 관심이 많은데,')와 배경지식('배경지식이 많지는 않은 편이다.'). 책의 서술 방식과 내용의 수준('이 책은 다양한 미술 작품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서 해설해 주고 있어서') 등을 중심으로 읽을 책을 선정했다. (다)에서 책의 두께와 가격과 관련된 내용은 찾을 수 없다.

04 책 선정 점검표는 자기 주도적 독서 준비를 돕는 도구로, 읽기 목적에 맞는지, 자신의 수준에 적절한지, 흥미와 배경지식이 있는지, 책의 분량은 적당한지, 자신의 삶과 관련지을 수 있는지 등 다양한 선정 기준을 점검함으로써 읽기 목적에 부합하는 책을 선정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책 선정 점검표를 활용하여 책 선정에 필요한 다양한 기준을 점검할 수 있음을 씀.	2점	4점
책 선정 점검표를 활용하여 독서 목적에 맞는 책을 고를 수 있음을 씀.	2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02 설명하는 글 쓰기

개념 확인 문제 p.063

01 분석 02 정의 03 개요 04 구조

소단원 기출 예상

p.064~065

01 ㉤ 02 ㉢ 03 ㉣ 04 · 설명 방법: 인과 · 효과: 수프가 섞인 물이 끓는점이 높기 때문에 더 높은 온도에서 면발이 익고, 이에 따라 면발이 쫄깃해진다. 내용을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는다. 05 ㉢ 06 ㉣ 07 ㉤

01 (가)는 계획하기, (나)는 자료 수집하기 단계로,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문단별 중심 내용을 정리하는 것은 개요 쓰기 단계, 즉 자료를 수집한 뒤 내용을 조직하는 단계에서 해야 하는 활동이다.

02 '자료 3'은 라면의 영양 성분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다. 동빈이는 '자료 3'을 활용해서 친구들이 잘 모르는 내용을 소개하려 한 것이지만 라면과 관련된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고자 한 것은 아니다.

03 (나)에서 동빈이는 '자료 3'을 활용하여 친구들이 잘 모를 만한 내용인 라면의 영양 성분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고자 계획하고 있으며, (다)의 개요 '중간 3'에 '라면의 영양 성분 분석'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삭제해야겠다는 ㉣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04 ㉠에서는 '수프가 섞이면 끓는점이 올라간다. → 더 높은 온도에서 면이 익는다. → 익히는 시간이 줄어든다. → 면발이 쫄깃해진다.'와 같이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이는 논리적 흐름에 따라 내용을 전개하여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독자의 내용 이해를 돕는 효과가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설명 방법을 정확히 제시함.	1점	3점
설명 방법의 효과를 적절하게 설명함.	2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 05** 일화란 세상에 널리 알려지지 아니한 흥미 있는 이야기를 말한다. 이 글에 라면과 관련된 재미있는 일화는 나타나지 않는다.
- 06** [A]와 달리 <보기>는 마지막 부분에 '지금부터 알려 드리겠습니다.'라는 문장을 추가했다. <보기>에서는 이를 통해 글에서 다룰 내용을 미리 안내함으로써 독자가 앞으로 전개될 내용을 예측하고 글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 07** ㉠에서는 독자가 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앞부분과 내용이 달라지는 부분에서 문단을 나누었다. ㉡에서는 문단의 중심 내용과 관련이 적은 문장을 삭제했다. ㉢에서는 '있을 것 같습니다.'라는 모호한 표현을 명확한 표현으로 고쳐 썼다.

한 걸음 더 기출 예상 p.066

01 우리 반 학생들은 조회 시간마다 꾸준히 책을 읽기 때문에 독서 능력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02** ③ **03** ③ **04** ㉠ 예시 ㉡ 인과

01 인과는 대상을 원인과 결과 중심으로 설명하는 방법이다. (가)의 '조회 시간마다 책을 읽음. → 독서 능력이 향상됨.'에서 '조회 시간마다 책을 읽음.'은 원인, '독서 능력이 향상됨.'은 결과에 해당하므로, 인과의 방법을 활용하여 설명하기에 적절하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가)에서 인과의 방법을 활용하기에 적절한 내용을 고름.	1점	4점
인과의 방법을 활용하여 ㉡에 들어갈 문장을 마련함.	2점	
한 문장으로 작성함.	1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 02** ㉠에 들어갈 내용은 비교와 대조, ㉡에 들어갈 내용은 분석의 방법을 활용한 예문이다. 비교와 대조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방법이고, 분석은 대상을 그 구성 요소나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하는 방법이다.
- 03** ③은 대상을 구성 요소나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한 분석의 설명 방법을 사용한 문장이다.
- 04** ㉠에서 '음악, 미술, 체육'은 '예체능 과목'의 구체적인 예이므로 ㉠에는 예시의 설명 방법이 사용되었다. ㉡에서 '체육을 잘 하는 학생이 많아서'는 원인, '체육 대회에서 일 등을 차지한'은 결과이므로 ㉡에는 인과의 설명 방법이 사용되었다.

대단원 종합 문제 p.067~069

01 ② **02** ③ **03** ② **04** 깨끗한 물을 원하는 사람은 많은데 물이 오염되었기 때문에 이를 얻기 어려워 물이 희소한 것으로 여겨지면서 돈을 내고 깨끗한 물을 사게 되는 것이다. **05** ② **06** ⑤ **07** 복잡한 과제나 아직 익숙하지 않은 과제를 수행할 때에는 타인의 존재가 오히려 방해가 되어 수행 능력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조용한 장소에서 혼자 연습하며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효과적이다. **08** ② **09** ② **10** ⑤ **11** ④ **12** 수프를 먼저 넣고 물을 끓이면 끓는점이 높아지는데, 이렇게 높은 온도에서 면을 익히면 조리 시간이 줄고 면발이 쫄깃해진다.

- 01** 이 글은 '희소하다'와 '희귀하다'의 개념을 정의하고, 대조의 방법으로 그 차이를 설명하고 있다. 또한 '희소성'의 개념을 명확히 정리하고 콘서트 티켓 가격, 돌맹이의 가격과 같은 구체적인 예를 제시하며 물건의 가격과 희소성의 관계를 밝히고 있다. 이 글에 자원 절약과 관련된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 02** (가)에 따르면 '희귀하다'는 수요와 상관없이 수량이 적고 귀한 것이다. '길거리에 흔하게 있는 돌맹이'는 그 수량보다 가지고 싶어 하는 사람이 더 많은 대상이 아니므로 희소하지도 않고, 수량이 적고 귀한 대상이 아니므로 희귀하지도 않다.
- 03** ㉡(10년 동안 쓴 일기장)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과 상관없이 수량이 적고 소중한 것, 즉 귀한 것이므로 '희귀성'의 예이다.
- 04** (마)는 같은 물건이라도 상황이 달라지면 희소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준다. 예전에는 물을 쉽게 얻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깨끗한 물을 마시고 싶어 하는 사람은 많은 데 비해 깨끗한 물이 줄어들어 구하기 어려워졌다. 이렇게 구하기 어렵고 원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 물건은 희소한 것으로 여겨지고, 사람들은 돈을 내고라도 이를 구하려고 한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의 이유를 '희소성'과 관련지어 설명함.	3점	4점
<조건>에 맞추어 씀.	1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 05** 노먼 트리플렛이 처음 밝혀낸 사회적 촉진 현상의 내용은 타인의 존재가 수행을 촉진한다는 점이다. (나)에 따르면 자존감은 수행을 촉진하는 요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 06** 단어의 의미를 알고 있어야 문장과 문단, 더 나아가 글의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글을 읽는 중 모르는 단어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서 그 뜻을 찾아보며 읽는 태도가 바람직하다.
- 07** '사회적 억제 현상'은 복잡한 과제나 익숙하지 않은 과제를 수행할 때, 타인의 존재가 능률을 떨어뜨리는 현상이다. 따라서 이 개념을 일상생활에 적용하려면, 복잡하거나 도전적인 과제를 수행할 때에는 혼자 조용한 환경에서 집중하는 것이 좋다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서술해야 한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과제의 복잡성을 고려하여 학습 환경을 씀.	2점	4점
타인의 존재가 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씀.	2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08 '세제를 사용하여 세탁'한다는 원인에 따라 '옷에 묻은 얼룩이 지워'지는 결과가 생기는 것이므로, ②는 인과의 설명 방법이 나타난 예문으로 적절하다.

Clinic 오답 강의

①은 분석, ③은 분류와 구분, ④는 비교와 대조, ⑤는 인과의 설명 방법이나 타단 예문이다.

09 (다)에서 라면의 영양 성분을 분석하고 라면을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을 제시하고는 있으나, 이 글에서 짚은 라면 섭취의 문제점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10 이 글은 라면의 정의, 조리법, 영양 성분, 섭취 방법 등을 중심으로 라면과 관련된 색다른 면에서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친구들의 관심을 끌면서도 이러한 내용을 포괄할 수 있는 제목으로는 ⑤가 적절하다.

11 (나)에는 라면의 조리 순서, 조리 방법이 설명되어 있다. (나)에 다양한 종류의 라면을 예를 들어 설명한 방식은 나타나지 않는다.

12 (나)에 따르면, 수프를 먼저 물에 넣으면 물의 끓는점이 높아진다. 이렇게 끓는점이 높아진 물에서 면을 익히면 더 높은 온도에서 조리되어, 익히는 시간이 줄어들고 면발이 더 쫄깃해진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면발이 더 쫄깃해지는 이유를 적절하게 씀.	2점	4점
인과 관계가 드러나게 씀.	2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핵심

마무리 체크

p.070~071

- 01 희소, 희소성, 수요 02 관심 03 수준 04 제목 05 단어, 반박, 예측 06 요약 07 능동적 08 능률 09 원인 10 배경지식 11 대조 12 개요 13 삭제 14 특성

4 표현의 빛깔

01 개성적인 발상과 표현

개념 확인 문제 p.072~073

- 01 반어 02 잊었노라 03 역설 04 모순 05 풍자 06 양반 신분 07 허례허식 08 특권

소단원

기출 예상

p.074~076

- 01 ① 02 ④ 03 ⑤ 04 ⑤ 05 ② 06 전하고자 하는 의도를 실제와 반대되는 말로 나타내는 표현 방법인 반어를 사용하여 표현함으로써 말하는 이의 진심을 강조하고 인상 깊게 전달할 수 있다. / '당신'을 그리워하는 애절한 감정을 효과적으로 드러내어 주제를 강조할 수 있다. 07 ④ 08 ⑤ 09 ③, ⑤ 10 ② 11 '꿈'은 화자가 어려움 속에서도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 주는 원동력을 의미한다. 12 ②, ⑤ 13 ④ 14 ① 15 양반은 환곡을 대신 갚아 주는 조건으로 부자에게 양반 신분을 팔았기 때문에, 평민이 양반을 대하듯 군수에게 예를 갖추었다.

01 '잊었노라'는 '당신'을 잊을 수 없다는 화자의 속마음을 반대로 표현한 구절로, 화자는 '당신'을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으므로 화자가 '당신'을 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02 이 시의 주된 표현 방법은 '반어'로, 이 시는 전하고자 하는 의도를 실제와 반대되는 말로 나타내어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03 첫 행은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이고 마지막 행은 '먼 훗날 그때에 '잊었노라'로 일부 비슷한 시어가 반복되고 있지만, 같은 문장을 반복한 것은 아니다.

04 이 시는 불특정한 미래에 '당신'을 만날 상황을 가정하고 그때에 '잊었노라'라고 말하겠다고 반복하여 표현함으로써 '당신'을 결코 잊을 수 없다는 속마음을 강조하고 있다.

05 ㉠은 반어 표현으로, '당신'을 매우 그리워하여 잊을 수 없다는 속마음을 반대로 표현한 구절이다.

06 ㉡에는 '당신'을 결코 잊을 수 없는 화자의 마음을 '잊었노라'라고 표현하는 반어가 사용되었다. 이를 통해 말하는 이의 진심을 강조하고 인상 깊게 전달할 수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에 사용된 표현 방법이 반어임을 쓰고, 그 개념을 밝힘.	2점	4점
반어를 사용한 효과를 적절하게 씀.	2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07 이 시는 역설 표현을 사용하여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이 시에 화자의 속마음과 반대로 표현한 반어 표현은 나타나지 않는다.

- 08 화자는 먼 길을 계속해서 가고 있는 상황으로 꿈을 동력 삼아 계속 앞으로 나아가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 09 ㉠은 역설 표현으로, 혼자 가고 있지만 꿈이 있기 때문에 나아갈 수 있다는 성찰을 보여 주고 있다. ㉢과 ㉤는 풍자의 효과에 해당한다.
- 10 ‘㉠혼자 가는 게 아니다’는 낙타가 ‘더위도 추위도 목마름도’ 견딜 수 있도록 하는 ‘혹’을 업고 가고 있음을 표현한 것으로, ㉠의 ‘혼자’를 ‘낙타’가 느끼는 외로움을 강조한 표현으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11 ‘낙타’가 ‘혹’ 때문에 나아갈 수 있듯이 화자는 ‘꿈’ 덕분에 ‘아직 멀었지만 / 아직도 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꿈’은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나아가려는 태도를 가능하게 해 주는 원동력으로 볼 수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꿈’의 의미를 적절하게 씀.	2점	4점
화자의 삶의 태도와 꿈의 의미를 연결하여 씀.	2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 12 작가 의식을 대변하는 비판적 인물은 양반의 무능함과 비생산성을 비판하고 있는 ‘아내’이다(㉡). 양반의 소문을 들은 부자가 양반을 찾아가 환곡을 대신 갚아 주겠다고 청한 것이다(㉤).
- 13 가난한 양반이라도 늘 귀한 대접을 받고 말을 타고 다닐 수 있는 것을 볼 때, 가난해도 양반으로서 대접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 14 양반의 ‘아내’는 빛을 갚을 길이 없어 밤낮으로 울기만 하는 양반을 보고 평생 글 읽기만 좋아하더니 생계를 유지하는 데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편잔을 주고 있다. 이 글에서 ‘아내’는 작가 의식을 대변하는 비판적 인물로, ㉠은 ‘아내’의 말을 빌려 무능력한 양반의 모습을 풍자한 구절이다.
- 15 양반은 빛을 갚지 못해 양반 신분을 팔았다. 따라서 ㉠에 나타난 양반의 행동은 자신이 더는 양반이 아님을 인정하고, 군수에게 평민이 하듯 예를 갖추는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양반의 신분 변화를 언급함.	2점	4점
양반이 한 행동의 이유를 적절하게 씀.	2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 **한 걸음 더 기출 예상** p.077

- 01 ㉢ 02 ㉤ 03 ㉠ 04 • 표현 방법: 풍자 • 효과: 공공장소에 쓰레기를 버리는 이기적인 행동을 비교·간접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 01 (다)는 풍자를 활용하여, 공공장소에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들의 잘못된 행동을 간접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 02 (가)는 “요즘 날씨 한번 참 좋네.”라는 반어 표현을 사용하여 폭염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인상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03 (나)는 ‘짱그림’이 ‘아름다운 표현’이라는 역설 표현을 사용하여 현실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은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 ㉡는 ‘아름다운 상처’, ㉢은 ‘사랑을 위하여서는 / 이별이, 이별이 있어야 하네’, ㉤는 ‘짓고 싶어서 다 짓지 않는 것입니다.’에서 겉으로는 모순되어 보이는 표현 안에 진리를 담고 있는 역설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이와 달리 ㉣는 ‘애국가를 경청한다.’라는 반어 표현을 사용하여 권위주의적이고 억압적인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 04 (다)는 ‘이기심 전시회’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공공장소에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사람들의 이기적인 행동을 인상적으로 풍자하고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표현 방법을 밝힘.	1점	4점
표현 효과를 적절하게 서술함.	3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02 영상매체 자료 만들기

개념 확인문제 p.078

- 01 스토리보드 02 배경 03 분위기 04 청각적

소단원 기출 예상

p.079~080

- 01 ㉤ 02 ㉠ 03 ㉤ 04 • 영상 제작과 관련된 전반적인 계획을 세우기 위해 작성한다. • 영상을 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제작하고 주제를 효과적으로 담아내기 위해 작성한다. 05 ㉤ 06 ㉤ 07 시계의 초침 소리를 활용하여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음에도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는 주인공의 상황을 강조하고, 시간이 낭비되는 분위기를 표현하기 위해서이다. 08 ㉠ 09 ㉡
- 01 (가)의 대화에서 학생들의 생활을 바탕으로 하여 친구들의 공감감을 얻을 수 있는 영상을 만들겠다고 하였고, (나)의 기획안에서 ‘시험 기간에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는 학생의 모습’을 풍자하는 것을 주제로 하는 ‘영화’ 형식의 영상을 제작할 것을 보여 주고 있다.
- 02 (가)의 포스터에서 영상 제출 방법(학교 누리집 ‘우리들의 영상’ 게시판에 게시하기)을 확인할 수 있고, 지훈과 다솜, 은진의 대화에서 영상의 형식(영화), 예상 시청자(친구들), 영상 제작 목적(우리의 생활을 생생하게 그려서 친구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영상)을 확인할 수 있다. 역할 분담은 (가)에 나타나지 않는다.

03 (나)는 영상을 제작하기 전에 영상을 기획한 의도와 방향성을 명확하게 하고 전반적인 계획을 세우려고 작성하는 기획안이다. ⑤는 스토리보드와 관련된 내용이다.

04 기획안은 영상을 제작하기에 앞서 영상의 기획 의도와 방향성을 명확히 하고, 영상의 형식과 분량, 제작 일정과 역할 분담 등 전반적인 계획을 세우고자 작성하는 문서이다. 기획안을 작성하면 영상을 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제작하고 주제를 효과적으로 담아낼 수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기획안을 작성하는 이유를 씀.	각 2점	4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05 (가)는 영상을 구성하는 장면을 글과 그림으로 나타낸 스토리보드로, 각 장면의 구성과 시청각 요소를 효과적으로 계획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스토리보드는 간단한 그림으로 충분히 구성 가능하며, 정밀한 묘사나 예술적 완성도는 필요하지 않다.

06 장면 2는 주인공과 카메라의 거리를 멀게 하여 주인공과 도서관 배경을 함께 찍기로 하였으므로, 카메라와 대상 사이의 거리를 멀게 하여 풀 샷으로 촬영하는 기법을 고려한 것이다.

07 시계 초침 소리를 강조하는 효과음은 시간만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부각하여, 시간이 낭비되고 있는 분위기와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는 주인공의 모습을 강조한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사용된 효과음을 구체적으로 언급함.	1점	3점
장면의 상황과 연결하여 효과음을 사용한 이유를 씀.	2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08 (나)에서는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장면 3의 재생 속도를 조절하고 있을 뿐, (나)에 지훈이와 친구들이 장면의 길이를 조절한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09 효과음과 배경 음악은 장면의 내용과 분위기에 적절하게 사용해야 하며, 효과음과 배경 음악을 최대한 많이 사용한다고 좋은 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한 걸음 더 기출 예상 p.081

01 ② 02 ③ 03 같은 장면이라도 어떤 순서로 배열하여 편집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이야기를 만들 수 있다.

01 편집은 '기술적인 것'만이 아니며 '이야기와 인물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탐험하는 것'이라는 내용을 볼 때 ②와 같은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02 이 글에 따르면 서로 아무 관련이 없는 다섯 장면을 ㄱ~ㄴ의 순서로 연달아 이어 편집하면 인물이 살아 움직이고 극적인 사건이 일어난다. 따라서 [A]를 통해 편집을 거치며 극적인 사건이 일어나도록 이야기를 구성할 수 있다는 점을 이끌어 낼 수 있다.

03 ㉠과 ㉡는 동일한 세 장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장면을 배열한 순서에 따라 전혀 다른 이야기로 구성되었다. 이를 통해 같은 장면이라도 그 배열 순서에 따라 이야기의 전개가 달라질 수 있다는 편집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과 ㉡가 동일한 장면을 순서를 달리하여 배열했음을 밝힘.	1점	3점
장면의 배열 순서에 따라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편집의 효과를 씀.	2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대단원 종합 문제

p.082~085

01 ③ 02 ④ 03 ② 04 · 주된 표현 방법: 역설 · 효과: 겉으로는 모순되고 불합리해 보이는 표현을 사용하여 '꿈을 가지고 끊임없이 나아가는 삶의 자세'라는 주제를 강조한다. 05 ④ 06 ② 07 ① 08 양반이 되면 체면과 형식을 지켜야 할 뿐 자신의 기대와 다르게 양반으로서 얻는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09 ③ 10 ② 11 ② 12 풍자를 활용하여 웃음과 공감을 유발하고 시험공부를 하는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도록 하기 위하여 자막의 크기와 색상, 효과음, 영상 재생 속도를 고려했다. 13 ④ 14 ① 15 ④ 16 산만한 분위기를 표현하는 빠르고 불규칙한 리듬의 음악을 삽입하면 대사와 달리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는 주인공의 모습을 우스꽝스럽게 표현하여 영상의 주제를 효과적으로 강조할 수 있다.

01 (가)의 1연 '내 말이'에서, (나)의 4연 '나'에서 작품 표면에 화자 '나'가 드러나 있음을 알 수 있다.

Clinic 오답 강의

(가)는 '당신'이 '나'를 찾는 미래의 상황을 가정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을 뿐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이 나타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①). (가)와 (나) 모두 공간의 이동은 나타나지 않는다(②). 모순된 표현을 활용한 역설 표현으로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는 것은 (나)에만 해당한다. (가)에는 반어 표현이 쓰였다(④). (가)와 (나) 모두 무생물에 인격을 부여한 표현은 나타나지 않는다(⑤).

02 (나)의 '혼자 가는 게 아니다'는 역설 표현으로, 타인과의 연대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꿈'을 지니고 나아가기 때문에 혼자가 아니라는 의미를 강조한 것이다.

03 ㉠의 '잊었노라'는 표면적으로는 '당신'을 잊었다는 의미이지만, 이면적으로는 오랜 시간이 지나도 결코 '당신'을 잊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반어 표현이다.

04 (나)는 1연 '낙타는 혼자 갈 때도 / 혼자 가는 게 아니다'와 4연 '나도 혼자 가지만 / 혼자 가는 게 아니다'에서 역설 표현을 사용하여 참신한 느낌을 주고 작품의 주제를 강조하여 전달하고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나)에 사용된 표현 방법을 밝힘.	1점	3점
그러한 표현 방법의 효과를 적절하게 씀.	2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05 (가)에서는 양반이라는 신분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체면과 형식을 중시하는 비생산적인 양반의 모습을, (나)에서는 신분을 이용하여 횡포를 부리는 양반의 모습을 우스꽝스럽게 드러내어 비판하고 있다.

06 이 글은 허례허식에 얽매어 있고 비생산적인 양반의 모습을 풍자하고 있다. 첫 번째 양반 매매 증서의 '매일 새벽에 일어나 등잔을 켜고서《동래박의》를 줄줄 외워야 한다.'는 걸치례에 얽매인 양반의 모습을 나타낸 구절로, 학문에 정진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 아니다.

07 [A]에는 하인들의 수발을 받아 편안히 생활하며 기생들과 노닥거리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는 양반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 '무위도식(無爲徒食)'은 하는 일 없이 놀고먹음을 의미하는 사자성어로, [A]에 나타난 양반의 상황을 나타내기 위해 적절하다.

08 부자는 양반이 되면 신분이 상승하여 경제적·사회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기대했지만, 첫 번째 증서에서는 양반으로서 지켜야 할 덕목과 행실만이 강조되어 자신이 기대한 보상이 없다고 느껴 불만을 드러낸 것이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과 같이 말한 이유를 적절하게 씀.	2점	3점
첫 번째 증서에 나타난 양반의 모습이 드러남.	1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09 (가)는 영상을 제작하기 전에 영상의 기획 의도와 방향성을 명확하게 하고 전반적인 계획을 세우려고 작성한 기획안이다. (가)에 영상에서 활용할 촬영 기법과 편집 기법은 나타나지 않는다.

10 (나)에 배경 음악과 관련된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시계의 초침 소리'는 배경 음악이 아니라 효과음에 해당한다.

11 이 영상은 기말고사 하루 전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고 계속하여 탄짓을 하지만 열심히 공부했다고 착각하는 주인공의 모습을 우스꽝스럽게 풍자하여 친구들에게 웃음과 공감을 유발하고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하는 것을 기획 의도로 하고 있으므로, 주인공이 좋은 성적을 거두어 밝게 웃는 장면은 이 영상의 기획 의도와 거리가 멀다.

12 (나)에서 학생들은 자막이 잘 보이도록 자막의 크기와 색상을 조정했고, 시간이 낭비되는 분위기를 강조하기 위해 효과음을 크게 했으며, 주인공의 모습을 우스꽝스럽게 표현하기 위해 특정 장면의 재생 속도를 2배속으로 편집했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표현 요소(자막, 효과음, 재생 속도) 세 가지를 모두 씀.	각 1점	4점
기획 의도를 적절하게 씀.	1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13 영상 매체는 문자, 소리, 이미지 등 다양한 양식이 결합된 복합양식 매체이다.

14 (가)에 따르면 장면 1에서는 자막이 나올 때 타자기 소리와 실로폰 소리를, 장면 2에서는 시간이 흐르고 있음을 표현하는 시계의 초침 소리를 효과음으로 삽입하고 있다. 이처럼 장면마다 적절한 효과음을 구분하여 사용하면 각 상황의 특징이나 분위기, 주제를 효과적으로 강조할 수 있다.

15 (가)와 (나)에 따르면, 장면 2는 지루해하는 주인공과 집중해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대비되도록 카메라의 거리를 멀게 해서 인물과 배경을 함께 촬영해야 한다. 따라서 카메라를 늘 주인공과 가까이 둔다는 ㉣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16 스토리보드 (가)에 제시된 표현 요소들 중 하나를 선택하고, 그 요소가 영상에서 어떤 의도로 사용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표현 효과를 주는지를 서술하는 문제이다. 스토리보드에는 장면별로 대사, 배경 음악, 효과음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으며, 이러한 요소들은 모두 영상의 분위기 형성, 인물의 행동 강조, 주제 전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적절한 표현 요소를 선택하여 씀.	1점	3점
배경 음악의 효과를 적절하게 씀.	2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핵심 마무리 체크 p.086~088

01 반대 **02** 반어 **03** 잊었노라 **04** 강조 **05** 진리 **06** 역설
07 꿈 **08** 강조 **09** 비판 **10** 풍자 **11** 매매 증서 **12** 횡포
13 걸치례 **14** 무위도식 **15** 도둑놈 **16** 간접적 **17** 기획안, 편집 기법 **18** 자막 **19** 계획 **20** 배경, 커 **21** 분위기 **22** 복합양식성

실전 모의고사 1 회

p.090~095

01 ④ 02 ④ 03 시각적 이미지, 후각적 이미지 04 ④ 05 비린내 난다(고) 06 ② 07 사람들이 물고기에게서 비린내가 난다고 말하는 것이, 물고기의 입장에서는 자신을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져 폭력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08 ① 09 ④ 10 임이 자신을 기억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11 ② 12 ⑤ 13 '나'에게 축구는 오랜 꿈이었던 만큼 여전히 축구를 좋아하는 마음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14 ① 15 ④ 16 ⑤ 17 축구 이야기 18 ② 19 (나)에서 '나'는 축구와 관련된 물건을 버리는 등 축구를 외면했지만, <보기>에서 초등학교들의 축구를 지켜보며 자신의 상처를 마주할 수 있게 되었다. 20 ⑤ 21 ③ 22 아저씨와 어머니는 모두 당황함을 느끼고 얼굴이 홍당무처럼 빨개졌다. 이는 '나'의 순수한 말과 행동이 서로에게 관심이 있는 두 사람의 관계를 드러낼까 걱정되어 당황함과 부끄러움을 느꼈기 때문이다. 23 "난 아저씨가 우리 아빠라면 좋겠다." 24 ③ 25 ⑤

- 01 (가)는 독백적인 어조로 부모님에 대한 애뜻함을 드러내고 있다. (나)는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으나 대상에 대한 애뜻한 감정은 찾아볼 수 없다.
- 02 화자는 집에 돌아와 지친 엄마의 모습을 보며 자신을 위해 수고하는 부모님에게 애뜻함과 감사함을 느끼고 있다.
- 03 '열린 문틈', '푸른 파도', '갈매기 날고' 등은 시각적 이미지이고, '소금 냄새 확 풍겨 온다'는 후각적 이미지에 해당한다.
- 04 항구는 배들이 모여 쉬는 장소인 것처럼, '우리 집 현관'은 가족들이 일상을 마치고 돌아오는 공간임을 드러내기 위해 항구에 빗대어 비유적으로 표현하였다.
- 05 이 시의 '우리들'은 물고기이다. 1연의 '우리들한테 / 비린내 난다고 하지 마세요'에 인간이 물고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단적으로 드러나 있다.
- 06 (나)는 물고기를 의인화한 화자를 설정하여 인간에게 요구 사항을 전달하고 있다. 이를 통해 독자는 물고기의 입장에서 시적 상황을 이해하고, 참신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
- 07 '언어폭력'이라는 표현은 사람들의 말이나 표현이 물고기에게 모욕감이나 상처를 주는 방식으로 전달되었음을 의미한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①과 같이 표현한 까닭을 적절하게 씀.	2점	3점
<조건>에 맞추어 씀.	1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 08 입에게 산버들을 꺾어 보낸다는 것에서 화자는 입과 이별한 상황이며, 입을 간절하게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09 (다)의 화자는 멀리 떨어져 있는 입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정성스러운 마음을 담아 '산버들'을 가려서 꺾어 보내려고 한다.
- 10 화자는 입에게 잠을 자는 창가에 자신이 보낸 산버들을 심어 두고 바라봐 달라고 하고 있다. 여기에는 임이 늘 자신을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자신을 기억해 주기를 바란다는 내용을 씀.	2점	3점
한 문장으로 씀.	1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 11 이 글은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서술되며, 이야기 속 등장인물인 '나'가 자신이 겪은 사건과 감정을 중심으로 서술하며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다.
- 12 윤현재는 "내 의견은 깡그리 무시하고"라며 자신의 의견이 무시되었다는 것에 분노를 드러내며, 큰 소리로 말하는 등 감정을 노골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 13 '나'는 축구 선수라는 꿈이 있었지만 부상으로 축구를 그만둔 상황이다. 그러나 (바)에서 드러나듯 축구에 대한 애정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기에, 축구공을 미처 버리지 못한 것이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나'에게 '축구'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밝힘.	2점	4점
①의 의미가 무엇인지 씀.	2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 14 송미단이 '나'에게 보낸 메시지의 응원 봉은 '나'가 좌절과 무기력을 극복하길 바라며 보내는 응원, 격려, 위로의 마음을 의미한다.
- 15 '나'는 처음엔 송미단이 나를 위해 만든 노래 목록이 낯설었지만 점차 듣다 보니 좋아졌고, 재생 목록을 직접 만들어 송미단에게 보내는 등 적극적인 태도로 반응하고 있다.
- 16 패스트푸드점은 송미단과 '나'가 함께 과제를 하며 음악을 공유하고,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대화를 나누는 등 감정적 교류를 나누는 공간이다.
- 17 '나'는 그동안 하지 못했던 '나'의 이야기, 즉 자신이 좋아하는 축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기 위해 송미단에게 만나자고 제안하고 있다.
- 18 1인칭 주인공 시점인 [A]와 달리, 3인칭 관찰자 시점인 <보기>에서는 이야기 속 등장인물이 아닌 서술자가 등장인물의 행동과 말만을 관찰하여 전달하므로 인물의 내면이 직접 드러나지 않아 독자가 인물의 심리를 추측하게 된다.
- 19 (나)에서 '나'는 부상으로 축구를 그만둔 후 축구와 관련된 물건을 갖다 버리는 등 축구를 외면하고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보기>에서는 이러한 모습과 달리 초등학교들의 축구 경기를 지켜보며 자신의 상황을 직면하고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자신의 상처를 마주하게 되었다는 내용을 씀.	2점	4점
<조건>에 맞추어 씀.	2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 20 이 글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 액자식 구성이란 이야기 속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이야기가 들어 있는 구성을 말한다.

② 이 소설은 1930년대 어느 마을을 배경으로 한 소설로, 예비당에는 남자석과 여자석이 구분되어 있고, 남녀가 서로 내외하는 등 보수적인 분위기가 남아 있던 시절을 배경으로 한다. '내외하다'는 '남녀 사이에 서로 얼굴을 마주 대하지 않고 피하다.'라는 뜻이다.

21 아저씨는 '나'의 어머니에게 연심을 품고 있지만 이를 외삼촌이나 다른 사람이 눈치챌까 싶어 숨기려 한다. 하지만 '나'에게 어머니와 관련된 질문을 자꾸 하거나 예비당을 따라가는 등 아저씨의 행동에서 어머니를 향한 관심과 마음이 드러난다.

22 봉건적 사회 분위기에서 재혼에 대한 부정적 시선이 있었기에, 두 인물은 '나'의 말과 행동으로 자신들의 미묘한 감정이나 관계가 외부에 노출될까 염려하여 당황함과 부끄러움 등의 감정을 느끼고 얼굴이 붉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조건 1>에 맞추어 씀.	1점	3점
<조건 2>에 맞추어 씀.	2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23 태어나서 한 번도 아버지를 불러 보지 못한 옥희는 아저씨가 아빠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24 '나'는 아저씨를 보고 반가워 손을 흔들지만 아저씨는 외면하고, 어머니는 '나'의 입을 막고 끌어당긴다. 이에 '나'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혼란을 느끼며, 아저씨와 어머니 모두 자신을 외면하자 서운함을 느낀다.

25 서술자는 어린아이로서 제한된 이해를 바탕으로 단순히 '성이 낫다'고 느낀 것이다. 이는 어린아이를 서술자로 설정한 것의 한계로, 이러한 방식은 독자들의 웃음과 안타까움을 유발할 뿐 비판을 유도하지는 않는다.

01 기타, 속상함 **02** ④ **03** 상대의 생각과 감정을 깊이 이해하고 포용해 줌으로써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04** ⑤ **05** 재혁이는 농구 경기가 다가오는데 동우가 연습에 빠져서 속상함을 느끼고 동우는 자신의 상황을 재혁이가 이해해 주지 않아서 서운함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06** 너 내 친구 맞아? **07** ② **08** 갈등을 합리적이고 원만하게 해결하며, 앞으로의 관계를 더 긍정적이고 친밀하게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09** ② **10** ⑤ **11** 갈때 뭘래? **12** ①은 상대와의 대화를 단절시키는 표현이다. 따라서 "아빠에게 말씀드리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요."와 같은 표현으로 바꾸어 쓰는 것이 좋다. **13** ④ **14** 범인이 경찰에게 체포됐다. **15** ① **16** 접시가 깨졌어요. **17** ⑤ **18** 어떤 동작이나 행위를 한 주체가 드러나지 않고 있으며, 동작이나 행위를 당하는 대상을 강조하고 있다. **19** ③ **20** ③ **21** 그 사람은 자기가 주인이라고 주장했다. / 어제 미주가 "내일은 내가 도와줄게."라고 말했다. **22** ①을 ②로 바꾸어 쓰면 말한 사람의 말투와 감정이 생생하게 전달되어 현장감과 다급한 감정을 느낄 수 있다. **23** ④ **24** ⑤ **25** ①의 '쓰여지길'은 이중 피동 표현이고, ②의 '발전되어'는 불필요한 피동 표현이므로 자연스럽지 않다.

01 미나는 기타를 배우러 학원에 다니고 싶는데 엄마가 중간고사를 이유로 허락해 주시지 않아 고민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엄마와의 대화도 잘 풀리지 않아서 답답하고 속상해하고 있다.

02 ㉠에서는 미나가 말한 내용을 요약·재진술하여 공감을 표현하고 있을 뿐, 자신의 유사한 경험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03 ㉠을 통해 경청하고 공감하는 대화가 상대의 생각과 감정을 좀 더 깊이 이해하고 포용하는 태도를 기르게 도와주고, 인물 간의 관계를 더욱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경청하고 공감하는 대화 방법의 장점을 알맞게 씀.	2점	3점
<조건>에 맞추어 씀.	1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04 재혁이는 "알 거 없어."와 같이 대화를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인다(㉠). 또한 "우리 경기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거야?" 등 사건을 주관적으로 해석하며 자기 감정을 일방적으로 드러내고, "네가 빠지면 연습에 피해가 얼마나 큰지 알아?"와 같이 상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말을 한다(㉡).

05 재혁이는 상대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만을 앞세워 속상함을 느꼈고, 동우는 자신의 입장을 배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재혁이의 태도에 서운함을 느꼈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재혁이의 생각과 감정을 알맞게 씀.	2점	4점
동우의 생각과 감정을 알맞게 씀.	2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06 동우는 자신의 상황을 이해해 주지 않는 재혁이의 태도에 화가 나서 "너 내 친구 맞아?"라며 감정적으로 대응한다. 상대의

입장과 감정을 존중하지 않는 이러한 표현은 갈등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 07 할머니가 '나의 의견에 반박하는 모습은 드러나지 않는다.'
- 08 ㉠에서는 불편한 점을 터놓고 말한 뒤 갈등을 조정하는 모습이 드러난다. 이러한 대화 방식은 갈등 상황을 원만하게 해결해 줄 뿐 아니라, 앞으로의 관계 유지 및 형성에도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점을 보여 준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갈등을 합리적이고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내용을 씀.	2점	4점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내용을 씀.	2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 09 민규가 친구에게 “내가 뭘데 우리 부모님 가지고 난리야.”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 상대가 민규의 부모님에 대해 무례한 발언을 했을 것이라는 내용을 추측할 수 있다.
- 10 (가)에서 명은이는 오빠 민규가 싸우는 모습을 보고 아이들이 자기 오빠임을 알아볼까 싶어 얼른 시선을 돌리며 신경 쓰지 말자고 한다. 이는 싸우는 상대가 자신의 오빠라는 사실에 부끄러움을 느껴 외면하려는 것이다.
- 11 아빠는 친구와 싸우게 된 민규의 상황이나 입장은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민규를 비난하는 표현으로 갈등을 악화시키고 있다.
- 12 민규는 아빠에게 자신의 상황, 입장, 감정을 솔직하게 말하지 않고 ㉠과 같이 말함으로써 대화를 단절시키고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대화를 단절시킨다는 내용을 씀.	2점	4점
㉠을 알맞게 바꾸어 씀.	2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 13 피동 표현은 주어가 다른 대상에게 동작이나 행위를 당하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 14 피동 표현을 만드는 방법에는 능동을 나타내는 동사에 접미사 ‘-이-, -히-, -리-, -기-’를 붙이거나 ‘-아/어지다’를 붙여서 만드는 방법과 일부 명사에 접미사 ‘-되다’를 붙이는 방법이 있다. <보기>의 능동 표현을 피동 표현으로 바꿀 때에는 능동 표현의 주어는 피동 표현의 부사어로, 능동 표현의 목적어는 피동 표현의 주어로 바뀌 쓰고, 명사 ‘체포’ 뒤에 접미사 ‘-되다’가 붙은 형태로 서술어를 바꿔 쓴다.
- 15 ㉠은 선생님이 나를 ‘웃도록 만든 것’, 즉 선생님이 웃는 행위를 ‘나’에게 하게 만든 것이다. ‘나’가 웃는 행위를 당한 것이 아니므로 ㉠은 피동 표현이 쓰이지 않았다.

Clinic 오답 강의

②는 ‘쏘다 + 접미사 -이-’, ③은 ‘밀다 + 접미사 -리-’, ④는 ‘안다 + 접미사 -기-’, ⑤는 ‘만들다 + -어지다’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피동 표현이 쓰였다.

- 16 피동 표현을 사용하여 동작이나 행위를 한 주체를 감춤으로써 동작이나 행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
- 17 뉴스 보도에서 피동 표현을 사용하면 판단의 주체를 감추어서 보도 내용이 개인의 생각이 아닌 일반적인 의견이라는 느낌을 줄 수 있다.
- 18 피동 표현을 사용하여 구출되는 행위의 대상인 ‘곰들’, 시행되는 행위의 대상인 ‘청소년 성장 지원 사업’을 강조하여 드러낼 수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동작이나 행위의 주체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내용을 씀.	2점	4점
동작이나 행위를 당하는 대상이 강조된다는 내용을 씀.	2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 19 ③은 인용 부호인 큰따옴표, 인용 조사 ‘라고’가 사용된 직접 인용 표현이다.
- 20 직접 인용 표현에서 ‘내일’은 말하는 시점에서 ‘오늘’에 해당한다. ‘계십시오’는 아들이 부모를 높인 것인데, 간접 인용 표현에서는 말하는 이가 부모 자신이 되므로 ‘있으라고’로 표현해야 한다.

- 21 직접 인용 표현과 간접 인용 표현을 서로 바꾸어 서술할 때는, 지시·인칭·시간·높임·종결 표현 등의 변화에 주의해야 한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직접 인용 표현을 간접 인용 표현으로 알맞게 바꾸어 씀.	2점	4점
간접 인용 표현을 직접 인용 표현으로 알맞게 바꾸어 씀.	2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 22 직접 인용 표현은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그대로 옮기므로 청자가 생동감과 현장감을 느낄 수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간접 인용 표현을 직접 인용 표현으로 바꾸어 쓸 때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씀.	3점	4점
한 문장으로 씀.	1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 23 ④는 간접 인용 표현이므로 인용 조사 ‘고’를 쓰는 것이 적절하다.
- 24 인용 표현을 사용할 때에는 의도를 왜곡하거나 출처를 생략해서는 안 된다. 또한 피동 표현을 사용할 때에는 능동 표현으로 나타낼 수 있음에도 피동 표현을 쓰는 등 불필요한 피동 표현을 남발해서 쓰지 않도록 해야 한다.

- 25 ㉠의 ‘쓰여지길’은 접미사 ‘-이-’가 붙어 이미 피동 표현이 된 ‘쓰이다’에 ‘-어지다’가 붙어 이중 피동 표현이 된 형태이다. 또한 ㉠의 ‘발전되어’는 능동 표현인 ‘발전하여’라고 해도 충분히 함에도 ‘-되다’ 형태의 불필요한 피동 표현이 쓰였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쓰여지길’이 이중 피동 표현임을 밝힘.	2점	4점
‘발전되어’가 불필요한 피동 표현임을 밝힘.	2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01 ③ 02 ⑤ 03 읽기 전에 제목을 훑어보며 내용을 예측할 수 있다. 04 ⑤ 05 ⑤ 06 ⑤ 07 ② 08 ⑤ 09 읽기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능동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글을 집중해서 읽으며 글의 내용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다. 10 ③ 11 ㉠: 비교와 대조 ㉡: 인과 12 ① 13 하나의 의견이 더 적절하다. 대상의 구조를 설명할 때는 대상을 그 구성 요소로 쪼개어 설명하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14 ⑤ 15 중간 1: 자료1, 자료 4 / 중간 2: 자료 2 / 중간 3: 자료 3, 자료 5 16 ③ 17 ② 18 글의 흐름을 고려할 때 라면의 일반적인 조리법을 먼저 소개하는 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이다. 19 ① 20 ④ 21 ④ 22 ⑤ 23 ① 24 ② 25 (1) 비교와 대조 (2) 유통면과 건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중심으로 설명하여 각각의 특징을 분명하고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다.

- 01 제시된 상황에서 연재는 친구들이 경제에 관심이 많아진 점을 언급하며 자신의 읽기 목적을 밝히고, 읽기 목적과 수준, 관심사에 맞는 책을 추려 내고 있다. 친구들의 흥미를 유발할 만한 책을 찾아보고 있지는 않다.
- 02 (마)에 따르면 한정판 상품은 많은 사람이 좋아하는데 그런 수요에 비해 수량이 적으므로 다른 사람이 갖기 전에 빨리 움직여서 상품을 손에 넣으려고 한다고 하였다. 이처럼 한정판 상품에 열광하는 것은 원하는 사람은 많은데 재화가 한정적이기 때문이므로 희소성의 개념과 관련 있다.

Clinic **오답 강의**

①, ③, ④ 콘서트 티켓이나 다이아몬드처럼 원하는 사람은 많은데 재화가 한정적인 것을 '희소하다'라고 한다. 이처럼 원하는 사람은 많은데 수량이 충분하지 않으면 물건의 가격이 비싸진다.
 ② 수요와 상관없이 수량이 적고 귀한 것을 '희귀하다'라고 하며 '희소하다'와 경제학적으로 다른 의미를 지닌다.

- 03 제목을 활용하여 글의 내용을 예측할 수 있다. 즉 이 글의 ㉠을 보고 콘서트 티켓 가격을 소재로 설명하는 글일 것 같다는 예측을 할 수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글의 내용을 예측할 수 있다는 내용을 씀.	3점	3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 04 <보기>는 글을 읽는 중에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의 앞부분을 다시 읽어 봄으로써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과정을 보여 준다.
- 05 글 전체에서 '사회적 촉진 현상'과 '사회적 억제 현상'의 개념을 설명하고, 이 현상을 일상생활에서 활용하는 방법까지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 글의 주제는 '사회적 촉진 현상과 사회적 억제 현상의 개념과 유용성'이 적절하다.
- 06 질문을 만들고 그에 대한 답을 찾으며 글을 읽는 것은 읽는 중에 ㉡의 방법을 활용한 것이다.
- 07 도서관에서 공부의 능률이 오르는 것은 조용한 분위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존재가 주는 사회적 촉진 효과 때문이다.

- 08 알고 있던 배경지식을 활용하여 글을 이해하며 읽는 것은 읽는 중 활동에 더 적합하다.

- 09 자신의 읽기 과정을 점검·조정하며 글을 읽으면 읽기 과정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능동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글을 집중해서 읽으며 내용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읽기 과정을 점검·조정하며 읽기의 효과를 알맞게 씀.	각 2점	4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 10 '곤충의 몸은 크게 머리, 가슴, 배의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전체를 구성하는 요소로 나누어 설명하는 분석이 사용된 문장이다.

- 11 테니스와 배드민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비교와 대조'를 활용하는 것이 적합하며, 바닷물이 짠 까닭은 대상을 원인과 결과를 중심으로 설명하는 '인과'를 활용해서 설명하는 것이 적합하다.

- 12 <보기>는 예시가 사용된 문장으로, 이와 같은 설명 방법이 사용된 것은 강아지 품종의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한 ㉠이다.

Clinic **오답 강의**

②는 정의, ③은 인과, ④는 분석, ⑤는 분류와 구분의 설명 방법이 사용되었다.

- 13 '분류와 구분'은 대상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묶거나 나누어 설명할 때 쓰는 설명 방법이므로 자전거의 각 부분을 바탕으로 자전거의 구조를 설명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하나의 의견이 적절하다고 씀.	1점	3점
분석이 더 적절한 까닭을 설명함.	2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 14 (가)의 예상 독자는 '라면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기대하는 우리 반 친구들'이므로, 자료 5에 제시된 '라면을 건강하게 먹는 방법'을 활용하면 예상 독자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다.

- 15 '중간 1'은 라면의 정의와 특성을 다루고 있으므로, 라면 수프에 관한 내용인 '자료 1', 라면의 면발에 관한 내용의 '자료 4'를 활용할 수 있다. '중간 2'는 라면을 맛있게 먹는 방법을 다루고 있으므로, 라면을 맛있게 끓이는 비법을 설명하는 '자료 2'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중간 3'은 라면을 건강하게 먹는 방법을 다루고 있으므로, 라면의 영양 성분을 알려 주는 '자료 3', 라면을 건강하게 먹는 방법에 대한 내용인 '자료 5'를 활용할 수 있다.

- 16 '자료 3'은 영양소의 뜻이 아닌 라면의 영양 성분 비율을 다루는 자료이다. 분석을 활용하여 라면의 영양 성분에 관해 설명하는 것이 적절하다.

- 17 '중간 1'에서 제시할 내용인 '라면의 정의'에 관한 정보가 없으므로, 추가적으로 사전에서 라면의 정확한 뜻을 찾아 이를 활용해야 한다.

Clinic 오답 강의

①은 글을 쓰기 전 독자를 분석하는 과정과 관련된 것으로, 글을 쓸 때 추가적으로 필요한 자료는 아니다. ③은 '자료 5'에, ④는 '자료 3'에, ⑤는 '자료 1'에 이미 제시되어 있는 내용이다.

18 글의 흐름을 고려했을 때, 라면의 일반적인 조리법을 먼저 언급하고 라면을 맛있게 끓이는 비법을 이어서 소개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흐름을 고려하여 순서를 바꾸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내용을 씀.	3점	3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19 설명하는 글을 쓸 때 먼저 글의 주제와 목적을 정하는 '계획하기'를 하고, 주제와 관련된 정보를 모으는 '자료 수집하기'를 거친다. 그다음 내용을 체계적으로 배열하는 '내용 조직하기'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초고 쓰기'를 진행한 뒤, 글의 내용·조직·표현 차원에서 글을 고쳐 쓰는 '고쳐쓰기'를 한다.

20 설명하는 글을 쓸 때는 설명하려는 대상의 특성에 적합한 설명 방법을 활용해야 한다.

21 수진이는 독자의 반응을 반영하여 글의 표현을 수정하고 시각적 보조 자료를 추가했다. 이는 독자의 수준과 요구 사항을 고려하여 글을 고쳐 쓰는 것을 보여 준다.

22 (라)에서 수프를 먼저 물에 넣고 끓이다가 면을 넣으면 면발을 익히는 시간이 줄어들어 쫄깃한 식감을 즐길 수 있다고 하였다.

Clinic 오답 강의

- ① (나)에서 라면의 맛을 가장 크게 좌우하는 것은 수프라고 하였다.
- ② (다)에서 기름에 튀긴 유당면이 깊고 진한 맛을 내는 반면, 건면은 담백하고 깔끔한 맛이 특징이라고 하였다.
- ③ (나)에서 라면 수프는 형태에 따라 크게 분말 수프와 액상 수프로 나눌 수 있다고 하였다.
- ④ (마)에서 라면은 비교적 영양이 균형 잡힌 식품이지만 나트륨 함량이 높은 편이라고 하였다.

23 글의 처음 부분인 (가) 뒤에 이어질 내용을 안내하는 문장을 넣고 본격적으로 내용을 전개해 나가는 것이 자연스럽다.

24 ㉠은 (다)뿐 아니라 글 전체 내용과 관련이 적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적절하다.

25 (다)는 유당면과 건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함께 제시하는 '비교와 대조'의 설명 방법을 사용하여 두 면발의 특징을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였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다)에 활용된 설명 방법이 '비교와 대조'임을 밝힘.	1점	3점
비교와 대조를 활용하여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무엇인지 씀.	2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실전 모의고사 4회

p.107~111

01 ② **02** ⑤ **03** ③ **04** ② **05** ㉠에는 역설이 쓰였으며, '나'는 혼자이지만 꿈이 있어서 어려움을 이겨 낼 수 있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06** ⑤ **07** ① **08** 양반이 아니라는 이유로 천한 대접을 받는 것이 싫었기 때문에 양반의 환곡을 대신 갚고 양반 신분을 사려는 것이다. **09** 환곡을 갚느라고 이미 양반을 팔았으니 **10** ② **11** ④ **12** ① **13** [A]는 양반의 부정적인 모습을 풍자하며, 이를 통해 부당한 특권을 남용하며 횡포를 일삼는 양반을 비판하는 소설의 주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다. **14** ② **15** ③ **16** ③ **17** ⑤ **18** ⑤ **19** 영상 매체 자료의 구성 요소에는 시각 이미지, 자막 등의 시각적 요소와 대사, 배경 음악, 효과음 등의 청각적 요소가 있다. 이와 같은 요소를 고려하여 스토리보드를 작성하면 영상을 보다 체계적으로 제작하고 주제를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다. **20** 멀게 해서 **21** ① **22** ② **23** ⑤ **24** ④ **25** 편집은 개별 장면에 새로운 관계를 부여하여 의미를 만들어 낼 수 있고, 장면의 배열 순서를 바꾸면 전혀 다른 이야기와 감정을 형성할 수 있다.

01 (가)는 '잇었노라'라는 시어가 반복적으로 제시되어 임을 잊지 못하고 그리워하는 화자의 일관된 태도를 부각하고 정서를 강조한다.

02 화자는 '먼 훗날 당신이 찾을 것'을 상상하며, 그때 자신이 건넬 말을 떠올려 보고 있다.

03 ㉠은 사랑하는 사람을 잊지 못하는 속마음을 반대로 표현한 반어 표현이다. 이러한 표현을 활용하여 '당신'을 결코 잊을 수 없다는 속마음을 강조하여 드러낼 수 있다.

04 '낙타'는 '혹'이 있어 더위도 추위도 목마름도 견딜 수 있다고 하였다. 즉 '혹'은 더위, 추위, 목마름과 같은 시련과 어려움을 견디게 해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05 나도 혼자 견고 있지만 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아갈 수 있다는 내용을 역설을 활용하여 표현한 구절이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역설'을 씀.	1점	3점
㉠에 담긴 의미를 알맞게 씀.	2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06 부자는 양반의 형편으로는 빚을 갚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환곡을 대신 갚아 주겠다고 찾아간다. 또한 군수가 양반이 환곡을 모두 갚았다는 것에 깜짝 놀라는 것으로 보아 양반이 빚을 갚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였음을 추측할 수 있다.

07 ㉠에서 아내는 환곡을 갚는 데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는 무능한 남편의 모습을 비판하며 편잔을 주고 있다.

08 평소 재물이 있어도 천한 대접을 받던 부자는 양반 신분을 사서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높이기 위해 양반의 환곡을 대신 갚은 것이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천한 대접을 받는 것이 싫었다는 내용을 씀.	2점	4점
양반의 환곡을 대신 갚고 양반 신분을 산다는 내용을 씀.	2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 09 양반은 환곡을 갚기 위해 부자에게 양반 신분을 팔았기 때문에 평민처럼 행동하고 있다.
- 10 부자는 처음에 양반이 되면 신선같이 살 것이라 기대했다. 그러나 군수가 제시한 첫 번째 증서에서 드러난 것은 양반으로서 지켜야 할 덕목과 행실뿐이었으므로 이에 실망하고 있다.
- 11 ㉓은 일을 하지 않고 무위도식하는 양반의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다.
- 12 군수는 ㉑에서 양반으로서 지켜야 할 덕목과 행실만을 나열하고, ㉒에서는 양반의 부당한 특권만을 강조하고 있다. ㉑와 ㉒를 접한 부자는 자신이 기대하던 양반의 모습과 현실이 다르다는 것을 깨닫고, 생각과 태도가 바뀌어 양반이 되기를 포기한다.
- 13 [A]는 양반의 특권 의식과 횡포를 풍자하며, 신분제의 부당함과 허위성을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구절이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A]에 나타난 풍자의 대상이 무엇인지 밝힘.	2점	4점
[A]가 갖는 표현 효과를 소설의 주제와 관련지어 씀.	2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 14 ‘요즘 날씨 참 좋네.’는 실제 상황과 반대로 말하는 반어 표현이다.
- 15 영상 매체 자료 편집 시에는 보는 사람의 흥미보다 주제와 목적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16 은진이는 영상으로 제작할 내용에 어울리는 형식을 제안하고 있다.
- 17 시각 이미지는 스토리보드를 작성할 때 고려해야 할 내용이다. 기획안에는 제목, 형식, 예상 분량, 주제, 기획 의도, 내용, 제작 일정과 역할 분담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18 카메라의 각도를 위에서 아래로 찍으면 대상을 실제보다 작아 보이게 한다. 대상의 자신 있는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아래에서 위로 찍어 실제보다 커 보이게 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 19 영상 매체 자료에는 시각 이미지, 자막 등의 시각적 요소와 대사, 배경 음악, 효과음 등의 청각적 요소가 있다. 이러한 요소를 미리 계획해 스토리보드를 작성하면 영상을 체계적으로 제작하고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스토리보드 작성 시 고려할 시각적, 청각적 요소를 언급함.	2점	4점
스토리보드를 작성하는 이유를 그 효과와 관련지어 씀.	2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 20 대상의 전체적인 모습과 배경을 동시에 보여 주기 위해서는 카메라와 대상의 거리를 멀게 해야 한다.
- 21 영상 매체 자료는 ‘계획하기 - 기획안과 스토리보드 작성하기 - 촬영하기 - 공유하고 평가하기’의 과정을 거쳐 제작한다.

- 22 영상 매체 자료를 평가할 때는 영상의 주제, 기획 의도, 시청자의 흥미, 시·청각적 요소 활용, 저작권과 초상권 준수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다. 자막의 양을 늘리는 것은 필수 요소가 아니며, 오히려 과도한 자막은 전달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다.
- 23 이 글에서는 개별 장면들이 원래는 별 의미가 없다가도 편집을 통해 이야기가 구성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는 장면 배열을 통해 이야기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24 글쓴이는 같은 장면이라도 순서를 바꾸면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를 구성할 수 있다고 하였다.
- 25 편집은 개별 장면에 새로운 관계를 부여해 의미를 만들어 내고, 장면의 배열 순서를 바꿔서 전혀 다른 이야기와 감정을 형성할 수 있게 한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편집이 이야기 구성에 미치는 효과를 씀.	3점	3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음.	-1점	

me mo



A series of horizontal dotted lines for writing, starting from the top right of the title and extending down the page.